

인천교육

인천교육 - 2011 | VOL.45

특별기획 I

교육력을 높이는 학교컨설팅

학교컨설팅의 의의와 전망 | 학교컨설팅을 위한 준비와 제언

학교컨설팅을 통한 특색있는 학교운영 | 좋은 수업 만들기 위한 수업컨설팅 방향

EBS "선생님이 달라졌어요" 참가기

특별기획 II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교육기부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기부 | 작은 씨앗 큰 희망 교육기부 활성화 방안

학교별 교육기부 우수사례 | 배움을 나누는 것의 의미

'공신' 멘토링을 통해 얻은 소중한 경험 | 찾아가는 행복문화포럼 기부 사례

현장중계

초·중·고 진로교육의 활성화 방안



인천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

Incheon Education &
Science Research Institute

자문위원

- 기획연구평가부장 김영진
- 기획연구평가부 교육연구사 심규민, 이석재, 이은혜

총괄기획

- 교육연구사 김미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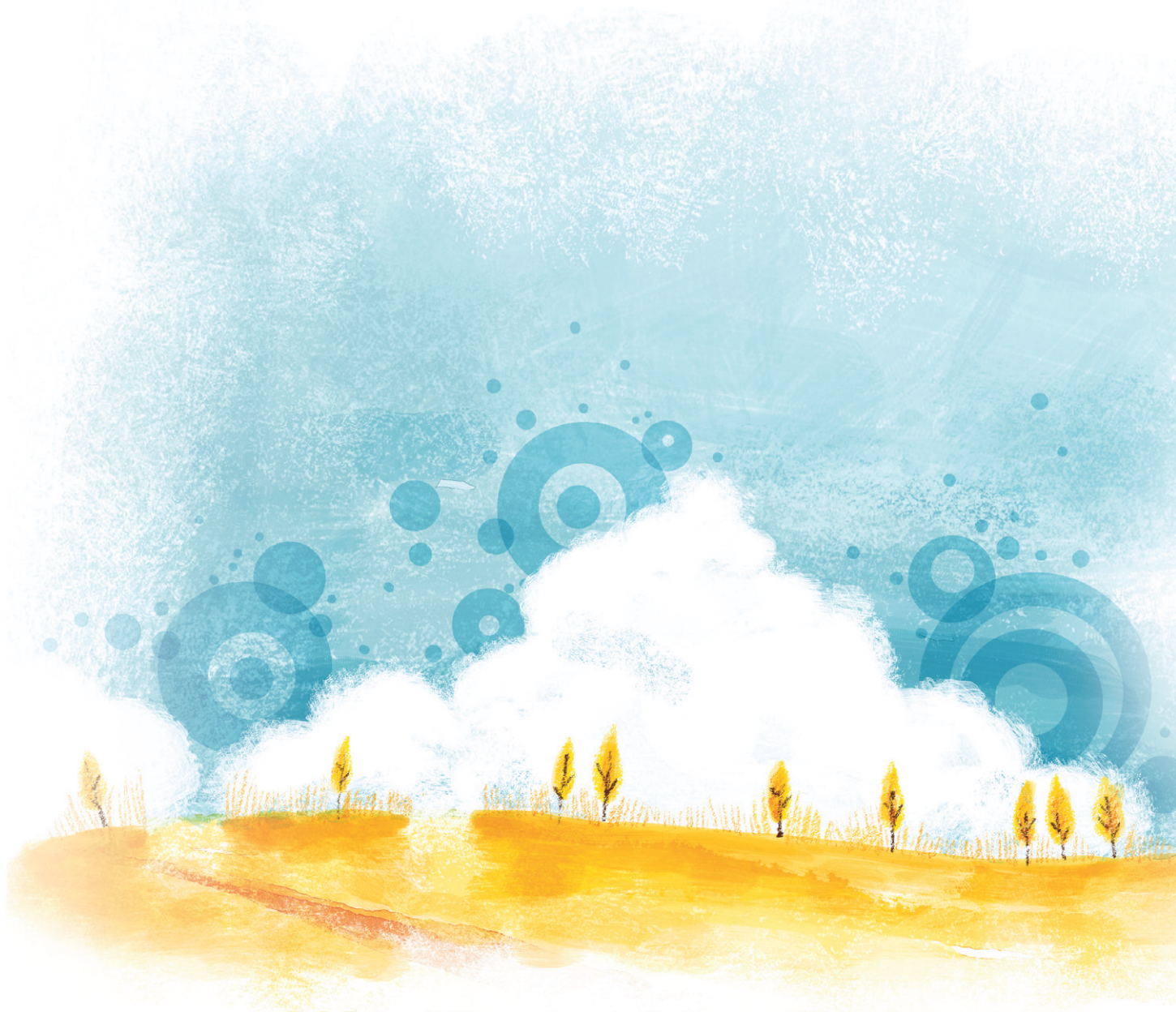
편집위원

- 디 자 인 인주중학교 교사 남일성
 성리중학교 교사 한경애
 - 윤문,교정 만성중학교 교사 홍미정
 강화여자고등학교 교사 고양숙
- 인쇄 : (주)송의기획 032)761-4800
-

인간교육

교사란 자신을 태움으로써 다른 사람을 밝게 비춰 주는 초와 같다
- 이탈리아 속담





C.O.N.T.E.N.T.S

자문위원

- 기획연구평가부장 김영진
- 기획연구평가부 교육연구사 심규민, 이석재, 이은혜

총괄기획

- 교육연구사 김미경

편집위원

- 디 자 인 인주중학교 교사 남일성
 성리중학교 교사 한경애
 - 윤문,교정 만성중학교 교사 홍미정
 강화여자고등학교 교사 고양숙
- 인쇄 : (주)송의기획 032)761-4800

인사말

004

발간에 즈음하여 | 인천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장 이행자

교육시론

007

2012년 교육의 방향 | 인천광역시교육감 나근형

011

꿈을 향해 정진하는 미래인재 | 인천카톨릭대 교수 차동엽

특별기획 I : 교육력을 높이는 학교컨설팅

020

학교컨설팅의 의의와 전망 | 한국교육개발원 학교컨설팅연구실장 박효정

028

학교컨설팅을 위한 준비와 제언 | 인천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장학사 최영선

034

학교컨설팅을 통한 특색있는 학교운영 | 인천신현고 교장 이승복

042

좋은 수업 만들기 위한 수업컨설팅 방향 | 간재울중학교 수석교사 황용혜

049

EBS "선생님이 달라졌어요" 참가기 | 청주 용암중학교 교사 박상민

058
063
067
073
077
081

087

100
105

114
119

126
130

138
144
152

155
158
160
162
164
165
166

168
173

특별기획 II :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교육기부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기부 | 한국과학창의재단 창의인재기획단장 김윤정
작은 씨앗 큰 희망 교육기부 활성화 방안 | 인천광역시교육청 창의인성교육과장 심연기
학교별 교육기부 우수사례 | 인천광역시교육청 창의인성교육과 교감 홍호석
배움을 나누는 것의 의미 |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 대표 이준석
'공신' 멘토링을 통해 얻은 소중한 경험 | 공신닷컴 회장 이창민
찾아가는 행복문화포럼 기부 사례 | 행복문화포럼 대표·변호사 안귀옥

현장중계

초·중·고 진로교육의 활성화 방안 |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정책과

인천교육정책

학교평가단 활동을 마치며 | 인천교육대학교 교수 최선영
특성화고의 선취업 후진학 정책 | 정보직업교육과 장학관 이종윤

선진교육현장체험

융합과학으로의 여행 MIT Media Lab 탐방기 | 한국교육개발연구원 연구원 강병직
가을에 띄워 보낸 재충전의 부메랑 | 백학초등학교 교사 양경희

지역사회 문화와 사람

일곱 빛깔 인천 개항장 역사 도보 여행 | 인천문화재단 기획홍보팀장 김병훈
평범한 이들의 풍요로운 나눔 현장, 도배 봉사단 이영기 대표와의 만남
인천만성중학교 교사 홍미정

참여와 어울림

[교단수필]

붕어빵 현상을 통해 바라본 독서교육 | 경기도 하늘초등학교 교감 안경수
독서토론, '그들의'에서 '함께'로 | 인천상정고등학교 교사 김배홍
'인천사람'과 살고싶다 | 부광고등학교 교사 신현수

[학력향상지원프로그램 사용후기]

학부모가 아닌 부모의 마음으로 | 인천신송초등학교 학부모 김문숙
[시] 엽서한장 / 연안부두 | 인천연성초등학교 교사·시인 한연순
빈 공간 | 신송중학교 교장·시인 원유자
[그림] 정선기행1, 정선기행2 | 인천광역시학생종합수련원 교학과장 곽형진
[사진] 강화도의 만추 | 조산초등학교 교장 이응복
무제 | 인주중학교 교사 강혁

[미시와 거시의 세계] 인천교육과학연구원 교육연구사 조정은

[나를 바꾼 한 권의 책]

내 인생의 평생의 스승 다산 정약옹 | 해송고등학교 교감 장인선
현장메아리

한층 옷깃을 여미게 하는 12월입니다.
마지막 달이라는 느낌보다
새로움을 맞이하는 달로 보내고 싶습니다.

어쩌다 연구원뒤 백운산에 오를 때마다
보물을 줍듯 한두 개씩 솔방울을 집어옵니다.
주워 온 솔방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겉껍이 달린 비늘 조각 사이 사이에
씨알들이 숨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천교육』은 이러한 솔방울의 꼭꼭 숨겨둔 씨알처럼
알찬 교육을 위한 교육이론과 고민해야 할 현안과제를 모았습니다.

특히 이번 『인천교육 45호』는
『교육기부』와 『수업 컨설팅』을 특별기획으로 삼아
다양한 교육 현장의 목소리에 부응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사회적 변화에 따라
창의적인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현장의 역할은 매우 막중해졌습니다.
빠른 변화와 더불어 수많은 요구 또한
일선학교의 선생님들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솔방울은
기름진 산에 자라는 커다란 소나무보다
척박한 산에 있는 작은 소나무에 다닥다닥
더 많이 달린다고 합니다.

저게 저절로 붉어질리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 안에 번개 몇 개가 들어서서
붉게 익히는 것 일게다.

〈장석주의 대추 한 알 中에서〉


대추 한 알을 만드는 데도 이렇게 무수한 고통이 수반되는데,
미래를 책임질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데 그만한 고통과 노력이
수반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인천 교육의 미래를 위하여
교육가족들 모두가 서로가 서로에게 버팀이 되는 잔 비늘이 되어
희망과 열정이라는 씨앗을 뿌려야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의 희망과 열정에 『인천교육』이 밑거름이 되어
현안문제를 인식하고 공유하며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2011. 12

인천교육과학연구원장 이 행 자



나는 나의 스승들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다. 그리고 내가 벗삼은 친구들에게서 더 많은 것을 배웠다.
그러나 내 제자들에게선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웠다.
- 탈무드

교육의 가장 으뜸은 '사람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에 우리 인천교육은 부모님을 섬기고 웃어른을 공경하는 태도를 생활화함으로써 바른 인성을 실천하는 인재를 육성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효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효 체험 선도학교 100개교와, 효체험 학습관인 '효누리 행복학교' 등을 운영함으로써 생활 속의 효교육을 강조하여 인성교육을 내실화해하겠습니다.



글 > 나 근 형
인천광역시교육감

[교육시론]

2012년 인천교육의 방향





우리 인천은 국제공항과 항만이 있으며, 송도 경제자유구역과 같은 신도시의 확대로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이 날로 더해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대를 이끌어 나갈 스마트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우리 인천교육은 “바른 인성과 실력을 갖춘 창의인재 육성”이라는 교육지표를 세우고, 사랑을 베푸는 인성교육 강화,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 배려와 나눔의 교육복지 실현, 소통하며 신뢰받는 교육행정 구현이라는 4대 교육시책을 수립하였습니다.

효 교육을 통해 인성교육을 강화해야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예의범절이 바르고 인륜도덕을 잘 지키는 ‘동방예의지국’입니다. 우리 문화 중 으뜸인 효는 바른 세상, 바른 행동, 사랑이 넘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훌륭한 덕목입니다. 즉, 효는 덕의 근본이어서 모든 가르침이 여기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교육의 가장 으뜸은 ‘사람됨’ 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에 우리 인천교육은 부모님을 섬기고 웃어른을 공경하는 태도를 생활화함으로써 바른 인성을 실천하는 인재를 육성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효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효체험 선도학교 100개교와, 효체험 학습관인 ‘효누리 행복학교’ 등을 운영함으로써 생활 속의 효교육을 강조하여 인성교육을 내실화해야겠습니다.

맞춤형 교육으로 공교육의 신뢰도를 높여가야 합니다

인천교육은 학습의 즐거움을 살리는 수업을 확산하고자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수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효성 있는 학력 향상을 위해 학력향상 선도학교를 선정하여 지역별 학력향상을 주도하는 체제를 구축, 학교간 상호 협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 학습부진학생에 대한 개별 지도가 필요합니다. 이에 학습부진학생

미래 교육은 '집어넣는 교육'이 아니라 '끄집어내는 교육'이라고 합니다. 학생들의 잠재력과 바람직한 가치관을 '찾고 키워주는' 교육의 핵심에 '창의성'과 '인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창의·인성교육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동시에 더불어 살 줄 아는 인재'를 요구합니다. 이러한 인재양성은 교육의 본질이자 우리 인천교육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에 대한 체계적 이력관리와 기초학력 책임지도 실행제를 통하여 한 명의 학생도 뒤처지지 않도록 개별학생을 위한 종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인천은 인천공항 및 송도, 청라, 영종지구 등 국제도시로서의 면모를 훌륭히 갖추고 있는 반면, 강화, 옹진, 서해5도를 포함한 농산어촌의 교육 여건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여건과 학교환경을 고려한 다양하고 특색있는 교육과정 운영이 필요합니다.

더구나 최근 들어 과학·기술 및 교통·통신의 발달로 세상의 변화는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인천교육은 변화를 이끌어 나갈 능동적이고 자기주도적인 학습능력을 가진 학생을 기르기 위해 학업성취목표관리제를 도입, 시행하고 있습니다.

창의적 교실수업과 수준별·맞춤형 수업을 지원하는 학생 중심의 교과교실제를 확대하고, 학교 특색에 맞는 교육과정을 컨설팅하며, 고교 교육력 제고 시범학교, 과목별 중점학교 등의 교육과정 특색학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교육 없이 학교교육만으로 각자의 재능과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맞춤형 사교육 없는 학교'를 육성하여 공교육의 신뢰도를 높여가고자 합니다.

창의·인성 교육 패러다임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미래 교육은 '집어넣는 교육'이 아니라 '끄집어내는 교육'이라고 합니다. 학생들의 잠재력과 바람직한 가치관을 '찾고 키워주는' 교육의 핵심에 '창의성'과 '인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모방형 인재'가 성장을 주도하였습니다. 그러나 미래의 성장 동력은 새로운 것을 생각하고 만들어 내는 '창조형 인재'가 주도합니다. 2009 개정 교육과정, 입학사정관제 등이 도입됨에 따라 교과 위주, 점수 위주 교육에서 창의성과 인성을 충실히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창의·인성교육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동시에 더불어 살 줄 아는 인재'를 요구합니다. 이러한 인재양성은 교육의 본질이자 우리 인천교육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창의·인성교육을 방해하는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창의성은 몇몇 소수만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특별한 능력이며, 모든 학생이 교육을 통해서 창의성이 계발되기는 어렵다는 오해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소수를 위한 엘리트 중심의 영재교육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평도 합니다. 또 인성

교육은 ‘고리타분’하고, ‘문제아 교육’으로 인식하는 부정적 이미지를 갖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청은 다양한 수업 방식과 평가를 통한 교과학습, 창의적 체험활동의 활성화, 전통적, 미래지향적·진취적인 인성교육 등을 통하여 창의성과 인성을 고루 갖춘 인재 양성에 힘쓰겠습니다. 특정 대상이나 교과가 아닌, 유아 단계에서부터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창의·인성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특성화고의 경우, 산학협력형 특성화교육성을 통해 산업수요에 맞는 맞춤형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려와 나눔을 통하여 교육 양극화를 극복해야 합니다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빠른 속도로 경제발전을 이룬 우리 사회는 빈부격차로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고 맞춤형 교육복지 실현하기 위해 우리교육청은 시와 협력하여 금년에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무상급식을 시작했고, 미래에는 중학교까지 확대 지원함으로써 위화감 없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맞벌이 가정과 저소득층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학력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초등 돌봄공부방을 확대하여 226교, 249실을 운영하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다양한 맞춤형 교육복지 지원으로 공정한 교육 기회를 확대하여 교육양극화 현상을 극복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노력과 헌신이 꿈·보람·만족의 인천교육을 만듭니다

아무리 훌륭한 교육과정이라도 교사의 열정이 없다면 성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교육청은 교사들의 자발적 노력과 연수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원능력개발평가제를 활성화하여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연수체계를 확립하고 교육 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여가고자 합니다.

우리교육청은 교육수요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의 기본과 내실을 기하는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부모 교육 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학부모의 학교교육 이해를 돕고, 지원을 체계화하여 자녀교육 역량과 학부모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맑고 투명한 공직사회 실현을 위하여 감사체제와 각종 제도를 개선하여 비리발생 소지를 차단하고 감사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또 교육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주요 예산사업의 투·융자심사를 강화하고, 집중관리와 평가분석을 통해 교육재정의 낭비적이고 비효율적인 요소를 적극 발굴·개선하는 등 내실 있고 체계적인 예산 운영을 하도록 노력하여 신뢰받는 인천교육이 되고자 합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인천의 학생들과 교직원들에게 뜨거운 감사와 존경의 박수를 보내며, 모두가 함께 이루어갈 꿈·보람·만족을 주는 희망찬 인천교육의 앞날에 힘찬 응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자는 1%의 세계에 집착하지 않고 99%의 세계에 눈뜨게 하는 교육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판단과 느낌에 매여 살지 말고, 꿈으로, 신념으로 사는 법을 새롭게 가르쳐야 한다. 1%의 우물 안에서 갇혀 살지 말고 99%의 드넓은 가능성의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기로 하자.



글 > 차 동 엽
인천카톨릭대 교수
미래사목연구소 소장

[교육시론]

꿈을 향해 정진하는 미래인재





위대한 멘토를 만나게 하라

나는 지난 여름, 즐기차게 쏟아지는 소나기를 맞으며 ‘소나기 마을’을 찾았다. 대한민국 문학계의 거목 황순원 선생님 문학촌인 그곳에, 내가 소장하고 있는 연구소에 여러모로 도움을 주고 있는 작가 안영 선생이 춘장으로 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빈손으로 가기가 뭣하여 철쭉나무 두 그루를 싣고 갔다. 아니 사실은 나에게 귀하디 귀한 그 관상용 철쭉을 선물하기 위해 갔던 것이다. 언젠가 안영 선생과의 통화중 황순원 선생님 묘소 근처가 조금은 썰렁하다는 얘기를 들었던 터, 한 지인으로부터 30년 정성껏 키운 것들이라며 기증받은 몇들어진 철쭉들 일부를 꼭 나눠드리고 싶어 버르고 버르다 그날 직접 수송 작전을 감행(?)했던 것이다.

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막 현역에서 은퇴했음 직해 보이는 남성 그룹 한 무리가 먼저 와 있었다. 정해진 시간이 되자 안영 선생은 소나기 마을 춘장답게 황순원 선생님을 ‘순수’, ‘절제’, ‘나라 사랑’ 이 세 단어로 표현하셨다. 뒤이어 선생의 생애와 문학을 영상물로 감상하고, 유물 전시실을 돌아보며 나는 그분의 고결한 삶과 문학적 향기에 흠뻑 취해 새삼 행복했다.

특히 선생께서 얼마나 고집스럽게 ‘순수’를 마치 신앙처럼 지켜내셨는가를 그날 귀동냥으로 알게 된 것이 나에게 커다란 횡재였다. 선생님은 시, 소설 이외에는 거의 잡문을 쓰지 않으셨다 한다. 60년대 제법 돈이 될 법한 신문 연재소설 제의를 많이 받았지만 단 한 번도 쓰지 않으셨는데, 그 이유는 신문 연재야말로 독자들의 입맛을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통속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또 선생님은 탐욕이 없으셨다. 문단에서는 문인협회장을, 경희대학교에서는 문리대학장직을 제의하셨지만 끝내 사양하고 소설가로서, 그저 교수직으로서 충분하다고 하셨다는 것이다.

역사관에서 나의 눈을 사로잡은 것은 무엇보다도 그분이 17세 소년시절에 처음으로 발표했다는 시 〈나의 꿈〉이었다. 그 시 전문을 읽는 순간 나는 전율을 느꼈다. 순간적으로 ‘아, 이 시가 작은 거목 황순원 선생님의 삶을 초지일관 비장하고 단호하게 관통하고 있었던 것이로구나!’ 하는 깨달음이 뇌리를 스쳤다. 내가 그것을 고스란히 포착할 수 있었던 것은 나 역시 줄져 『무지개 원리』를 비롯해 여러 강연에서 그토록 강조하던 주제가 ‘선하고도 원대한 꿈을 품으라’ 였기 때문이다. 누구에게나 ‘꿈’은 와 닿을 수밖에 없는 단어겠지만, 꿈의 소중함을

“선생님의 꿈, 제가 사겠습니다. 철쭉 두 그루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나는 잃어버린 순수를 회복한 환희에 내내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다. 내 여생을 동반해줄 위대한 멘토를 만난 기쁨에! 원고 청탁을 수락하고 주제를 받는 순간 내 머릿속에 곧바로 떠오른 그날의 기억, 그렇다. 확신컨대, 꿈을 향해 정진하는 미래인재 양성에 가장 우선하는 것은 ‘선하고도 원대한 꿈’을 품도록 격려하는 위대한 멘토를 만나도록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일깨우고 다니던 나에게는 더욱 각별하게 느껴졌던 것이다. 나의 가슴을 지진처럼 뒤흔든 그분의 시 전문은 이렇다.

“꿈! 어젯밤 나의 꿈./ 이상한 꿈을 꾸었노라./ 세계를 짓밟아 문지른 후/ 생명의 꽃을 가득 심으고/ 그 속에서 마음껏 노래를 불렀노라./ 언제든 잊지 못할 이 꿈은/ 깨어 흩어진 이 내 머리에도/ 굳게 박혔노라./ 다른 모든 것은 세파에 스치어도/ 나의 동경의 꿈만이 존재하나니.”

(1931년 7월, 「동광」제23호)

얼마나 원대하고 호방하고 심지어 건방진 꿈인가! 하지만 황순원 선생님은 이 꿈을 마치 약속을 지키는 심정으로 한 평생 살아냈던 것이다. 그분은 그 꿈의 성취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며 문학의 외길을 걸었다. 선생님은 알려진 바와 같이 와세다대학교에서 영문학을 전공하셨다. 선생님은 호랑이 굴에 들어가 일문학이 아닌 영문학을 전공하신 것이다. 더 큰 세상 속의 자신을 꿈꾸며.

그 후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선생님은 첫 직장인 서울고등학교에서 교장실로 찾아가, 자신은 남몰래 소설을 써 왔기에 국어를 가르칠 수 있으니 국어를 가르치게 해 달라고 졸랐다 한다. 청소년들에게 국어

를 제대로 가르쳐야 한다는 사명감과 나라 사랑 때문이었다. 이런 분이셨기에 「소나기」, 「별」등과 같은 한국인의 대표적 서정 문학의 진수를 보여줄 수 있었었던 것 아니겠는가. 나는 묘소 참배를 마치고, 방명록에 이렇게 적었다.

“선생님의 꿈, 제가 사겠습니다. 철쭉 두 그루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나는 잃어버린 순수를 회복한 환희에 내내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다. 내 여생을 동반해 줄 위대한 멘토를 만난 기쁨에!

원고 청탁을 수락하고 주제를 받는 순간 내 머릿속에 곧바로 떠오른 그날의 기억, 그렇다. 확신컨대, 꿈을 향해 정진하는 미래 인재 양성에 가장 우선하는 것은 ‘선하고도 원대한 꿈’을 품도록 격려하는 위대한 멘토를 만나도록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항상 ‘된다’는 말을 입에 담아주라

몇 년 전 EBS의 모 프로에서 두 차례에 걸쳐 TV특강을 한 적이 있었다. 녹화 전 방송팀에서는 짬짬이 나를 찾아와 평소 연구소에서의 모습이라든가 강의 현장에서의 모습 등을 ENG카메라로 담아 갔다. 자연스러움을 살리기 위하여 모든 과정이 예고 없이 진

행되었다. 그러는 가운데, 연구소 연구원들과 회의하는 장면을 찍고자 했다. 카메라가 대동된 갑작스러운 회의소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끼리는 늘상 하던 회의라 가볍게 찍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카메라맨이 기습적으로 한 명 한 명에게 인터뷰를 시도하는 것이었다.

“평소 신부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습니까?”

긴장들은 했지만 그럭저럭 임기응변으로 좋게 대답을 해 주어서 마음속으로 ‘휴우~’ 하고 안도하고 있던 찰나, 연구소 최고참 연구원에게 카메라가 돌아갔다. 순간적으로 긴장감이 나를 덮쳤다. 평소 폭탄 발언(?)을 서슴지 않던 친구였기 때문이었다.

“신부님을 통해서 저는 ‘하면 된다’는 사고방식을 배웠습니다. 사실 저는 연구소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마다 ‘저건 안 돼’라고 생각했던 적이 많았지요. 그런데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들도 신부님께서 ‘된다’, ‘할 수 있다’며 저희들을 격려하셨고 결국 목표달성을 해냈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수없이 지켜보면서 이전에 부정적이었던 제 자신이 지금은 긍정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멋진 말’이었다. 나를 칭찬해서가 아니라 그의 바뀐 사고의 발로이기에 ‘멋지다’는 뜻이다. 나의 곁에 있는 사람이 나를 통해 변화되었다는 것보다 더 기쁜 수확이 또 무엇이 있겠는가.

그렇다. ‘안 된다’고 하지 마라. ‘안 된다’는 생각을 버려라. 사실 나는 마흔 살까지 오로지 꿈으로만 공부한 산증인이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쌀과 연탄 배달을 하며 집안일을 도왔을 때도, 고등학교를 갈 형편이 못되어 전액 장학금을 주는 유한 공고에 들어갔을 때도, 나를 움직인 것은 꿈이었다. 고생 끝에 서울

대학교 공과 대학에 합격하고 난 뒤에도 나는 ‘기계보다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싶다’는 또 다른 꿈을 가지고 남들보다 8살이나 많은 상태에서 다시 서울가톨릭신학대학교에 들어갔다. 거기서도 나는 다시 유학을 가고 싶다는 꿈을 꾸었고, 거의 기적적으로 이제껏 없었던 장학기금이 마련되어 결국 빈 대학에서 박사과정까지 마치고 돌아올 수 있었다.

꿈의 퍼레이드는 지금도 계속 되고 있다. 나는 대한민국 국민을 세계 1등 국민이 되도록 응원하는 것을 일생일대의 꿈으로 품어왔다. 그리고 지금 저술과 강연 활동을 통하여 이미 그 역할을 유감없이 수행하고 있다.

1%가 아닌 99%에 눈뜨게 하라

카발리스트(유대인 신비주의자)들은 사람의 이성 과 오관이 인식할 수 있는 진리가 전체 진리의 1%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기에 나머지 99%의 진리는 우리에게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99%의 세계는 엄연히 비현실세계가 아니고 현실세계다. 우리 주변에서 ‘갑자기’, ‘이유 없이’, ‘우연히’ 발생하는 사건들이 사실은 이 99%에 해당하는 현상들이다. 물론, 여기서 1%나 99%라는 숫자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 그만큼 적고 또 그만큼 많다는 것이다.

이를 좀 더 과학적인 언어로 얘기해 보자. 인간은 오감을 통하여 세상을 파악한다. 오감 중에서 촉각, 후각, 미각을 통해서 약 10%의 정보가 수용되고, 청각을 통하여 20%가 수용되는데 가청영역은 16~440

우리 앞에 엄연히 존재하는 미지의 99% 세계, 이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이 바로 꿈과 신념이다. 사람들이 현실의 벽에 부딪혀 실패와 단절과 부진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1%의 세계에서만 허우적거렸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헤르츠(hertz)로 제한된다고 한다. 나머지 70%는 시각을 통해 파악되는데 우주의 볼 수 있는 세계는 4%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만 보더라도 인간이 인식하고 있는 정보의 분량이 실제로 얼마나 미미한가를 알 수 있다.

우리 앞에 엄연히 존재하는 미지의 99% 세계, 이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이 바로 꿈과 신념이다. 사람들이 현실의 벽에 부딪혀 실패와 단절과 부진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1%의 세계에서만 허우적거렸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과감히 99%의 세계에 마음을 열면 길이 트일 수 있다는 사실에 눈감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교육자는 1%의 세계에 집착하지 않고 99%의 세계에 눈뜨게 하는 교육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판단과 느낌에 매여 살지 말고, 꿈으로, 신념으로

사는 법을 새롭게 가르쳐야 한다. 1%의 우물 안에서 갇혀 살지 말고 99%의 드넓은 가능성의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기로 하자.

99%의 세계와 통하기 위해서는 상식 파괴의 발상이 필요하다. 지난 2010년 12월 초 미국 NASA는 “지구상 모든 생명체는 오직 6개의 원소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상식을 깬 연구결과를 발표하여 전세계를 큰 충격에 빠뜨렸는데, 그 주역 펠리사 울프 사이먼(Felisa Wolfe Simon) 박사는 학계에서 줄곧 ‘바보’로 낙인 찍혀 있던 소장파 학자였다. 펠리사는 포닥(Post doctor), 그러니까 박사 후 연구 과정에서 지구상 생명체가 산소, 수소, 탄소, 질소, 인, 황, 이렇게 여섯 개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는 기존의 상식에 의심을 품었다. 그리고 혹시 존재할지 모르는 그 이외에 다른 원소로 구성된 생명체 연구를 결심하고 여러 기관에 연구의사를 밝혔지만, 번번이 거절당하여

연구비를 지원받지 못하였다. 그때 마침 미항공우주국 NASA가 외계생명체 연구의 단서를 찾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기대로 연구비를 대 주었다. 결과는 놀라웠다. 여섯 개 원소 가운데 인을 대신하여 독극물에 해당하는 비소를 구성 인자로 하고 있는 박테리아의 존재를 발견한 것이다. 상식파괴의 발상이 가져온 센세이셔널한 성과였던 것이다.

99%의 세계와 통하는 또 하나의 길은 창조적 감수성이다

천재적인 음악가 모차르트는 99%의 세계와 소통할 줄 알았던 인물이다. 모차르트가 여행 중에 피아노를 잘 치기로 소문난 한 소년의 집에 초대를 받았다. 듣던 대로 솜씨가 보통이 아니었다. 소년의 피아노 연주가 끝나자 그의 부모가 모차르트에게 조심스레 물었다.

“우리 아이도 선생님처럼 작곡을 하고 싶어 합니다. 좋은 가르침을 주세요.”

소년이 눈을 반짝반짝 빛내며 모차르트에게 물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선생님처럼 훌륭한 음악을 작곡할 수 있을까요?”

“글쎄다, 그렇게 물으면 나도 답변을 하기가 곤란하다. 아직 네가 작곡을 하기에는 이른 나이 같구나.”

소년은 의아스런 눈빛으로 모차르트에게 되물었다.

“선생님도 지금 제 나이 때 작곡을 했다고 들었는데요?”

“그래, 그랬지. 그렇지만 나는 그때나 지금이나 다른 사람에게 작곡은 어떻게 하느냐고 묻지 않는단다. 그냥 떠오르는 것을 음표로 그리지 않으면 미칠 것

같았지. 나는 네가 그러한 때가 오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란다.”

잔뜩 기대했던 소년은 적잖이 실망한 투로 이렇게 대꾸했다.

“저는 다만 작곡을 잘하는 법이 쓰여 있는 책을 추천받고 싶었을 따름이에요.”

그러자 모차르트는 온화한 얼굴로 소년의 손을 잡고서 창가로 데리고 가 이렇게 말했다.

“그런 책이 있기는 하지. 하지만 그런 것들은 아무 쓸 데가 없는 것이란다. 저기를 보렴. 하늘이 있고, 들판이 보이지? 나무숲을 흔드는 바람소리도 들리지 않니? 음악은 바로 자기 마음속에 저장된 자연의 소리를 그대로 음표로 옮겨 적어 놓은 거야. 그러니 가장 훌륭한 음악은 저 자연이라는 책에 들어 있지. 그리고 가장 훌륭한 작곡 비법은 바로 너의 눈과 귀와 가슴 속에 들어 있단다.”

모차르트는 손가락으로 소년의 가슴을 가리키며 여러 번 강조하여 말했다.(엄광용 역, 『따뜻한 감동』, 새와물고기 참조).

1%에 집착하는 사람의 삶은 '유한성'의 장(場)에서 허우적거리는 몸부림에 그칠 공산이 짙다.

99%의 작동을 기대하는 사람은 '무한 가능성'의 장(場)에서 유영하는 춤사위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전문가형 미래인재를 키워라

오스트리아에는 ‘아침에 굴뚝 청소부를 보면 그날 하루 재수가 좋다.’는 속담이 있다. 빈(Wien)의 굴뚝 청소부들은 검은색 상·하의를 입고 흰색 모자를 쓰



며, 특이하게도 옛날 황제를 상징하는 독수리 문양이 새겨진 버클을 허리에 차고 다닌다. 그들은 자신들의 일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데 누구 못지 않은 자부심을 갖고 있다.

놀랍게도 오스트리아에서 굴뚝 청소부는 에너지 관리와 화재 예방도 담당하는 고소득 업종 ‘전문가’로서, 일을 마치고 작업복을 벗으면 세계 최고급 승용차인 벤츠를 타고 다닐 정도라고 한다. 소위 ‘3D 업종’이라는 말이 아직도 유효한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어쨌든 오스트리아에서 굴뚝 청소부가 되려면 3년 과정의 ‘굴뚝 학교’를 졸업한 뒤 자격증을 따야 한다. 이러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을 마이스터(Meister)라 부른다. 또 마이스터로 16년 이상 활동해야 비로소 사업장을 운영할 자격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

나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공부하면서 이렇듯 철저한 독일어권의 장인제도에 대하여 경탄을 금치 못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그곳에서는 장인제도 정신이 전영역에서 구현되고 있다. 그곳에서는 정치가가 되려면 정치에서 경력을 쌓아야 한다. 학자가 되려면 아카데미에서 경력을 쌓아야 한다. 그러기에 전직(轉職)이 거의 없다. 학자가 정치에 뛰어드는 일도 없다. 그들은 각자 고유분야 전문가로서의 명예를 더 중요시한다.

내가 그곳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을 때, 그 나라 사람들은 나를 ‘마기스터 차(Magister Cha)’라 불러주었다. 그것은 나의 학위에 대한 존중이었다. 그 이후, 내가 박사학위를 받은 뒤, 사람들은 나를 ‘독토르 차(Doctor Cha)’라 불렀다. 그것은 적어도 내가 한 분야의 전문가라는 인정이자 예우였다. 박사 배출과


정이 까다롭고 엄격하기로 소문난 독일어권에서 학위 소지자란 질적으로 그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기에 충분했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의 경우는 어떠한가? 우리에게는 진정한 전문가와 그러한 전문가를 만드는 풍토가 존재하는가? 알다시피 한국에서는 직업이동과 계층간 유동이 심하다. 성공에 전문적 역량보다는 요행과 줄이 더 크게 작용한다. 그리고 부동산을 위시한 불로소득의 기회가 너무 많다. 그래서 한 분야에 골몰하는 성실한 전문인보다 기회를 찾아 이 분야 저 분야를 넘나드는 사람들에게 줄지에 행운이 찾아오는 경우가 드

물지 않다. 언변이 좋고 술수에 능한 사람이 전문가보다 더 인정받기 십상인 것이다.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샌드위치가 되어서 미래를 고심하고 있는 한국 사회, 이 사회가 미래를 담보 받으려면 어느 분야에서건 전문가의 권위를 존중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만일 한 분야 전문가의 의견과 한 똑똑한 비전문가의 의견이 상충할 때, 무조건 전문가의 의견에 손을 들어주는 사회가 밝은 미래를 기약 받는다. 전문(專門)이라는 말은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선진(先進)이라는 말의 동의어이기 때문이다.





특별기획 I

교육력을 높이는 학교컨설팅

020

학교컨설팅의 의의와 전망

한국교육개발원 학교컨설팅연구실장 박 효 정

028

학교컨설팅을 위한 준비와 제언

인천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장학사 최 영 선

034

학교컨설팅을 통한 특색있는 학교운영

인천신현고등학교 교장 이 승 복

042

좋은 수업 만들기 위한 수업컨설팅 방향

간재울중학교 수석교사 황 용 혜

049

EBS “선생님이 달라졌어요” 참가기

청주 용암중학교 교사 박 상 민

학교컨설팅의 의의와 전망



글 > 박 효 정
한국교육개발원
학교컨설팅연구실장

I. 들어가며

199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교육 분권화와 학교 자율화 정책을 추진해 왔던 정부는 2008년 4월 15일 ‘학교자율화 추진 계획’에 이어 2009년 6월 11일 3단계 학교단위 책임경영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학교자율화 추진 방안’을 발표함으로써 단위학교 차원에서 보다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과학기술부도 2010년 대통령 업무보고(2009년 12월)에서 ‘지역별·학교별 여건에 맞는 다양한 학교 육성’, ‘다양하고 좋은 학교를 만들어가는 학교자율화 지속 추진’, ‘교원전문성 강화를 통한 학교교육 만족도 제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좋은 학교 확산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리고 자율과 경쟁, 책무성을 통한 교육의 수월성 확보라는 교육정책 방향에 따라 교과 교실제, 사교육 없는 학교, 학력향상 중점 학교, 자율형 사립고, 자율형 공립고 등 다양한 학교개혁 정책 방안들이 제안·추진되면서 이러한 정책들이 학교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기제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박효정 외, 2011). 이와 함께 2010년 5월에 교육과학기술부가 ‘선진형 지역교육청 기능 및 조직 개편 방안’을 발표한데 이어 9월 1일부터 전국의 178개 지역교육청이 교육지원청으로 명칭을 바뀌달고 관리·감독 기능에서 학생, 학부모, 단위학교에 대한 지원기능

학교컨설팅은 교육개혁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교원집단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원들의 자발적인 전문성 개발 노력을 이끌어내고 지원함으로써 학교의 자생적 활력을 이끌어 내고 나아가 학교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다.

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교육정책 환경의 변화는 단위학교와 시도 교육청, 교육지원청 등이 변화의 요구에 부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에서 학교컨설팅은 학교의 자율적 운영기반과 교사의 전문성 강화를 지원함으로써 교육현장을 변화시키고 정부의 교육정책이 학교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기제로 부각되고 있다.

최근 학교컨설팅은 교육환경 변화의 흐름에 부응할 수 있는 학교교육 개혁 방안으로서 학교현장에서 학교컨설팅에 대한 자발적 수요가 많아지고 있으며, 교육정책 환경의 변화 속에 학교컨설팅에 대한 단위학교와 교원들의 수요가 점점 확대됨으로써 학교컨설팅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는 등 상당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학교컨설팅이 교육현장을 변화시키는 기제로 작동하는데 몇가지 한계도 드러내고 있다.

본 고에서는 학교컨설팅의 개념과 원리를 살펴보고 현재 학교에서 수행되고 있는 학교컨설팅의 현황과 성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학교컨설팅의 개념과 원리

학교컨설팅은 의사가 환자의 질병 진단, 진료, 처방에 관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자발적으로 다른 의

사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문제와 과제를 해결하는 의료 컨설팅에서 아이디어를 찾았다(진동섭 외 편역, 2008). 또한 컨설팅의 개념과 기본적 원리에 터하여 이루어지는 활동이지만 그 지원 대상을 교사, 학교 또는 교육조직으로 한다는 측면에서 특수성을 가진다. 즉, 교원은 교육활동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집단으로 학교개선에 대한 충분한 자원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교컨설팅은 사적 조직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일반컨설팅과 차별화되며 교육계 내부 자원의 보다 적극적인 활용을 전제한다. 따라서 학교컨설팅의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교원들이 자신들이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 자신들이 원하는 전문성을 가진 학교 내외의 전문가들로부터 전문적 도움을 제공받는, 전문적인 교원들 간에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지도 및 조언 활동에 초점을 두고 구안된 것이다.

학교컨설팅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2000년 학교교육개혁 지원을 위한 학교컨설팅 사업을 수행하면서 그 용어와 개념이 처음으로 논의되었다(김정원·이인호·정수현, 2001; 김정원 외, 2002; 최상근 외, 2000). 2003년부터 학교컨설팅의 개념, 원리 등 학교컨설팅에 관한 이론적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학교컨설팅 이론에 관한 정련화 작업이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최근에 학교컨설팅에 대한 학자들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학교컨설팅의 개념에 터하여 수업, 학교경영, 학습컨설팅에 대한 개념 논의 또한

진행되고 있다(김정섭, 2009; 정용우·양성관, 2008; 진동섭·홍창남·김도기, 2009; 천호성, 2008).

이러한 개념 분석에 더해 박효정 외(2010)는 학교 컨설팅의 개념을 “학교교육의 질과 학교구성원들의 전문적 역량 제고를 위해 학교체제 구성원(교사, 학교장, 교육청 및 교육과학기술부)의 요청에 따라 학교체제 구성원이 당면한 과제들과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갖춘 학교체제 내·외 전문가들이 진단·대안탐색·실행 지원 등의 과업을 통해 돕는 활동”으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학교컨설팅 개념의 구성요소를 학교컨설팅 목표, 학교컨설팅 의뢰인, 학교컨설팅트, 학교컨설팅 과제 및 과업 등 4가지로 설정하였다.

학교컨설팅 개념의 구성요소에 대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컨설팅은 학교교육의 질 제고와 학교구성원들의 전문적 역량을 제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학교컨설팅은 학교체제 구성원들이 당면한 과제와 문제들을 학교컨설팅트가 직접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체제 구성원들이 스스로 해결하도록 돕는 데 목적을 둔다.

둘째, 학교컨설팅 의뢰인으로서 학교체제 구성원 모두가 의뢰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학교체제 내부 구성원인 교사, 학교장이 의뢰인이 될 수 있으며, 학교체제 외부 구성원인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컨설팅을 의뢰할 수 있다. 이때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컨설팅은 학교체제 내의 풍부한 전문적 자원들을 활용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이들 모두가 학교컨설팅트 잠재 풀로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학교컨설팅 대상을 단위학교로 상정하고 학교컨설팅을 의뢰하여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이럴 경우 학교컨설팅의 원리인 자발성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셋째, 학교컨설팅트가 해당된다. 학교컨설팅트는 학교체제 내·외 전문가 모두가 될 수 있다. 학교컨설팅트는 학교체제 내의 풍부한 전문적 자원들을 활용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이들 모두가 학교컨설팅트 잠재 풀로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학교컨설팅트의 질 관리 차원에서 학교컨설팅트로서 ‘특별한 훈련’을 거치도록 하는 것은 필요할 것이다.

넷째, 학교컨설팅 과제 및 과업 영역이다. 학교컨설팅 과제 영역은 학교경영 및 교육활동 영역 등 학교교육과 관련된 모든 영역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학교컨설팅은 학교컨설팅트의 전문적 판단이 개입되기는 하지만, 학교컨설팅 의뢰인이 의뢰한 과제 영역에 터하여 학교컨설팅이 수행된다.

학교컨설팅은 일반적으로

① 준비단계 → ② 진단단계 → ③ 해결방안 구안 및 선택 단계 → ④ 해결 방안 실행 단계 → ⑤ 종료

단계로 이루어지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학교 컨설팅의 시작과 종료단계는 의뢰인의 요구에 따라 차별화된다. 그 외에 교육·훈련, 자원 네트워크 등을 과업 영역으로 한다.

학교컨설팅의 원리는 이론적 측면에서는 학교컨설팅의 본질을 규정하고, 실제적 측면에서는 학교컨설팅의 계획·실행·평가 과정의 준거로 활용된다(진동섭, 홍창남, 김도기, 2009). 이러한 학교컨설팅의 원리는 정교화되어 자발성의 원리, 전문성의 원리, 독립성의 원리, 자문성의 원리, 한시성의 원리, 학습성의 원리 등으로 설명되고 있다(진동섭, 김효정,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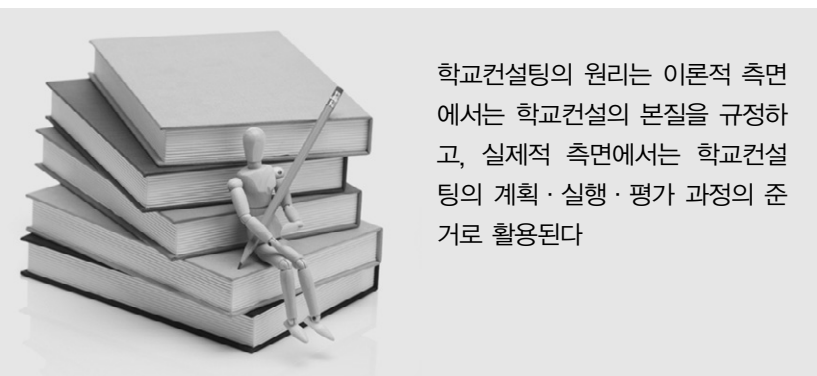
첫째, 자발성의 원리란 의뢰인의 자발적 요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교컨설팅의 가장 기본적 전제가 되는 원리로서, 학교컨설팅과 기존의 장학, 연수, 학교평가 등을 구분하는 핵심적인 원리이다. 학교컨설팅은 교원과 학교구성원이 주체가 되어 그들의 요구에 근거하여 자발적으로 이루어질 때 실질적인 학교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전제 속에서 출발한다. 이때 의뢰인은 학교, 개별교사 뿐만 아니라 교과부와 교육청 등 교육행정기관 역시 될 수 있다. 그러나 교과부와 교육청이 학교컨설팅이 필요한 학교라는 판단이 들었다고 해서 학교에 학교컨설팅을 받도록 강제할 수는 없다. 이 때 의뢰

인과 컨설팅 대상에 차이가 있을 경우 자발성의 주체를 누구로 설정하여야 하는가가 자발성의 원리 맥락에서 주요 쟁점이 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자발성의 원리를 중심으로 한 의뢰인과 컨설팅 대상, 컨설턴트 간의 관계에 대한 개념적·실제적 차원의 보다 명확한 논의가 요구된다.

둘째, 전문성의 원리는 학교컨설팅이 전문성을 갖춘 학교컨설턴트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전문적 지도와 조언 활동이어야 함을 의미한다. 학교컨설턴트는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제적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학교컨설팅 영역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면, 학교컨설턴트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학교컨설턴트의 실제적 전문성을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라는 맥락에서 학교컨설턴트의 자격 인증제제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다. 이에 자격증, 직위, 소속된 기관의 위상 등에 수반하는 ‘형식적 전문성’(진동섭, 홍창남, 김도기, 2009) 역시 필수적 요소로 요구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셋째, 자문성의 원리는 학교컨설턴트가 의뢰인을 대신하여 교육활동을 하거나 학교를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에서 자문적 활동을 한다는 의미이다. 학교컨설팅에서는 의뢰에서부터 해결방안의 수용여부에 대한 결정권뿐만 아니라 책임 역시 의뢰인에게 있다는 것이다.

넷째, 한시성의 원리는 학교컨설팅은 계약에 의해 한시적으로 수행되는 활동으로, 의뢰된 과제가 해결되면 학교컨설팅 관계는 종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한시성의 원리는 학교컨설턴트가 정해진 기



학교컨설팅의 원리는 이론적 측면에서는 학교컨설팅의 본질을 규정하고, 실제적 측면에서는 학교컨설팅의 계획·실행·평가 과정의 준거로 활용된다

간 동안 집중적으로 전문성을 발휘함으로써 의뢰인은 과제 해결을 위한 전문적인 능력 향상에 더 집중하게 되고, 그 결과 컨설팅의 성과를 높인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다섯째, 독립성의 원리는 의뢰인과 학교컨설턴트 양자의 측면에서 본 학교컨설턴트, 의뢰인, 학교컨설팅 관리자의 관계를 규정한 것이다(진동섭, 홍창남, 김도기, 2009). 의뢰인은 학교컨설턴트와의 관계를 전문가 대 전문가로 규정하고, 수평적 관계 속에서 전문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학교컨설팅 관리자와의 관계 역시 의뢰인을 통제하는 관계에서 벗어나 독립적 관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학교컨설턴트는 의뢰인의 고용관계라는 영향력에서 벗어나 전문적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하고, 학교컨설팅관리자와의 관계 역시 마찬가지다.

여섯째, 학습성의 원리는 학교컨설팅 과정이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배우는 과정이 아니라 의뢰인과 학교컨설턴트 모두 서로 성장하고 학습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의뢰인은 학교컨설팅 자체에 관해 학습하고, 이러한 학습경험을 통해 학교컨설턴트로

성장할 수 있게 된다. 한편 학교컨설턴트는 학교컨설팅 과정에서 내용적 전문성과 방법적 전문성을 심화시키게 된다.

학교컨설팅의 원리가 이론적 측면에서는 학교컨설팅의 본질을 규정하고, 실제적 측면에서는 학교컨설팅의 계획·실행·평가 과정의 준거로 활용된다(진동섭·홍창남·김도기, 2009). 따라서 학교컨설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역할 주체에게 적용되는 학교컨설팅의 원리 중 자발성의 원리는 의뢰인 차원에서, 전문성의 원리와 자문성의 원리는 학교컨설턴트 입장에서 강조되어야 한다. 그리고 의뢰인과 학교컨설턴트의 관계에서 적용되어야 할 원리로는 한시성, 독립성, 학습성의 원리이다.

III. 학교컨설팅의 성과와 의의

학교컨설팅 개념과 내용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학교컨설팅 활동이 전통적 장학 활동과 혼재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이에 학교컨설팅의 본래적 의미가 발현되지 못하거나 왜곡되는 사례들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학교컨설팅이 학교교육의 질 제고 차원에서 필요한 활동이라는 인식이 학교현장 구성원들 사이에 널리 퍼져가고 있다. 그동안 교육현장에서 학교컨설팅이 학교변화 및 교육개혁의 실제적인 기제로 어떤 성과를 보였는지 그러한 성과가 어떤 의의를 갖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¹⁾

먼저, 학교컨설팅 성과는 다음과 같이 크게 세가지

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교육 현장에 학교컨설팅의 필요성과 이해가 확산되고 있다.

학교교원의 학교컨설팅의 목표와 필요성에 대한 이해 정도를 조사한 결과(박효정 외, 2010) 교원들은 대체적으로 학교컨설팅의 목표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컨설팅의 개념과 내용에 대한 분석 결과에서도 학교컨설팅을 한 번이라도 접해 본 사람들의 이해 수준이 높았고 학교컨설팅을 안다고 응답한 교원, 학교컨설팅 경험 및 학교컨설팅 연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교원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학교컨설팅에 관한 이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반 교원들에 비해 교장과 교감이 학교컨설팅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교장, 교감의 경우 자격연수, 시책 관련 연수 등을 통해 학교컨설팅에 대한 내용을 접할 기회가 많고, 학교 경영자로서 학교경영 혁신의 맥락에서 대응해야 하는 책무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둘째, 학교현장의 장학지도 방식이 변화되고 있다.

학교컨설팅은 교육청 뿐만 아니라 정부출연연구기관, 교육청 등 다양한 기관들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양적으로 가장 다양한 형태로 학교컨설팅을 수행하고 있는 교육청의 경우 학교컨설팅을 둘러싼 개념적 혼란이 여전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 즉 학교컨설팅을 기존의 장학과 구별하여 수행하는 경우가 있고, 기존

장학의 형태에 명칭만 ‘컨설팅’을 사용하는 등 기존 장학과 학교컨설팅의 개념이 혼재된 상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학교컨설팅 활동들로 인해 학교 현장에 대한 장학 지도 방식이 감독이나 통제보다는 단위학교와 교사에게 대한 전문적 지원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다. 특히 최근 지역교육청의 기능 개편에 따라 그 기능이 감독·통제 기능에서 지원 기능으로 전환됨으로써 학교컨설팅이 추구하는 개념과 원리를 적용하고자 한 컨설팅 장학이 현장에 확산되고 있다.

2009년 10월 기능 개편에 따라 지역교육청의 새로운 역할 모델을 탐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선정 운영한 시범교육청 사업에서도 ‘컨설팅’이라는 용어 사용과 함께 컨설팅이 특색사업으로 등장하였다. 예컨대, ‘학교컨설팅지원센터’를 운영하는 한 교육지원청은 수요자의 요구와 자원에 터한 수업, 교육과정, 학교경영컨설팅 등 5개 영역의 컨설팅 지원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 또 다른 교육지원청의 경우에도 ‘컨설팅을 도입한 교원능력개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시범 교육지원청의 컨설팅 사업들은 지역교육청이 교육 현장을 지원하는 학교컨설팅 기능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긍정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셋째, 학교컨설팅 과제 영역이 다양화되고 있다.

현재 학교컨설팅은 교육청 뿐만 아니라 정부출연연구기관, 교육청 등 다양한 기관들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그리고 과제 영역 차원에서 보면, 민간기관의

1) 학교컨설팅의 성과는 필자가 2009년 연구에서 학교교원, 장학사 등을 대상으로 학교컨설팅의 개념과 내용에 대한 인식 조사와 면담 결과, 2010년 연구의 학교컨설팅 과제 영역에 대한 필요성, 시급성 요구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시하였다(박효정 외, 2009, 2010).

학교컨설팅 활동들로 인해 학교현장에 대한 장학 지도 방식이 감독이나 통제보다는 단위학교와 교사에 대한 전문적 지원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다. 특히 최근 지역교육청의 기능 개편에 따라 그 기능이 감독·통제 기능에서 지원 기능으로 전환됨으로써 학교컨설팅이 추구하는 개념과 원리를 적용하고자 한 컨설팅 장학이 현장에 확산되고 있다.

경우 학교경영 영역 뿐만 아니라 수업 컨설팅 영역을 포괄하면서 다양한 영역에 대한 학교컨설팅을 수행하고 있는 반면 교육청은 주로 수업영역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학교컨설팅은 주로 수업영역과 학교경영 영역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고 있다.

최근 박효정 등(2010년)이 수행한 연구에 의하면, 교과외 교육활동 영역에 대한 학교컨설팅의 필요성과 시급성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외 교육활동 영역 중에서는 생활지도 컨설팅의 필요성이 70.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진로 및 진학지도 67.8%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경영 영역의 하위 영역에 대한 요구에서도 학교교육계획 수립, 교육과정, 조직 진단 등보다도 학생 및 교직원 복지에 대한 학교컨설팅의 필요성이 58.1%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교원전문성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65.9%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컨설팅 과제 영역에 대한 요구가 더욱 다양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박효정

외(2011)가 수행한 도교육청 차원의 학교컨설팅 운영 연구사업의 경우에도 수업, 학교 경영 영역 뿐 아니라 생활지도, 진로지도, 학부모 교육 영역의 컨설팅 수요가 많았으며 실행 결과에 대한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교육청의 기능개편에 따라 시범 운영하고 있는 교육지원청의 컨설팅 사업 속에서도 수업과 학교경영 영역 외에 교육과정, 맞춤형 연수, 학부모 교육에 대한 컨설팅이 수행되고 있다. 이처럼 최근 다양한 교육정책 사업의 시행과 이로 인한 교육환경의 변화로 수업과 학교경영 영역의 컨설팅에서 생활지도, 진로지도 등 교과외 영역에 대한 컨설팅 필요성과 요구가 확대되고 있다.

IV. 글을 마치며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현재 국내에서 학교컨설팅은 교육청과 민간 기관을 중심으로 다양한 기관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수행되면서 확산되고 있다. 그

러나 학교컨설팅 개념과 내용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단위학교와 교원, 교육지원청 등 교육현장의 학교컨설팅 수요가 점점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학교컨설팅이 학교 현장을 개혁하는 최선의 방안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단위학교와 교원들의 급증하고 있는 학교컨설팅에 대한 자발적 수요를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는지, 학교 컨설팅이 장학, 연수 활동과 혼재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컨설팅이 추구하고 있는 본래적 의미를 어떻게 학교 현장에서 발현시킬 것인지 등 학교컨설팅이 해결해야 할 역할과 과제가 많다.

‘첫술에 배부르랴’는 속담이 있듯이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기는 어렵다. 학교 현장의 자발적인 변

화를 이끌어 냄으로써 학교교육의 질적 제고를 가능하게 하는 학교컨설팅이 이제 어린아이에서 어른으로 성숙되어 가는 과정에 있다. 학교컨설팅이 보다 더 이론적 토대를 굳건히 하고 이론의 현장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교육 주체들의 학교컨설팅에 대한 관심과 실천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전문성있는 우수한 학교컨설팅트 확보 및 양성, 학교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학교컨설팅 자원 확보 방안 마련, 그리고 학교컨설팅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고, 교육 현장의 개방적, 협력적 문화 구축을 위한 체계적인 학교컨설팅 연수 확대와 같은 과제들이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 교육과학기술부(2008. 4. 15). 학교자율화 추진 계획. 보도자료.
- 교육과학기술부(2009. 6. 11). 학교단위 책임경영을 위한 학교자율화 추진 방안. 보도자료.
- 박효정 외(2011). 학교컨설팅 체제 구축 연구(Ⅱ) 연구실행계획서. 미간행 자료.
- 박효정 외(2010). 교육현장의 자발적 개혁 역량과 학교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학교컨설팅 활성화 방안. 현안보고 OR 2010-01-16. 한국교육개발원
- 박효정 외(2010a). 학교컨설팅에 관한 교원의 인식. 한국교육, 37(3), 203-233.
- 박효정 외(2010). 학교컨설팅 체제 구축 연구(Ⅰ).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RR2009-32.
- 박효정 외(2009). 학교컨설팅 체제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RR2010-28.
- 진동섭 외 편역(2008). 학교컨설팅의 이해를 위한 이론과 사례. 서울특별시교육청.
- 진동섭 외(2009). 학교경영컨설팅과 수업컨설팅. 서울: 교육과학사.
- 진동섭 외(2005). 컨설팅 장학의 개념 탐색. 교육행정학 연구, 23(1), 1-25.
- 홍창남(2003). 학교경영컨설팅의 개념 모형 탐색.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창남 외(2009). 교육개혁의 새로운 접근 ‘학교컨설팅’의 현황과 전망. 교육개발, 36(1), 34-47.

< 웹사이트 >

- <http://itce.snu.ac.kr/>

학교컨설팅을 위한 준비와 제언



글 > 최 영 선
서부교육지원청 장학사

반성

조엘 오스틴 목사의 책 『Your Best Life Now』(긍정의 힘)에 나오는 이야기 한 토막이다.

칠흑 같이 어두운 밤. 함장은 갑자기 전방의 환한 불빛을 보았다.

그대로 가면 배가 충돌하겠다고 생각했다. 무전기로 긴급 메시지를 날렸다.

“동쪽으로 코스를 10도 변경하기 바람.”

잠시 후, 메시지가 왔다.

“그렇게 할 수 없음. 당신이 서쪽으로 10도 변경하기 바람.”

함장은 화가 났다. 다시 격한 메시지를 띄웠다.

“나는 함장이다. 너희의 코스를 변경하라. 명령이다!”

잠시 후, 메시지가 왔다.

“나는 수병임. 그렇게 할 수 없음. 당신이 코스를 변경하기 바람.”

함장은 이제 격노했다. 최후통첩을 했다.

“우리는 전함이다. 우리의 항로를 바꾸지 않겠다.”

잠시 후, 짧은 메시지가 왔다.

“여기는 등대임. 당신의 선택임. 함장님.”

업무에 임하다보면 오랜 경험
이 오히려 뒷이 되는 때가 있
다. 학교를 둘러싸고 엄청난 변
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막상 현
장에서는 “예전에는 그랬는
데…….”하는 관행이나 심리상태
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다.

업무에 임하다보면 오랜 경험이 오히려 뒷이 되는
때가 있다. 학교를 둘러싸고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막상 현장에서는 “예전에는 그랬는데…….”
하는 관행이나 심리상태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다.
학교관련 민원의 대개는 이러한 관행과 변화의 현실
이 어긋나 있는 까닭에 발생한다. 물론 학부모와 학
생의 요구가 ‘너무 지나치다’ 싶은 때가 적지 않다.
하지만 학교(교사) 역시 기존 입장에서만 사태를 판
단하고 규정하려는 것 같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경험은 지혜의 원천이 되어야지 현재를 지배하는 당
위가 되어서는 곤란하다. 전함의 함장과 같은 태도를
갖기에는 등대가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이다.

작년부터 장학 업무를 맡으면서 이런 느낌이 있었
는데, 장학의 관점과 지향이 컨설팅 형태로 바뀐 올
해 들어 더욱 그러하다. 교육청이 ‘교육 지원청’으로
재개념화 되고, 그에 따라 장학이 ‘위로부터’가 아닌
‘학교 현장의 필요’를 출발점으로 삼는 것은 주지하
는 사실이다. 그러나 컨설팅장학의 1년을 마무리하
는 시점에서 돌아보면 아쉬움이 많다. 시행 초기의

안착단계라는 점을 감안하여 으레 예상할 수 있는 시
행착오라고 변명할 수도 있겠으나, 현장의 미온적 반
응이 상존하고,¹⁾ 어느 순간 장학의 효과성보다는 절
차적 진행에 더 신경을 쓰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
등대가 눈앞에 있다는 절박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원인을 따져보면 나름대로 몇 가지 이유가 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컨설팅의 방법에 대한 숙고(熟考)
부족이고, 그에 따른 준비 부족이다. 컨설팅장학의
취지에는 공감하고 의욕을 가졌으나 방법에 익숙하
지 못했다. 학교에서 컨설팅 요청이 있으면 컨설턴트
배정과 함께 컨설팅을 진행하고, 결과보고를 받는 일
반적 절차에는 충실했으나 컨설팅의 전 과정에 스며
있는 멘탈(mental)적 요소를 제대로 주목하지 못했
다. 공자의 지적대로 ‘非求益者’(비구일자:진전을 구
하는 자)가 아니라 ‘欲速成者’(욕속성자:빨리 이루고
자 하는 자)의 수준이었던 것이다.

준비를 위한 조건

컨설팅의 의미를 새겨보면, 학교컨설팅은 학교의
자생적 활력 함양과 학교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단
위학교와 학교체제 구성원들의 요청에 따라 전문성
을 갖춘 교육체제 내외 전문가들이 문제와 과제의 해
결을 도와주는 활동이다. 컨설팅장학은 학교 컨설팅
의 의미와 원리, 방법을 장학에 적용한 것, 즉, 교원
의 자발적 의뢰를 바탕으로 교수-학습과 관련된 전
문성을 제발하기 위해 교내외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

1) 인천교육발전 4개 과제 토론회(2011.10.28.)에서 필자의 발제 〈학교 현장에서의 컨설팅 장학 활성화 방안〉 56쪽 참조.

들이 제공하는 조언 활동이다.²⁾ 여기서 학교를 대상으로 하든(학교컨설팅) 교원을 대상으로 하든(컨설팅장학) 컨설팅이 성립하려면 기본적으로 학교현장의 ‘요청’ 또는 ‘의뢰’가 있어야 하고, 그에 걸맞은 ‘전문가의 준비’가 적절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준비는 컨설팅장학의 성공을 위한 핵심 전제로서 의뢰자(학교/교원)와 제공자(교육청/전문가) 모두에게 매우 중요하다. 의뢰자는 학교 구성원이나 학교가 필요로 하는 컨설팅 영역이나 과제를 자발적으로 탐색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장의 진단에 따르면, 학교의 의뢰는 대개가 형식적 요청이거나 저경력 교원에게 ‘부과된’ 형태로 나온 경우가 많다. 그래서 컨설팅의 요청을 두고 ‘자발적 강제’라는 표현이 나오기도 한다. 컨설팅장학으로 명칭이 바뀌었어도 그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지 못한 탓이기도 하고, ‘장학’ 자체에 대해 기존의 부정적 확증편향(confirmation bias)이 작용하는 까닭이다.

학교의 준비

이 같은 한계를 넘어 학교(교원)의 준비가 정상적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학교자율화와 그에 수반한 책무성의 의미가 좀 더 현실적인 과제로 고민되어야 한다. 현재 학교는 거시적으로 개정교육과정의 운영에 따른 교과별 단위 증감, 교과교실제, 창의적 체험활동, 집중이수, 블록타임, 주5일제, 방과후학교 등 굵직하고 다양한 현안들에 직면해 있다. 또한 교실 단위에서는 교사, 학생, 학부모 간 다양한

조합 속에 뭔가 ‘조언을 받아’ 풀어야 할 미시적 어려움들이 매우 많다. 산적한 이런 요소들이 컨설팅장학으로 충분히 수렴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데, 컨설팅장학이 제대로 정착하려면 의뢰측(학교/교사)에서 다음과 같은 준비가 적극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첫째, 학교장의 적극적인 인식 전환이다. 일례로 10월 중에 서부 관내의 모 중학교에서는 학교장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기간제 교사(5명)에 대한 수업컨설팅이 진행되었다. 컨설팅의 대상이 일반적으로 정규 교원들에 한정된 점에 비추어 보면 이례적이었다. 학교장의 생각은 간명했다. 현재 어느 학교든지 기간제 교원의 비율이 점점 늘어나는 상황이므로 학교교육력의 향상을 기한다면 이들에 대한 관심과 전문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학교의 구조적 현안을 학교장이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좋은 사례이다.

사실, 학교에는 장학에 대한 기존 인식이 아직도 강하게 남아 있다. 컨설팅장학의 ‘수평적’ 취지가 누차 안내되었음에도 컨설팅 요청을 학교발전을 위한 적극적 조치로 이해하기보다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비쳐질까 우려하거나 쓸데없이 번거로운 일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

둘째, 컨설팅 요소에 둔감하거나 외면하는 풍조의 개선이다. 자율화의 진전에 따라 학교교육활동의 성패는 학교 구성원들 스스로의 개선 의지에 직결한다. ‘강제된 자발성’을 지적하기에 앞서 학교(교사)가 먼

2) 서범종(2011), 컨설팅장학의 이해, 교육과학기술연구원의 <학교컨설팅장학전문가 양성과정> 21쪽.

저 책무성을 갖고 컨설팅을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평소 학교의 문제점을 정확히 주목하고 있을 때 컨설팅의 범위와 한계가 구체적으로 설정되고, 의뢰 효과도 높을 것이다. 5월 중 위기학생 지도에 어려움을 겪는 모 중학교에서 컨설팅을 의뢰하였고, 수소문 끝에 전문 역량을 갖춘 컨설턴트를 소개하여 교원 연수를 진행한 바가 있었다. 연수 효과가 좋아서 입소문을 타고 동일한 고민을 겪는 관내의 몇몇 학교로부터 컨설팅의 연쇄의뢰가 있었다. 담당 업무 교사의 관심 여하에 따라 컨설팅장학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난 사례이다. 이외에도 평가문항 작성, 창의·인성 수업 등 교사들이 필요를 느껴 컨설팅을 의뢰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 점도 상당히 고무적이다.

셋째, 상황 합리화 경향의 극복이다. 학교에는 ‘~만 해결되면’, ‘~와 같은 상황에서는’ 등과 같은 자기방어적 심리가 있다. 컨설팅장학을 대할 때, 본질적인 부분에 집중하기보다 절차나 일정과 같이 시정 가능한 부차적 부분들을 지나치게 강조한다든지, 막연한 무용론에 의지하기도 한다. 또한 의뢰 요인이 분명히 확인되고 있음에도 ‘학교가 지금 얼마나 바쁜데~’, ‘그걸 누가 모르나? 시간이 없으니 그렇지.’ 등등의 이유와 함께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교육이 제도적 조건보다는 인적 요인에 의해 더 좌우되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도해보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교육청의 준비

좀 더 실무적이고 구체적이어야 한다. 현재 10개

주제의 지원 영역을 설정하고 학년 초에 단위학교의 신청을 받아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는 형태이다. 의뢰인과 컨설턴트 간에 2주 정도의 사전 접촉 기간을 부여하여 일회성의 컨설팅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접촉할 수 있는 물리적 조건이 여의치 않고, 전문적 조언에 대한 상호 기대수준의 차이, 영역별 컨설턴트 배정의 한계 등으로 기대한 만큼의 현장 호응은 부족한 편이다. 컨설팅장학의 효과성과 연관 지어 준비해야 하는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의 컨설팅 수요를 먼저 파악하여야 한다.

10개 영역을 대상으로 컨설팅 신청을 받아 운영해본 결과 영역에 따라 편중이 크고, 컨설턴트로 위촉 받았지만 컨설팅 지원 사례가 1건도 없거나, 빈번한 출장으로 학교일정에 부담되는 경우가 있다. 의뢰에 부합하는 컨설턴트를 찾기 어려워 외부에서 위촉한 경우도 5건 있었다. 컨설팅 수요의 파악은 편의적으로 설문조사 등의 방법을 취할 수도 있으나, 평소 학교 현장의 관찰 및 소통 기반 위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컨설팅 요구에 부응하는 컨설턴트 확보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지원이 수반되어야 한다.

요컨대 현재의 장학지원단 구성 절차와 운영 방법에 개선이 필요한데, 장학지원단의 운영이 기본적으로 가산점 부가를 기반으로 하다보니 인력의 충분한 확보에 한계가 있고, 다양한 전문적 경력과 연령대의 교원을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동료 교사의 ‘수평적’ 컨설팅을 희망하는 경우도 많은데, 현재의 구성으로는 이를 충족하지 못한다. 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교

원 DB를 ‘전문가’ 적 역량의 측면에서 새롭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 전공 학위, 수상경력, 연구 및 연수이력, 특기, 담당업무, 기타 경력, 현장 추천 등이 폭넓게 반영되어야 하며, 컨설팅 수요를 감안한 직무연수, 세미나, 워크숍, 교과연구회 지원 활동 등이 조직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셋째, 컨설팅장학 활성화를 위한 포털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지원’ 역할이 더욱 강화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현장(교사)과 컨설턴트의 매개, 컨설팅 요청 및 안내, 우수사례 및 정보 공유 등이 On/Off 라인(게시판, 메일, 전화, 메신저 등)을 통해 ‘현장 교사의 입장에서’ 간편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컨설팅장학이 기존의 장학보다 간소한 것은 사실이나 그럼에도 업무적으로 부담을 느낀다는 것이 현장의 반응이다. 관내 34개 중학교의 컨설팅장학 신청이 1학기에 31교가 신청하였으나 2학기에는 7교에 불과했다. 컨설팅장학이 ‘정말 필요하다’ 기보다는 아직도 웬지 부담되는 일회성 행사로 간주되는 게 솔직한 현실이므로 현장의 자발성을 이끌어내는 장학(기획)과 지원 방안이 고민되어야 한다.

넷째, 전문직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 전문직은 컨설턴트인 동시에 컨설팅장학 운영자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컨설팅장학의 시작과 함께 ‘장학사’의 역할과 정체성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고, 일부이기는 하나 컨설팅장학을 장학담당 전문직의 업무로 간주하고 소극적으로 관망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컨설팅 모니터링, 임상 사례 분석, 전문성 강화 방안, 역할 분담, 현장 관찰 등에서 장학 요소를 찾아야 한다.

“현재 학교(교원)가 당면한 교육현실을 생각해본다면, 컨설팅장학의 이유가 분명해진다. 이른바 ‘중심이 해체된’ 시대에 학교가 다시금 교육적 자생력을 회복하려는 최소한의 방편이자 역할 모색인 것이다.”

실행을 위한 제언

컨설팅의 실행에서 중요한 것은 의뢰인과 컨설턴트가 함께 선택한 해결방안을 믿고, 자발적으로 호응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 교육청, 컨설턴트의 긴밀한 지원 및 협조가 있어야 하는데, 그 동안 실행되었던 사례를 중심으로 제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각종 관련 서식에 관해서다. 컨설팅의 의뢰부터 종결까지 몇 건의 서식이 만들어지는데, 절차적 수단이어야 하는 서식이 컨설팅장학 행위 자체로 간주되는 현상이 벌어지곤 한다. 또한 서식 작성이 번거로운 부담으로 작용되어 컨설팅 의뢰 요소가 있어도 그냥 눈을 감는 분위기도 있다. 이런 문제가 1학기 운영 평가에 드러나서 2학기 운영 시에는 약간의 변화를 시도하였다. 일단 신청서 양식을 최대한 간략하게 설계하였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불필요한 기입 항

목은 빼고 컨설팅 의뢰 자체에 충실한 방향으로 다시 편집하였다. 의뢰 신청도 공문 발송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의뢰인)의 편익에 맞게 유선, 메일, 메신저, 공문 등으로 다양화하였다. 그리고 결과보고서는 반드시 컨설턴트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 기존에는 학교의 업무담당자가 보고서까지 작성하여 제출하는 관행이 왕왕 있었다. 이럴 경우, 지극히 '상호적'이어야 할 컨설팅 행위가 '위계성'을 띠는 형태로 왜곡되고, 결국 컨설팅장학이 기존의 장학과 아무런 차별성이 없는 일종의 요식행위로 머물게 된다.

둘째, 컨설팅 의뢰 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현재 컨설팅 운영은 학년 초에 일괄 신청 접수하여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1학기 중에 종료되는 형태로 진행된다. 제반 여건 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컨설팅장학이 형식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된다. 따라서 컨설팅 의뢰가 현재적 고민을 담기 위해서는 월별 수요조사에 의한 계획이 좀 더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 다양한 경로(학교장회의, 각종 연수 등)를 통해 학교로 안내하였다. 실행 시기도 학교의 일정을 우선순위로 하여 컨설팅 신청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였다. 그 결과 2학기 운영에서는 매달 10여건 정도의 의뢰가 접수되고, 그 내용도 구체성을 띠고 있어 컨설턴트의 배정 적합성이 1학기보다 많이 개선된 것으로 관찰되고 있다.

셋째, 컨설턴트의 위촉과 활용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 한정된 장학지원단을 1대 1로 배정하여 지원하던 방식에서 의뢰 1건당 2~4명의 컨설턴트를 팀으로 구성하여 진행하도록 시도해 보았다.

의뢰에 대하여 컨설턴트들은 **의뢰 내용 확인 - 사**

전 협의 - 역할 분담 - 컨설팅 진행 - 활동 평가 - 결과 보고의 절차를 거치도록 안내하였다. 또한 컨설턴트 팀을 구성할 때 장학지원단 위주의 위촉을 벗어나 인근 학교의 관련 교과나 업무 담당 교원을 합류시켜 컨설팅에 임하도록 하였다. 컨설팅장학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이해 수준을 높이고, 컨설턴트 경험인력풀을 확충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의뢰 교사들 역시 이런 형태의 컨설팅을 선호하는 편인데, 동료교사와의 '대등한' 입장에서 '함께 고민하며' 진행되는 컨설팅에서 효과성을 느끼기 때문이다.

현재의 달라진 교육환경에서 학교교육의 방법과 구성원의 역할 개념 역시 바뀌는 게 당연하다. 변화는 혼란의 외양을 띠고 있으나, 본질을 돌아보게 한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컨설팅장학 역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 현장의 반응을 종합해 볼 때 아직 현장 정착의 단계에는 이르지 못한 것이 사실이고, 그것이 어수선했던 모습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학교(교원)가 당면한 교육현실을 생각해본다면, 컨설팅장학의 이유가 분명해진다. 이른바 '중심이 해체된' 시대에 학교가 다시금 교육적 자생력을 회복하려는 최소한의 방편이자 역할 모색인 것이다. 또한 긍정적 개선의 전망이 부분적이거나 확인되고,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이 다각적으로 제언되고 있는 점도 컨설팅장학의 시의성과 가능성을 충분히 느끼게 한다.

다만, 컨설팅장학이 변화에 부응하는 방법적 틀로서 자리잡더라도 학교와 교육청 구성원들의 적극적 수용의지가 관건임을 거듭 확인하고자 한다. 무너지는 독을 쓰나미로 자초할 것인지, 새로운 지평의 계기로 삼을지는 결국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글 > 이 승 복
인천신현고등학교 교장

이른 아침 교문에서 학생들을 맞이한 후에 책상에 앉으니 시조동아리 학생들이 단체상과 여러 개의 개인상을 휩쓸었다는 반가운 메시지가 도착해 있다. 2008년 개교와 함께 교육과학기술부가 지정한 인천 유일의 개방형자율학교로 첫발을 내디딘 우리학교는 2010년부터는 인천시교육청지정 자율형공립학교로 이름을 탈바꿈하여 여러 가지 학교 교육활동을 모범적으로 선도하고 있다. 이제는 어엿히 두 번째 졸업생 배출을 앞두고 있는 학교로 성숙되었으며, 자기주도적 성향이 점점 짙어져 가는 학생들이 매일 같이 수상 소식을 전해오고 있다. 교육 환경이 열악한 서구에 보금자리를 틀고 있는 학생들이 이처럼 자신감을 가지고 여러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에 눈시울이 뜨거워진다.

사실 자율형 공립고를 선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학교의 입장에서는 선생님들이 수업 외에도 특색 활동을 운영하기 위하여 분주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고 하루가 멀다 않고 찾아오는 손님들 때문에 더욱 선생님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으로부터 중간 평가를 받다

2008년 개교한 이래 개방형자율학교로 출발하여 2009년 9월에 한국교육개발원으로부터 시범학교 중간 평가를 다음 네가지 측면에서 받게 되었다.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적성중심 진로의식, 학생의 학교몰입도, 학교의 교육활동에 대한 만족도 등에서 일반학교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학교 효과를 보였다. 교사들의 입장에서는 학교장의 변혁적 리더십, 교원의 사기 및 열의, 진로지도의 충실성에서도 일반학교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결과를 얻어서 제도 정착 및 발전·확대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학습 성취 측면에서는 평준화 지역 선지원 후추침 등 우수학생 선발권 없이도, 교사 헌신과 교육과정 자율성, 학생 선택권 제공만으로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학교몰입도 등이 제고되었다. 인성교육 측면에서는 체험학습, 봉사활동 등 다양한 인성 교육으로 인한 사회성과 자아정체성 제고 및 학교 만족도가 상승되었다고 평가 되었다.

‘움(Um)’ 프로그램의 가능성을 보다

우리 학교가 운영한 자율형 공립고 시범학교 주제는 ‘움(Um)’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한 좋은 학교 만들기이다. ‘움(Um)’은 ‘움트다’, ‘싹트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성장 지향력을 갖는 ‘싹’의 의미로 **틔움 → 나눔 → 키움**의 단계를 거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다. 그 의미를 세분화 시키자면, 즉 전인교육을 위해서 학생들의 내면에 있는 가능성의 싹을 ‘틔우고’, 봉사의 마음으로 사회 공동체와 함께 ‘나

움(Um)’은 ‘움트다’, ‘싹트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성장 지향력을 갖는 ‘싹’의 의미로 틔움 → 나눔 → 키움의 단계를 거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용해 보고자 했다.



누고’, 자아를 발견하고 진로를 개척하여 글로벌 인재의 능력을 ‘키우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2010학년도는 무학년 진로담임제, 신현 삼품제, 글로벌 인재 양성, 신현 전통지킴이의 네가지의 큰작한 특색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노력 중점사업으로 ‘비전 스쿨’을 운영하게 되었다.

‘움(Um)’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특색사업인 ‘무학년 진로 담임제’는, 학생 개개인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종합적인 누적관리(school profile)를 통하여 3개년간의 학년별 체계성과 지속성을 갖춘 맞춤형 학습 및 진로 지도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계발활동, 방과 후 학교 시간을 활용하여 연간계획에 의한 학습, 생활, 상담, 인성, 특기적성 등의 모든 교육활동을 종합적으로 개발·적용하는 것이다. 또한 이 특색사업은 포트폴리오에 학생들의 다양한 자료들이 누적 관리되어 효과적인 진로지도로 정착했으며, 학부모 내방 시에도 학생의 이해자료로서 유용하게 활용되어 진로상담의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게 되었다.

두 번째 사업으로, ‘신현 삼품제’가 있다. 신현 삼

품제는 교과교육, 인성교육 및 특기·적성교육 분야의 전인교육을 통하여 진취적인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학교 교육활동의 기본이 되는 학력영역, 인성영역 및 특기·적성 영역에 대한 효율적인 목표 달성을 위하여 학습자들이 성취한 영역별 성적 또는 실적에 대해 평점을 차등적으로 부여하는 운영 방침을 택했다. 그리고 각 영역별 상위득점자에게는 장학금 지급 또는 미국, 중국으로의 해외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학력품’은 학업에 열중하고 학력 향상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정기고사를 비롯한 배치고사 및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을 기초로 등급에 따라 1~5점의 단계별 평점을 부여 하는 것이다. ‘인성품’은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고 봉사하며 선행·효행·예절의 실천을 위하여 봉사활동, Dream Challenge 인성영역, 칭찬상점 등의 실적에 따라 5단계의 평점을 부여하는 것이다. ‘특기·적성품’은 학습자 개인의 소질을 계발하고 잠재 능력 및 창의력 신장을 위한 자격증 취득, 인증·경시대회 입상실적을 기초로 하여 5단계의 평점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의 호응도는 매우 좋아서 학생 생활지도뿐만 아니라 글로벌 리더의 소양을 기르는 데 일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세 번째는 ‘글로벌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영어전용교실 등의 환경 조성 및 교수·학습방법 개선방안을 구안하였다. 국제반 및 공자학당 운영, 지속적인 국제교류, 외국어 관련 동아리활동을 통해 글로벌 리더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기 위하여 On-line과 Off-line 활동을 통한 국제교류 활동, 다문화 체험활동, 원어민을 활용한 영어, 중국어 교과수업 및 영어 몰입교육, 학교장 특강, 외부인

사 특강, 인성교육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또한 영국문화원, 미국문화원, 중국문화원 등의 방문, 해외문화체험, 어학연수 및 해외봉사활동, 1학년 전교생 서구영어마을 체험활동, 중국천진 제3중 자매학교와의 교류, 다양한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책임감과 자존심을 키워주어 글로벌 리더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있다.

네 번째는 ‘신현 전통지킴이’ 프로그램이 있다. 이것은 1학년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여 전통 예절관 활용, 전통 음식 만들기, 전통 장 담그기 등의 활동을 통하여 전통문화의 국제화를 위해 노력하는 프로그램이다. BIZ School을 함께 운영하여 수익금은 학생 복지 기금으로 환류 하는 두 가지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컨설팅의 종합적인 결과를 말한다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 전문팀으로부터 컨설팅을 받게 되었다. 컨설팅의 결과는 프로그램의 우수성과 개선점, 향후 과제 순으로 설명될 수 있다. 평가의 종합적인 내용은, 좋은 학교 시설로 인하여 학교의 곳곳에 학습 동기를 불러일으키고, 자연스럽게 교실에서 공부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학교장은 학생들이 가까이 할 수 있는 편안함을 갖추고 있으며, 학생과 학부모가 토로하는 학교생활의 어려움을 잘 수용하고, 학교 구성원 간의 통합

과 화합을 위하여 각 집단의 목소리를 잘 조율하며 학교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노력하는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되었다. 교육과정 또한 여자와 등학교라는 특성에 맞게 장 담그기와 미술 활동에서 독창적인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자율형공립고의 취지에 맞는 좀 더 다양하고 특성 있는 과목의 운영이 요구되고, 방과 후 수업에서는 학생들의 선택을 더 확대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듣고 싶은 과목을 듣는다는 의지를 느끼게 해줘야 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자기주도적 학습신장에 대해서는 자율형공립고의 목적에 부합되는 좋은 평가를 받았다. 상위권 학생뿐만 아니라 중·하위권 학생의 학업 신장을 의미 있게 다루고, 인성을 배려하는 특징적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생들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하고 학생에게 주어지는 기회가 많다는 것이다. 그러나 운영되는 프로그램에 대해 선택과 집중을 하면서 적절한 가치치기가 필요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상세한 안내로 학생들이 사전에 준비하며 수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조언도 뒤따랐다.

컨설팅의 영역별 진단결과를 되새겨 본다

자율형공립고의 후발 학교를 위해서 컨설팅의 영역별 진단 결과를 말하고자 한다. 먼저 ‘비전과 목표’에 대해서는 자율형공립고 출발 초기에 교원대학교에서 합숙하며 뜻을 모은 출발이 학교 목표 공유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했다. 이는 새로 전입해 오는 교사들에 대한 지속적인 연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또한, 자율형공립고에 대한 비전과 목표의식을 전체 직원이 공유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구

성원 간의 지속적인 친목 활동이 이루어져야 하고, 학교장이 학교 내 다양한 집단과 구성원을 만나 의견을 수렴하면서 지속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다.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는 Study Chain, 꿈을 키우는 자기 경영 노트, 무학년 진로 담임제, 국제 교류, 신현삼품제 등의 프로그램 중에서 신현삼품제 우수 학생에게 미국 체험 교육 보내는 것에 대해 학생들의 동기 유발이 매우 크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현 학생 자치 법정, 비전스쿨, 학교장의 훈화 등이 학생들의 동감을 이끌어 내었다. 학생들에게 4번의 설문조사를 통해 선택 기회를 많이 부여하고 있고, 다른 학교보다 창의적 재량활동의 단위수가 많고 투자를 많이 하는 것, 오페라단, 무용단 체험 등 특별 활동이 연간 100시간 이상 많이 운영되고 있는 것, 학급 및 수업 분위기가 좋고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다양한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이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장점이 부각되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개선 과제도 제시되었다. 먼저, 복잡한 교육과정으로 인해 어느 정도 가치치기를 하면서 본류와 지류를 구분하여 중심 프로그램을 확고하게 세우고 효과가 미약한 프로그램은 과감하게 없애는 방향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무학년 담임제에 전 교사가 투입되어 월 2시간의 수업을 더 하는 형태의 교사 부담 등이 단점으로 부각되었다. 그리고 인성함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비해 교과 교육과 관련하여 차별화되거나 특색 있는 프로그램이 없다는 점도 나타났다. 또한, 방과 후 수업에 대해 학생 선택권이 없어 만족도가 낮은 편이므로 지속



적으로 학생 선택권을 확보해주는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교원의 확보 및 운영에 대해서는 학교가 지역적으로 교동이 안 좋아 고등학교 교사의 지원율이 낮고 초빙교사의 40%가 중학교에서 전입을 와서 1학년부 터 대입관련 정보와 그에 따른 비전제시가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학부모들이 고등학교 유경험 교사 배치에 대한 요구가 높다고 나타났다.

학생들의 수준이 높다고 소문이 나 있지만 교동이 불편하고, 학력뿐만 아니라 인성 지도를 위한 다양한 활동이 워낙 많아 버거운 상황을 토로했다. 또한 선배를 통한 대학 진학의 간접 경험의 기회를 더 주고, 학습 멘토링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정기적으로 운영하며, 학생 개개인에 맞춰서 진행되는 무학년 진로담임제의 운영을 요구해 왔다.

한편 다음과 같은 개선 과제도 제시되었다. 학생 개개인에 맞춰서 진행하는 맞춤형 진로 지도가 필요하고, 이것이 동아리활동으로 강화가 되었으면 한다는 것이다. 또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학생들이 입장에서는 홍보가 덜 되어 구체적 사항을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안내를 친절하고 구체적으로 해 줄 필요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방과 후 수업에 대한

선택권 부여 확대, 상벌점제에 대한 교사들의 명확한 인식과 연수가 필요하고, 상점 부분을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학생들의 칭찬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컨설팅을 통해 얻은 과제는 어떤 것인가?

컨설팅 결과로 여러 가지 특색 프로그램을 분류와 지류를 선택하여 정리를 해야 할 것, 자율형공립고의 취지에 맞는 교과 교육과정의 특성화와 필요, 방과 후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선택권 확대 방안, 교원들 간의 화합을 다지기 위한 다양한 활동 위주의 워크숍 준비, 학생들과 관련한 상·벌점 규정 및 선발 기준의 보완과 안내 방안 마련 등의 해결해야 할 과제를 얻었다.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2011학년도 교육계획서에 반영하기 위해 학생·학부모·교사들에게 설문 조사를 했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본교의 교육목표로서 가장 강조되어야 할 부분에서는 학력향상이 가장 높게 나왔으며, 인성교육이 그 다음 순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창의성 신장교육이 그 다음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교 구성원들의 가장 큰 목표가 학력향상이며, 더욱 학력향상을 위한

교육활동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특색사업 부분에서는 학생은 해외문화 체험학습, 무학년진로담임제, 신현삼품제, 전통지킴이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 학부모는 해외문화 체험학습, 무학년진로담임제, 신현삼품제, 전통지킴이의 순으로, 교사의 경우는 신현삼품제, 전통지킴이, 무학년 진로담임제, 해외문화 체험학습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과 학부모는 해외문화 체험학습과 무학년진로담임제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는 것에 비해 교사는 신현삼품제에 비중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 생활지도 부분에서 학생과 학부모는 현재 시행하는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반면, 교사들은 교칙을 보다 엄격하게 시행하기를 바래 생활지도에 좀 더 자치적이고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주어진 과제에 대한 개선 노력

앞서 개선이 요구되는 사업에 대하여 2011학년도에는 다음과 같이 노력하고 있다.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는 ‘움(Um)’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특색사업인 ‘무학년 진로 담임제’, ‘신현 삼품제’, ‘글로벌 인재 양성’, ‘신현 전통지킴이’ 프로그램과 노력중점사업인 ‘비전 스쿨’의 잔가지를 정리하여 7개의 특색사업으로 묶어서 운영하기로 했다. 그래서 ‘뜰움’에서는 ‘신현 삼품제’와 ‘비전스쿨’, ‘학생자치법정’을 대표 프로그램으로 정하여 운영하기로 했다. ‘나눔’에서는 ‘Study Chain’을, ‘키움’에서는 ‘무학년 진로담임제’와 ‘신현 전통지킴이’, ‘자기 경영 노트’, ‘Dream Challenge 장학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따라서 2010년도에 4개의 특색사업과 1개의 노력중점 사업이 크게 7개의 특색사업으로 독립하여 그 형태를 갖추었다. 그리하여 계속적인 운영을 통하여 2011학년도 후반기 학부모 만족도조사 결과와 학생 설문지 통계를 통하여 미약한 프로그램을 없애고자 계획하고 있다.

방과 후 수업에 대한 선택은 100% 학생 자율 선택으로 바뀌었다. 더구나 방과 후를 통하여 부족한 부분은 자유수강제 등을 통하여 보충하는 방법, Study Chain을 통한 보충, Q&A를 통하여 교사들과 지속적인 관계 유지, T&T등의 방법을 병행하여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교원의 확보 및 운영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고등학교 지도 경험이 많은 우수한 교사를 초빙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대학을 진학한 선배들과의 멘토링제를 통하여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수능 이후에는 1차 수시에 합격한 우수한 3학년 학생들을 재학생들 교실에 1시간씩 투입함으로써 선배들과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한 효율적인 입시 지도를 기대하고 있다. 동아리 활동을 무학년 진로담임제에 포함하여 운영함으로써 진로지도의 맥이 이어지게 운영하고 있다.

지역사회와 학부모에 대한 홍보는 보도 자료를 지속적으로 냄으로써 학교에서 행해지는 거의 모든 사업이 중앙 일간지 및 교육청 보도 자료에 빠짐없이 올라와서 홍보의 효과를 충분히 거두고 있다. 학부모에게는 가정통신문 및 SMS를 통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2011학년도에 거둔 우수교육 활동을 되새겨보니...

2011년 10월에 또 한 번의 교육과학기술부 컨설팅을 받았다. 이번 컨설팅에서는 우리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특색사업 중에서 ‘무학년진로담임제’와 ‘Study Chain’이 타 학교에 보급되기를 바라는 우수한 프로그램으로 선정되었다. 사실 이러한 프로그램의 성과는 열악한 조건에서 졸업생들이 좋은 대학으로 가는 결과로 나타났다. 올 2월에 졸업한 297명의 학생들 중에서 중복 합격자를 포함하여 서울대를 비롯한 서울·인천 지역의 중위권 이상 대학에 124명, 경기 지역 외에 210명의 합격자를 배출한 성과를 보였다.

인천시교육청에서 실시한 2011년도 상반기 학부모 만족도 조사에서는 인천 평균보다 5%이상이 높은 78.63%의 만족도를 나타냈으며, 그 가운데서 교육시설 만족도(88.89%), 학교교육을 통한 자녀의 학력 향상 만족도(87.78%), 학교폭력으로부터의 안전 만족도(80.22%), 학교교육을 통한 자녀의 올바른 성격과 생활습관 형성 만족도(80.14%)순으로 나타나 컨설팅 결과를 활용한 변화의 모습이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는 학교환경이 조성됨으로써, 학력과 인성의 두 가지 측면에서 동시에 성공리에 정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아쉬운 점은 방과후 학교 교육활동 만족도가 인천시 평균을 약간 웃도는 결과(74.11%)를 보인 것이다.

국가수준학업성취도 결과는, 2009년에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6명이었는데, 2011학년도에는 2명으로 줄었다. 보통학력 이상 비율에서는 수학의 경우 2009년에 78.0%에서 2011학년도에는 96.4%로, 영어의 경우에 2009년에 83.5%에서 2011년에는 96.7%로 상승하는 효과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우리 학교는 2011학년도에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어서 주요 일간지에서도 우리 학교의 특색 있는 교육활동에 대한 기사가 많이 실리고 있다. 특히 서울 신문에는 일대일 진로담임제 개최가, 중부일보에는 신현고 도서부의 ‘톡톡 사전’ 발간 소식과, 일본 지진 피해 돕기가, 중앙일보에는 ‘신현고의 색다른 실험’이라는 제목으로 무학년진로담임제 등이 소개되었다.

이러한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까지 뒤편에서 묵묵히 노력하는 자랑스러운 선생님들이 있어서 무척이나 행복하다. 학력과 인성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밤늦게까지 남아서 학생들을 지도해 주는 선생님들이 계시지 않으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 아마도 선생님들의 노력은 오는 12월에 학교교육활동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졸업생 배출을 앞두고 있는 짧은 연혁의 인천신현고등학교가 이제는 인천의 명문 고등학교 반열에 들어서게 된 것이다.

후발 학교에 대한 조언

우리 학교를 선두로 하여 올해부터 인천공향고, 인천예일고, 동인천고가 자율형 공립학교로 지정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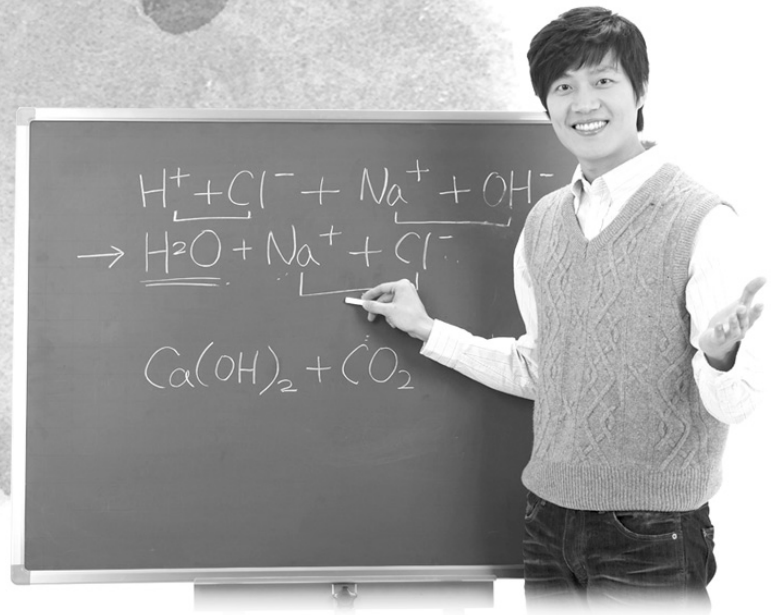
그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자율형공립학교를 선도적으로 운영해 본 결과 지나치게 행사성·전시성 활동 위주로 운영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고, 정치성 있고 이벤트성 행사에 빠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다. 또한, 교사는 수업이 경쟁력임을 명심하고, 여러 가지 행사로 인하여 자칫 수업에 소홀해지지 않고 학부모가 수업만큼은 걱정하지 않도록 안심시키고 학교 수업에 대한 신뢰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좋은 수업 만들기 위한 수업컨설팅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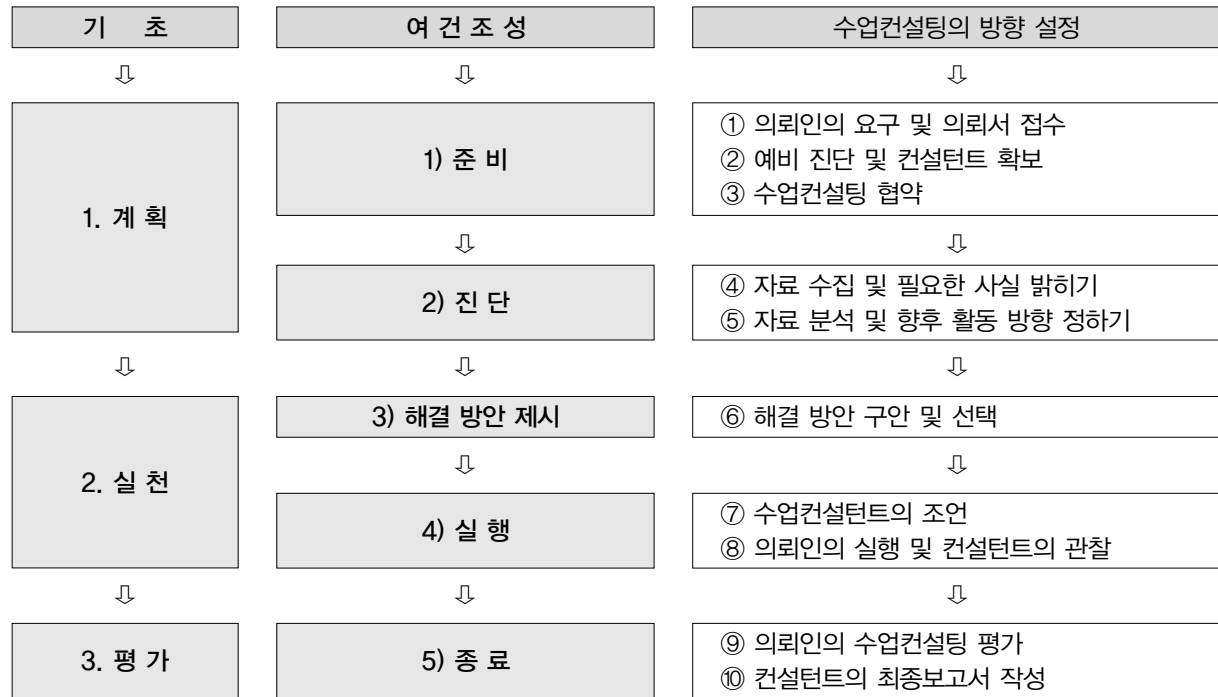
글 > 황 용 혜
간재울중학교
수석교사



I. 시작하며

현대 사회의 변화는 교육목적이나 수업환경 및 좋은 수업에 대한 개념 등을 수반하는 교육패러다임의 변화를 함께 가져왔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의 역할은 ‘무대 위의 현자’에서 ‘학생 곁의 안내자’로, ‘지도자’에서 ‘코치’로서의 변화는 물론, 수업의 절차 및 방법 등의 커다란 변화가 요구된다.

수업은 학교교육의 중심이며, 교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책무이다. 또한 ‘수업’이라는 독특한 부분으로 말미암아 다른 직업과 확연히 구분되며, 전문성을 인정받게 된다. 오랫동안 수업현장은 수업개선과 전문성 향상의 목적으로 ‘장학’이나 ‘자율장학’을 해 오고 있었지만 교사들에게는 의무적이고 권위적인 장학을 ‘자율’로 받아들여야 하는 이중의 무게를 느끼게 하였다. 수업개선이라기보다는 ‘보여주기’ 수업으로, 수업에 대한 연구와 준비를 위하여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만 수업개선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임에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따라서 기존의 장학은 수업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수업개선의 성과를 거두기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수업컨설팅 절차〉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여 실질적으로 수업개선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으로 수업컨설팅을 들 수 있다. 수업컨설팅은 교사의 전문성 중 ‘수업’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움을 요청한 교사에게 교내 외의 수업컨설턴트들이 학교컨설팅의 방법과 원리를 적용하여 이루어지는 자문활동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컨설팅 과정은 ‘자율성’의 컨설팅 원리와는 다소 부조화적인 부분이 있기는 하나, 좋은 수업을 만들고자 하는 교사들이 수업 컨설팅을 의뢰하여 개선된 수업을 보면, 전문가답게 비판을 수용하고, 자신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 자신의 성장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수업컨설팅은 좋은 수업을 만들고 싶은 교사들에게 기회와 성장의 장을 크게 열어준 수업개선의 장이라 할 수 있다.

2. 수업컨설팅의 기초

수업컨설팅은 학교컨설팅에서와 마찬가지로 컨설팅의 6가지 원리를 기반으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절차로 이루어져야 수업컨설팅의 본래 목적인 수업개선을 이루어낼 수 있다.

따라서 수업컨설팅은 컨설팅 본래의 의미와 원리인, 의뢰인의 자발성, 컨설턴트의 전문성과 자문성, 의뢰인과 컨설턴트간의 독립성과 학습성, 컨설팅 기간의 한시성 등이 충분히 담겨져 있을 때 온전한 의미를 갖게 된다. 또한 자발성과 전문성을 핵심적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자발성과 전문성이 다른 원리들보다 우선하며, 자발성과 전문성이 충돌할 경우에는 자발성이 우선한다. 수업컨설팅은 스스로 도움을 받고자 하는 의뢰인을 위한 전문성 개발 지원 체제이기

때문에 자발성은 수업컨설팅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관건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수업컨설팅이 실질적 수업개선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자발성, 전문성, 독립성, 자문성, 한시성, 학습성의 원리를 기초로 계획적인 단계가 체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는 수업컨설팅의 절차는 5단계로 나누어지며, 각각의 단계에는 세부적으로 수행해야 할 과제가 있다.

3. 수업컨설팅의 실행

가. 수업컨설팅 진행과정

수업컨설팅은 컨설팅을 희망하는 교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의뢰한 교사들은 수업개선에 우호적이고 적극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어 비교적 많은 부분의 수업개선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수업 컨설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이때 수업 컨설팅의 진행과

요 청	협 의 내 용
수업 동영상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자의 문제점 진단(마이크로 티칭 법 적용) * 학습훈련의 문제점 진단(구체적이고 실천가능성 포함) * 교실구성의 문제점 진단(학습환경, 좌석배치)
↓	↓
문제점 개선을 위한 협의	* 처방 및 일정협의 (단기로 설정하여 1가지씩 진행)
↓	↓
교수 - 학습과정 안 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설계의 흐름 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전략 - 학습목표 진술 - 동기유발 - 전개학습 활동 - 정리활동 및 평가 - 수업기법
↓	↓
교수 - 학습과정안 2, 3차 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설계 수정 · 보완(수업전략 중심) * 수업의 흐름도 검토 및 협의(수업기법 중심) * 동기유발 자료 선별 및 검토(본시학습과 연결 방법) * 학습활동 자료 검토 및 협의(자기주도적 학습)
↓	↓
수업에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의 관점으로 수업관찰 · 분석하여 조언 * 수업의 흐름 및 활동의 적절성 협의(학습자 중심) * 학습 자료의 적합성 검토
↓	↓
교수 - 학습과정 안 수정 · 보완	* 적용수업을 통하여 분석된 내용을 중심으로 수정 · 보완 (수업전략, 수업기법 포함)
↓	↓
수업공개	* 수업참관 및 분석 후 협의와 피드백
↓	↓
수업 후 협의 일반화자료 정리	* 일반화자료 선별 및 교수 - 학습 과정 협의(선택은 의뢰자)

〈수업컨설팅 진행과정〉

정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계획적으로 진행 했을 때 수업개선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다.

나. 수업 컨설팅 실행 기법

1) 상호관계 맺기

컨설턴트와 의뢰자는 목적달성을 위하여 수업컨설팅 협약을 맺은 그때부터 라포를 형성해야 수업컨설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뢰자는 전적으로 자발성에 기초해서 컨설팅 의뢰서를 작성할 때에 구체적이고 솔직하게 분석하여 작성해야 하며, 문제 진단을 위하여 자료를 제공할 때에도 열린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제공해 주어야 한다. 컨설턴트는 의뢰자의 문제 상황을 인정하고 공감하며, 의뢰자가 신뢰하며 문제 해결 방안을 잘 선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자료를 제공하고 조언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컨설턴트는 의뢰자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구체적이고 계획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 컨설턴트는 그 누구보다도 의뢰자와 함께 할 것이라는 것을 표현한다
- 컨설턴트는 자신의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의뢰자의 눈높이를 맞추도록 노력한다.
- 컨설턴트는 의뢰된 문제의 내용뿐만 아니라 컨설팅 방법에 있어서도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 컨설팅 과정에서 문제해결을 잘 할 수 없을 때는 다른 전문가와 문제를 공유하고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 컨설턴트는 의뢰자에게 우호적이고 온화한

사회정서적 행동으로 표현한다.

- 의뢰자가 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부여한다.
- 컨설턴트는 자신이 실천하기로 계획한 내용을 꼭 실천하도록 한다.
- 컨설턴트는 현재의 목적과 개입방법을 검토하고 새로운 토론거리를 생각한다.
- 컨설팅 과정은 지나치게 강요하지 않으면서 계획성 있고 철저하게 진행하며 의뢰자의 노력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2) 수업 설계하기

수업을 설계할 때에는 먼저 수업디자인을 선행한 후 수업설계를 하여야 한다. 수업디자인이란 교육과정에 따라 학습목표를 정하고 어떤 내용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지도할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수업디자인의 절차는 수업 전에 지도할 내용분석, 학생에 대한 이해, 교수-학습방법 결정, 학습준비 및 자료제



작, 수업 후의 수업에 대한 평가와 피드백, 수업재디자인 등의 과정으로 진행한다.

수업설계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들로 구성되며 이중에서 본시 교수-학습과정안이 실질적 교수활동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① 단원명 ② 단원의 개관 ③ 학습내용의 계열 ④ 단원목표 ⑤ 단원전개계획 ⑥ 교재연구 ⑦ 지도상의 유의점 ⑧ 단원의 평가 계획 ⑨ 학생의 실태 ⑩ 본시 교수-학습과정안

본시 교수-학습과정안을 작성할 때에는 크게 3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컨설팅하면 좀 더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 **학습목표 제시** : 학습목표의 진술은 수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학습 후에 도달해야 할 성취 행동으로, 암시적 동사가 아닌 명시적 동사를 사용하여 행동적 용어로 진술하며, 그 성취 결과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성취 결과는 학생에게 나타나야 하므로 교사 입장이 아니라 학생의 입장에서 진술해야 한다.

■ **구체적인 수업계획안 설계** : 교수-학습과정의 설계는 실제 교수-학습 과정의 절차와 방법을 구성하는 단계이다. 교과 단원의 성격과 학습자 집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습목표 달성에 가장 적절한 수업방식을 선정한다. 아울러 수업목표 달성을 위해 가장 효율적인 교육 매체자료를 선정하고, 교사의 수업활동에 대한 학생의 활동을 사전에 예상하여 기술함으로써 학생들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구체화하여야 한다.



■ **평가하기** : 본시 수업활동이 끝난 후에는 수업목표의 달성 여부를 묻는 형성평가를 실시한다. 형성평가는 반드시 수업목표의 달성 여부를 확인하고 측정해야 한다. 나아가 이러한 평가의 결과가 다시 수업목표 선정, 학습내용 선정 및 조직, 교수-학습 과정 전개와 평가단계에 환류(피드백)하도록 함으로써, 교수학습 방법을 개선하고 교실 수업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형성평가는 간단하게 내용을 묻는 것으로 할 수도 있고 구체적인 과정 중심 수행평가를 계획할 수도 있다.

이처럼 교수-학습 과정안을 작성하기 위해서 컨설턴트는 의뢰자에게 다음과 같은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첫째, 의뢰자에게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한다.

둘째, 학습활동을 단계적으로 상세하게 기술하여 구체적인 수업의 방향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셋째, 의뢰자가 할 일도 분명하게 안내하여 의뢰자가 밀도 있는 수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야 한다.

넷째, 보충·심화 학습자료에 대해 제공하고 친절 한 안내를 해 주어야 한다.

다섯째, 단위별 특성에 맞는 평가방향과 그 예시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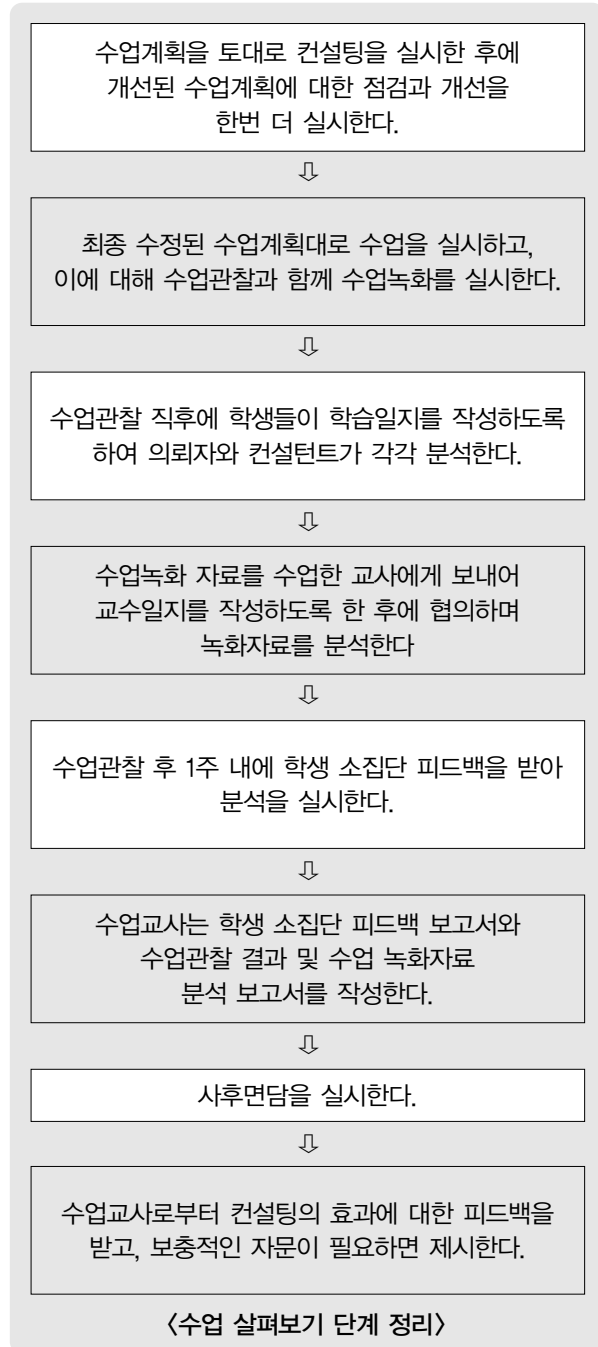
3) 수업 살펴보기

수업활동은 수업개선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교수-학습과정안이 아무리 화려하고 계획적으로 짜여져 있다 하더라도 교사의 수업활동에서 학생에게 의미 있는 학습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무의미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업 살펴보기는 수업컨설팅의 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수업을 관찰할 때에는 서술적 수업관찰로 수업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수업전체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관찰과 기록에만 집중한다.

수업관찰은 사전면담, 수업관찰, 사후면담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질 때만이 수업개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사전면담은 수업교사가 이 수업에서 개선하고 싶은 점이 무엇이고,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서 관찰하면 좋을지, 자료교환 등을 위한 단계이다.

수업관찰에서는 수업이 시작되기 10분 전에 들어가서 학생들의 동향과 구조를 파악하고, 협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세밀하게 계획된 서술적 수업관찰 기록지를 작성한다. 이때 컨설턴트는 수업을 녹음하면서 수업의 내용과 방법, 수업활동이나 내용의 전환, 학생들의 참여 방식과 참여 정도, 학생들의 반응, 학생

들 간의 상호작용 등을 시간과 함께 자세히 순서대로 적어 나간다. 또한 떠오르는 질문이나 제언, 수업에 대한 느낌 등도 기록한다.



사후면담은 컨설팅이 끝난 후 늦어도 일주일 이내로 계획을 세우고, 컨설팅의 6가지 원리에 충실하여, 수업컨설팅은 상담이고 협의일 뿐 지도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여 진행한다.

4. 맺으면서

수업은 교사의 꽃이다. 꽃이 누구에게나 아름답게 보여지기 위해서는 어느 곳에서, 어느 누가 보아도 제 모습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복잡하게 변화하는 사회 흐름 속에서 학생들의 모습도 다양하게 변해가고 있다. 이런 시대의 흐름 속에서 어느 학생이나 수업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수업도 끊임없이 변화되고 개선되어야 한다. 그래서 수업은 수업이 'UP' 시키는 거라고 흔히들 말한다.

수업컨설팅을 통해서 수업개선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첫째, 교원들의 수업개선을 위한 자발적인 노력,

둘째, 전문성이 함양된 컨설턴트 양성,

셋째, 수업컨설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와 여건 마련,

넷째, 교원들의 수업컨설팅의 이해도 향상,

다섯째, 수업컨설팅의 이론과 기법에 대한 지속적 인 연구개발 등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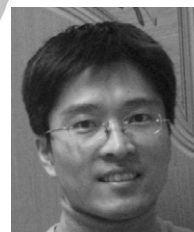
더불어 전시효과가 배제되고 교사들의 수업개선에 우선순위를 둔 수업컨설팅이 현장에 실질적으로 착근되기 위해서는 교원들의 자발성을 기반으로 컨설턴트의 전문성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교원들의 마인드 제고와 교육여건 조성이 시급하다.

〈 참고문헌 〉

- 주삼환외 3인(2009). 『수업 관찰분석과 수업연구』 한국학술정보(주)
- 진동섭외 2인(2008). 『학교경영컨설팅과 수업컨설팅』 교육과학사
- 변연계외 1인(2005). 『수업장학과 수업분석』 교육과학사



‘선생님이 행복하면 아이들이 행복해진다’는 주제 아래 교실 속에서 함께 행복하고자 하는 용기 있는 7명의 선생님들의 도전으로 제작된 EBS 「선생님이 달라졌어요」에 참가한 선생님의 수업코칭사례이다.



글 > 박 상 민
청주 용암중학교
교사

참가자 모집 공고를 보고

올해 2월 초, EBS의 다큐를 다시 보러 홈페이지에 들어갔다가 우연히 “선생님이 달라졌어요.” 참가자 모집 공고를 보았다. ‘어, 이거 또 하나 보네? 잘 됐다. 나도 한 번 신청해보자.’는 마음이 당장 들었다. 작년 프로그램을 보았을 때의 감동과 아쉬움이 다시 떠올랐기 때문이다. 작년에 이 프로그램을 보고 참가 선생님들의 용기와 노력하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고, 그 선생님들이 받았을 코칭에 대한 부러움이 있었다. 한편으론 다섯 명의 참가 선생님을 프로그램 한 편에 담다 보니 자세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 아쉬움도 컸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내년에 또 했으면 좋겠다. 초, 중등을 나누어서 한다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던 터였다. 그래서 공고를 보자마자 교사인 아내와 상의를 해보았다. 아내는 두말 않고, 놓치기 아까운 기회라며 신청해보라고 했다.

전국에 방송된다는 게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이런 기회가 언제 또 오겠나?’ 싶어 참가 신청서를 쓰는 데도 공을 들였다. 교사로서 성공과 실패 경험, 현재의 고민, 수업 분위기, 학생과의 관계, 코칭 받고 싶은 내용 등을 자세하게 써 보냈다. 참가가 결정되고 한참 뒤에 들은 얘기지만, 신청서를 여섯 쪽이나 쓴 사람은 나밖에 없었

다고 한다. 길게 써 보내긴 했지만, 신청 동기를 요약하자면 두 가지였다. 첫째, 준비를 많이 했는데도 수업이 잘 안 되어 막막했다. 어떻게 수업을 준비하고, 진행하면 아이들이 잘 들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그 방법을 찾고 싶었다. 둘째, 아이들의 마음을 받아주고, 친절하게 안내해주는 교사가 되고 싶었다. 그런데 반 분위기가 흐트러지는 것 같으면 ‘내가 만만해서 그런가?’ 하는 생각이 있었다. 그럴 때면 다시 고함치고, 성을 냈다.

그리고 나면 후회를 했다. 이런 일이 반복될 때마다 자괴감이 들었다. 친절한 교사이되 권위를 잃지 않고, 마음을 받아주면서도 잘못된 행동에 대한 경계는 제대로 세울 수 있는 교사가 되고 싶었다.



수업 코칭 받으며 4분할 화면 보는 모습

놓치지 않고 촬영했다. 작년 방송을 보긴 했어도, 막상 네 대의 카메라와 마주 하려니 부담스럽고 긴장도 되었다. 그러면서도 마음 속으론 ‘제대로 코칭을 받을 수 있게 평소 모습대로 수업하자’고 다짐해보기도 했다.

떨렸던 첫 촬영 순간

3월 29일, 드디어 첫 번째 수업 촬영이 있었다. 아침 일찍 교문을 들어서서는 순간부터 PD와 카메라 기사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 때부터 카메라는 쉬지 않고 나를 따라다녔다. 카메라에 적응할 겨를도, 마음의 준비를 할 틈도 없었다. 조회, 종례와 모든 수업을 촬영했고, 학생 인터뷰와 설문, 내 인터뷰도 진행되었다. 특히 수업 촬영 때는 네 대의 카메라가 교실에 설치되어 있었다. 카메라 네 대가 교실 전체 모습, 수업하고 있는 교사, 수업을 듣는 아이들의 모습을

수업 코칭을 받았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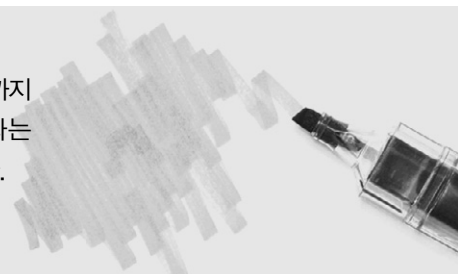
촬영한 수업에 대한 코칭을 받은 건 촬영 후 열흘 쯤 지난 4월 9일이었다. 교육 철학, 심리 상담, 수업 코칭 전문가 세 분과 만나는 자리였다. 원형 테이블에 들어서며 나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다. ‘절대 울지 말자.’ 작년 프로그램을 보며 큰 감동을 받긴 했지만, 모든 선생님들이 지적 받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저럴 필요까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코칭은 먼저 수업 영상을 보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화면을 넷으로 나누어 왼쪽 위는 수업하는 내 모습, 나머지 셋은 아이들 모습이었다. ‘영상을 보니까 어때요?’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판서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목소리 톤이 별로 변화가 없어요.”라고 답했다.

사실 그것 말고는 수업하고 있는 내 모습이 크게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았다. 준비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었으니까. 그러자 내 수업에 대한 아이들 설문 결과를 이야기해주었다. “우리 선생님 수업은 안락사이다.”, “우리 선생님은 로봇이다.” 그리고 아이들의 인터뷰가 이어졌다. “재미없어요.” “아이들이 (선생님을) 딱히 싫어하지도 않지만 좋아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화면 속의 나는 ‘싫지도 좋지도 않은 로봇 같은 선생님’이었다. 온갖 착잡한 마음이 들었다. ‘내가 아이들에게 저렇게 보이고 있었구나. 수업은 재미없고, 인간적인 교감은 별로 나누지 않는 그런 선생님이었구나.’ 나를 슬프고 우울하게 만드는 평가들이었지만 눈물 흘리지는 않기로 했다. 오히려 전문가들이 해주는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잘 기록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다.

그런데 테이프를 바꾸겠다며 촬영이 잠깐 중단되었다. 긴장한 탓에 그 잠깐의 휴식 시간 동안 난 멍하게 있었다. 그 때 촬영을 잠깐 멈춘 게 테이프 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란 사실은 그로부터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야 깨달았다. 다시 촬영이 재개되었을 때 전문가들은 ‘역사 수업에서 어떤 배움이 일어나길 바라나?’라는 질문을 던졌다. 그리고 ‘의미 있는 배움이 일어날 수 있는 장면에서 피드백이 없고, 교사가 의도한 것

새벽 세 시쯤 집에 도착할 때까지
“아이들이 사랑스러우세요?”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다.



만 말하고 넘어가고 있다’, ‘교사가 다 가르쳐야 한다는 생각, 전달자라는 생각을 버리고 아이들도 지식의 창조자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배움은 아이들의 능동성에서 시작한다’, ‘교사의 말을 줄이고, 뭔가를 투입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살펴야 한다’와 같은 조언들을 해주었다. 난 그 조언들을 다 받아적었다. 그리고 내 수업을 어떻게 바꾸어야 할지를 계속 생각해보려 했다. 하지만 머릿속이 복잡해지기만 할 뿐이었다.

그렇게 스튜디오에서 촬영이 끝난 뒤 대기실에서 쉬고 있는데, 작가가 찾아왔다. 촬영에 대한 몇 가지 얘길 하다가 “아이들이 사랑스러우세요?, 아이들이 보이세요?”라고 물었다. 난 그 질문에 대답할 수가 없었다. ‘내가 아이들을 사랑하고 있었나? 단지 내가 가진 지식을 전달받아야 하는 대상으로만 생각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내가 가진 문제의 본질과 마주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방금 전까지 스튜디오에서 전문가들이 그토록 여러 가지 표현으로 내 수업의 문제를 말했을 때 그 핵심은 바로 ‘내 수업에 아이들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있는가?’였던 것이다. 나는 열심히 가르치려고만 했지, 아이들이 어떻게 배우고 있는가에 대해 보고 있지 않았던 것이다. 촬영을 마치니 한 시가 넘었다.



반 아이들에게 고백하는 모습

새벽 세 시쯤 집에 도착할 때까지 “아이들이 사랑스러우세요?”라는 말이 머릿 속에서 떠나질 않았다.

부끄러운 고백

내 수업의 본질적인 문제와 마주 했을 때의 충격은 아주 컸다. 그 뒤 며칠을 괴로운 마음으로 보내다 자치 시간을 이용해서 반 아이들에게 내 심정을 고백했다. “EBS 스튜디오에 가서 선생님 수업에 대한 전문가들의 코칭을 받았다. 그 때 ‘아이들을 사랑하세요?’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선뜻 답을 할 수 없었다. 그동안 담임으로 너희들 앞에 서면서도 잘해준 것도 없는 선생님이었던 것 같다. 그래서 미안하다. 요즘 선생님이 많이 힘들다. 너희들과 함께 배우면서 성장하는 선생님이 되고 싶었는데, 실제로는 유능한 선

생님이 되려고만 한 것 같다. 하지만 지금 너희들이 보다시피 못한 선생님이로 너희들 앞에서 있다.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쉽게 입 밖으로 나오질 않는다. 너희가 선생님 좀 도와줄래?”

이 날 고백은 그 뒤 나와 우리 반 아이들의 관계에 큰 전환점이 되었다. 선생님이 변화하려 애쓰고 있다는 걸 알게 된 아이들은 자신들도 달라지려고 노력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좀 실수하거나 완전하지 못해도 아이들이 이해해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교실 안에서 좀 더 편안해졌다.

나를 어리둥절하게 한 1차 미션

아이들 앞에서 부끄러운 고백을 한 그날 내가 앞으로 수행해야 할 1차 미션을 받았다. 난 미션지를 보고 어리둥절했다. 거긴 이렇게 적혀 있었다.

- 페이퍼를 활동지로 만들라.
- 수업 시간 선생님의 말 줄이기
- 발표 학생에게 꼭 피드백하기
- 교실 들어갈 때 큰 소리로 학생들에게 인사하기
- 수업 시작 전에 5분 유머 이야기하기

‘아이들에게 인사하고, 유머로 수업을 시작하라고? 대단한 교수학습 기법이 미션으로 올 줄 알았더니 이게 뭐야?’ 이런 느낌이 들어 처음엔 어리둥절했다. 그런데 보면 볼수록 쉽지 않아 보였다. 가만히 앉

아서 수업 코칭 때 들은 이야기와 미션 내용을 꼼꼼이 생각해보았다. 아이들 속에서, 아이들과 함께 수업을 만들어가라는 이야기로 들렸다. 그걸 위해 먼저 아이들에게 인사하고, 서로의 마음을 열 수 있는 유쾌한 이야기로 수업을 시작하라는 것, 아이들의 활동이 일어날 수 있는 수업을 준비하고, 아이들이 반응하면 꼭 호응해주라는 것이 미션의 내용이었다.

다음 날 조회하러 교실에 들어가면서 “안녕!”하고 인사했는데, 놀랍게도 반 아이들이 “안녕하세요!”하며 나보다 훨씬 더 크게 인사했다. 아이들의 인사가 반갑고, 고마웠다. 전날의 내 고백에 아이들이 이렇게 바로 반응을 보여주는 것 같아 아주 기뻐다.

그 뒤 교실에 들어갈 때마다 내가 먼저 크게 인사하기 시작했다. 다른 미션들도 수행해보려 노력했다. 그 중 피드백하기는 아이들의 발표나 반응을 평가하려는 마음이 앞서기도 했지만,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호응해주려 애썼다. 학습지 대신 활동지를 만들어 아이들의 활동을 늘리는 일은 쉽지 않았다. 기본적인 역사적 사실과 인물들에 대해 설명하다 보면 아이들이 활동할 시간이 많지 않았다. 여전히 내가 설명해주려는 마음이 많이 있어서 그걸 비우는 게 쉽지 않았다. 유머로 수업 시작하기는 가벼운 이야기로 수업을 부드럽게 시작하라는 걸로 이해해서 일상적인 이야기로 풀어보려 했다.

미션을 수행하다 보니 내 수업에 변화가 생겼다. 수업 준비에 너무 많은 공을 들여서 수업을 내 이야기로 뻑뻑하게 채우기보다는 적당히 여백이 있는 수업을 준비한 뒤 나머지는 수업 상황 속에서 아이들과 함께 채워가기로 마음을 먹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수업이 좀 더 즐거워졌다.

집단 상담에서 ‘나’를 만나다

4월 말에는 1박 2일의 워크숍이 있었다. 워크숍 프로그램 중 집단 상담이 아주 인상적이었다. 눈을 감고 몸의 변화, 주변의 소리, 떠올랐다가 사라지는 생각들을 알아차리고 말하기, 어린 시절을 그림으로 그리기, 그림 카드 3장 중 마음에 드는 카드 1장 골라 이야기하기 등의 상담 프로그램이었다. 눈 감고 내 몸과 마음의 변화 알아차리기를 하면서 나의 지금 상태를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었다. 눈을 감고 가만히 내 몸과 마음의 상태를 느껴보니 긴장된 마음, 손바닥에 난 땀, 카메라가 움직이는 작은 소리, 내 옆에 있는 참가 선생님의 숨 소리 같은 것들을 느낄 수 있었다. 내가 못 느끼고 있던 나의 상태를 이렇게 차분하게 만나면서 긴장된 몸과 마음이 서서히 이완되고, 편안해지는 걸 느낄 수 있었다. 그 뒤로는 내 마음 속에 긴장, 분노와 같은 감정이 생기면 그런 마음의 상태를 찬찬히 느끼면서 살펴보게 되었는데, 의식적으로 하다 보면 마음이 조금씩 진정되는 걸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어린 시절 그림 그리기를 하는 동안 어렸을 적 활기찼던 나와 만날 수 있었다. 스케치북에 어렸을 때의 집을 그리고, 그 안에 즐거운 기억이 있던 곳, 슬픈 기억이 있던 곳, 나만의 비밀의 공간 같은 것들을 표시하고 나서 참가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프로그램이었다. 나는 구슬치기를 해서 생긴 많은 구슬을 큰 통에 담아 마당 구석에 묻었던 이야기를 했다. 그 모습을 본 신을진 교수님께서 “활기찬 어린 시절을 보내셨군요.”라고 말씀해주셨다. 이야기를 하는 동안도 즐거웠지만, 교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기



워크숍에서 집단 상담(어린 시절 그리기) 받는 모습

분이 더 좋아졌다. 어렸을 때 활기찼던 모습을 기억하고 앞으로 아이들과 만날 때도 그 모습을 찾아보라는 조언처럼 들렸기 때문이다.

“진정한 배움에는 □가 있다”

워크숍 둘째 날에는 서길원 교장 선생님의 특강을 들었다. 서길원 선생님은 참가자들을 네 명씩 두 조로 나누어 “진정한 배움에는 □가 있다.”의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을 쓰게 한 뒤, 조 안에서 의견을 나누고 앞으로 나와 발표하게 했다. 교장 선생님의 특강은 이 활동만으로도 중요한 가르침을 주었다. 첫째, 배움의 본질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다. 참가 선생님들은 ‘이날 진정한 배움에는 (감동, 탄성, 웃음, 호기심, 궁금함, 재미, 참여, 소통, 동기부여, 자발성, 어울림) 이 있다’고 답했다. 둘째, 4인 1조 조별 활동 방법을 직접 체험하며 배울 수 있었다. 그동안 교사의 말을 줄이고, 학생 활동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던 내게 이날의 체험은 큰 도움이 되었다.

2차 미션, 올 것이 왔다

워크숍 때 1차 미션 수행에 대한 코칭을 받았는데, 칭찬을 많이 들었다. 그래서 2차 미션은 좀 더 진전된 내용을 기대했다. 5월 11일, 드디어 2차 미션을 받았다.

1. 학생들이 배움을 찾아가는 진정한 수업 만들기
 - 활동지를 활용하여 닫혀 있는 교과서 열기
 - 학생 스스로 정보를 찾아 학습하는 수업
 - 학생들의 활동을 이끌어내는 수업 연구
2. 좋은 수업 만들기 모임 조성하기
3. 나의 미션 만들기

예상하고 있던 미션들이었고, 나는 ‘나의 미션’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정해보았다.

- 스스로 정보를 찾고 활동하도록 계속 동기 부여하기
- 친구에게 수시로 물을 수 있는 분위기 만들기
- 역사를 현재 문제, 학생의 문제와 연관시키기
- 학생들의 관심을 끌 영상, 노래 등 미디어 자료 활용하기
- 다양한 학생 활동을 찾아 시도하기
- 수업에 대해 선생님들과 이야기 나누기

더 잘 하려는 마음이 독이 되다

2차 미션을 받은 뒤 교수법에 대한 책을 여러 권 읽고, 그걸 내 수업에 적용하려 노력하였다. 내용 면

에서는 과거 역사와 아이들의 현재를 연관시키려 하였고, 수업 과정 면에서는 수업의 전개(학습지의 틀)를 짜임새 있게 구성하려 하였다. 나는 1차 미션 때보다 수업을 더 잘하기 위해 아주 열심히 수업 준비를 하였다. 그 뒤 수업 코칭 전문가 선생님의 방문 코칭도 받았고, 2차 워크숍에서 교수법에 대한 특강도 들었다. 내 수업이 점점 틀이 잡혀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내가 내 수업의 형식과 내용에 만족스러워하던 그 즈음 아이들의 반응은 오히려 줄었다.

자는 아이들도 늘어났다. 6월 24일, 다시 전문가의 방문 코칭을 받았다. ‘수업 속에 의문과 질문이 없다. 교학상장에서 교(敎)만 있고 학(學)은 없다. 다시 예전 상태로 돌아간 것 같다.’ 나는 2차 미션이 전하러한 메시지의 본질에서 벗어나 다시 1차 미션을 받기 전의 상태로 되돌아간 것이다. 수업을 잘 하려 하고, 많이 준비하지만, 정작 아이들은 듣지 않고, 내가 아이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지 않고 있는 현실. ‘현재와 연관된 과거 역사’라는 또 하나의 내용을 또 다시 전달하려 하고 있는 나. 내가 만든 목표로만 가려다가 아이들의 눈빛을 보지 못하고, 아이들의 말을 듣지 못하고 있는 나.

문제의 본질은 ‘나는 아이들을 어떤 존재로 보고 있는가?’였다. 유능한 교사가 되려고만 하지 말자던 처음의 각오를 어느새 잊고 다시 잘 가르치는 교사, ‘달라진 선생님’이 되려 하고 있었다. 내가 정말 달라져야 할 지점은 아이들을 능동적인 존재로, 하나하나의 인격으로 존중해주는 일, 유연함과 여유 갖기였는데, 다시 그걸 놓치고 있었다. 나 혼자만 만족스러운 수업을 이루기 위해 달려갔지, 아이들을 살피지 않았다.

한 번의 슬럼프를 겪은 뒤 계속 나아지고만 있다고 생각하던 내게 ‘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갔다’는 말은 큰 충격이었다. 이제는 더 잘해보고 싶은 의욕이 생겨나지 않았다. 두 번째 좌절은 더 이상 일어서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을 만큼 힘들었다. ‘제작진에게 알몸을 다 보인 것 같아 촬영 끝나면 다신 제작진을 보고 싶지 않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그렇게 두 주를 보냈다. 그러다 문득 ‘2학기 때 내가 엉뚱한 길로 가고 있을 때 누가 날 잡아주지? 지금은 나에게 도움을 주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작년의 <선생님이 달라졌어요>를 다시 보았다. ‘기술이나 전달할 내용보다 아이들과의 관계가 우선’이라는 메시지, 그리고 애정과 배려, 여유와 행복, 이런 모습들이 눈에 들어왔다. 그 뒤 ‘내 딸에게 하듯 아이들의 말을 들어주고, 존중해주지 않으면 내가 교사를 계속해도 되나? 교사 자격 있나? 내 딸이 나를 아빠로서가 아니라 선생님이로 교실에서 나를 보았을 때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나는 교사가 아니다, 내가 딸에게 제공하고 싶은 수업을 내가 우리 교실에서 이루어내지 못하면 나는 좋은 교사가 아니다’라고 생각했다.

“서로 사랑합니다.”

한 학기 동안의 미션 수행이 다 끝나고 8월 7일, 드디어 마지막 촬영이 있었다. ‘Before & After’ 형식으로 그간의 과정을 영상으로 볼 때는 코끝이 찡했다. 한 학기 동안 있었던 수많은 촬영과 두 번의 큰 좌절, 여러 가지 노력과 변화, 이런 것들이 파노라마가 되어 머릿속을 스쳤다. 전문가 선생님들은 그간의




전문가의 방문 코칭 모습

변화를 축하해주며 “선생님, 아이들을 사랑하시나요?”하고 물었다. 나는 “예, 서로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했다. 이제 이 질문에 망설이지 않아도 되는 나 자신이 대견했다. 그리고 아이들이 고마웠다.

방송, 그 뒤

방송이 나간 뒤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격려와 축하의 인사를 받았다. 그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내 수업을 듣는 3학년 남학생의 질문이었다. 평소 수업을 열심히 듣는 그 아이는 방송에 나온 대사를 똑같이 따라 하며 내게 물었다. “선생님, 아이들을 사랑하시나요?” 나는 답했다. “그럼, 선생님은 ○○를 사랑하지.”

많은 사람들이 내게 묻는다. EBS 수업 코칭을 받으면서 뭐가 가장 좋았고, 뭐가 달라졌는지. 그럴 때마다 나는 이렇게 답한다. “많은 강의와 코칭, 조언을 들었죠. 그게 다 도움이 되었어요. 그런데 무엇보다 가장 큰 소득은 제 마음가짐이 달라진 거예요.” 방송 참여 후 나는 교실에서의 내 모습, 아이들 앞에서의 내 모습을 되돌아보게 되었다. ‘열심히 가르치는 동안 아이들에게 배움이 있는가?’, ‘지금 내 모습 속에 아이들에 대한 애정이 있는가?’ – 이런 것들을 성찰하는 마음이야말로 내가 수업 코칭을 통해 얻은 가장 값진 교훈이다.



특별기획 II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교육기부

058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기부

한국과학창의재단 창의인재기획단장 김 윤 정

063

작은 씨앗 큰 희망 교육기부 활성화 방안

인천광역시교육청 창의인성교육과장 심 연 기

067

학교별 교육기부 우수사례

인천광역시교육청 창의인성교육과 교감 홍 호 석

073

배움을 나누는 것의 의미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 대표 이 준 석

077

‘공신’ 멘토링을 통해 얻은 소중한 경험

공신닷컴 회장 이 창 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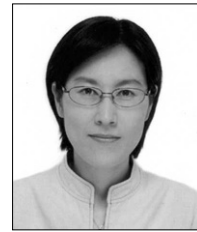
081

찾아가는 행복문화포럼 기부 사례

행복문화포럼 대표·변호사 안 귀 옥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기부



글 > 김 윤 정
한국과학창의재단
창의인재기획단장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나선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 이는 창의적 인재 육성이 국가경쟁력의 관건인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이는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수많은 직업의 세계를 알기 위해서는 시설과 자원이 한정된 학교보다는 전문가와 첨단시설, 다양한 리소스가 풍부한 기업과 연구소, 공공기관 등 학교 밖의 체험활동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은 학교에서 한다.’는 고정관념을 탈피해 지역사회 도처가 학습의 장이고, 만나는 모든 이들이 선생님이라는 마인드가 학생이나 교사만이 아닌 이 시대 우리 모두가 공유해야 할 가치관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교과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는 작년부터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지원하고자, 정책적·제도적 노력을 하고 있다.

우선 지난 2010년 대통령 주재 교육개혁대책회의를 통해 제시한 교육기부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교육기부(Donation for Education)』의 개념

기업·대학·공공기관·개인 등 사회가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유·초·중등 교육활동’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비영리로 제공하는 것

- 기관 보유 시설·프로그램 및 이를 가공한 교육자원 제공(프로그램 기부)
- 악기·실험기자재, 영화·미술작품 등 임대 또는 무상 제공(장비/콘텐츠 제공)
- 학생 동아리, 체험활동 등에 차량·보험 제공(활동 지원)
- 강연, 멘토링, 지식봉사 등 (개인 재능 기부)

교육기부 공감대 및 참여분위기 조성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범국민적 공감대 확산과 동참을 위한 기부·나눔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대기업과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자본주의 4.0시대 교육기부가 미래를 위한 투자이자 지속발전 가능한 사회공헌 활동임을 강조하고 있다. 사실 최근 외국의 동향을 보더라도 기업의 교육기부는 사회공헌활동을 넘어 투자의 개념으로 여기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고 있다. 예컨대 세계 최대의 석유회사 엑슨모빌의 경우 사회공헌활동의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고, 장기적으로 사업에 대한 파급효과도 높을 수 있는 분야로 '미국의 수학·과학 교육지원'으로 정한 것 역시 이러한 맥락이다. 이러한 기준은 온 국민의 교육열이 세계 최고인 우리나라에는 더욱 크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기부 수요와 공급의 효율적 연계

창의재단에서는 교육기부 매칭시스템을 설계하고 있다. 이는 다양한 분야의 기관들과 개인들이 마음만 먹으면 보다 쉽게 교육기부의 대상자와 연결될 수 있도록 교육기부의 제공자와 수요자를 연결하는 온-오프라인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기부 희망·요청 자원들의 수준을 관리하며 학교에서 자원의 이용 활용 여부를 정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는데, 기존의 산발적으로 운영되었던 (기업, 공공기관, 대학, 연구소, 개인 등) 각 분야별 활동 정보를 통합하고 체계화하고 있다. 이 시스템이 발전 활성화 되게 되면, 교육

기부에 대한 인증 서비스 시스템 및 (학교) 동창회, 학부모회, 학교운영위원회를 포함한 학교와 지역사회 간의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교육기부 자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매칭시스템이 잘 정착될 경우, 다자간의 기부협력 또한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다. 말하자면 교육기부도 '아나바다' 같은 교환과 보탬을 통해 수요자에게 보다 풍부한 교육적 기여가 이뤄질 수 있는 것이다. 나눔과 기부문화가 성숙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대다수의 기부자들이 자기만족을 위해 '이름이 날 수 있는 단독 기부'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혹은 기부라는 것이 본업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좋은 여건과 환경, 여럿이 뭉치면 더 좋을 것을 찾는 것이 번거로워 시도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매칭시스템이 잘 가동될 경우 A는 재능을, B는 공간을, C는 기차 재를, D는 운영비를…… 등과 같은 모으고 나누는 교육기부 협력 시스템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고, 수혜자들은 보다 질 좋은 환경과 자원, 프로그램을 누리고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교육기부 인증제 운영

교과부와 창의재단에서는 기업이나 기관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책임 있는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교육기부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다. 교과부에서는 '교육기부기관 인증제 운영규정'을 제정('11.3월 고시)하고 창의적 인재양성에 이바지하



도요타는 청소년들이 이과를 멀리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6년부터 사내의 엔지니어를 중심으로 조직된 도요타 기술회 회원을 강사로 파견하여 전국의 과학관·박물관 등에서 “놀라운 과학 상자 수업”이라는 과학 공작 교실을 운영하였다. 아이들에게 “물건 만들기의 중요함”과 “과학의 즐거움”을 전하고 충돌 안전 보디나 전력 회생 자동차, 2족 보행형 로봇 등 도요타 오리지널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아이들의 창의 연구를 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상시적·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에 대해 오른쪽과 같은 인증서와 인증마크를 부여한다. 이러한 인증제를 통해 교과부는 교육기부의 질을 관리할 수 있고, 기업은 광고 등에 인증(DE)마크를 활용하여 기관의 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일석이조(一石二鳥)의 효과를 얻고 있다. 하지만, 교육기부 인증제의 가장 큰 원동력은 기부의 수혜자이자 기부제공자가 될 수 있는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언론 등의 많은 관심과 칭찬이다. 이를 위해 재단과 정부에서는 SNS 등을 활용해 교육기부의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홍보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기업 인력 개발 시스템과 연계해 적극적으로 교육기부 활동을 한 개인기부자들에 대해 인사 채용 시 이를 반영·검토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겠다.

수준 높은 프로그램 개발·확산

순수하고 자유로운 민간의 기부 활동에 대해 질을 따지거나 관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주는 것이 지나쳐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정말 좋은 기회였다’라는 만족을 줄 수 있는 기부이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첫째, ‘**교육과정과 연계된**’ 교육기부 프로그램 개발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창의성과 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융합형 프로그램,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각 기관의 특성을 살리면서 특히 **진로활동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라면 공교육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기부 해외 사례들

나눔과 기부문화는 이미 해외 선진국에서는 일상 생활의 일부가 되었을 만큼 보편화되어 있다. 또한 그 형태는 보다 다양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우리 사회 역시 기존의 물질적 기부와 봉사의 사회공헌 형태에서 점차 다양한 교육기부 형태와 봉사 주체로 점차 변화하고 있다. 특히, 거액을 한 번에 기부하고 세간의 관심을 끌었던 특별한(?) 기부에서 일회성이 아닌 일상적인 기부 문화로, 필요로 하는 것을 찾아가는 아웃리치 활동 등으로 그 방법과 형태가 크게 바뀌었다.

사회공헌 활동 중 교육과 관련된 외국의 다양한 기부사례들은 수도 없이 많으나 이제 막 시도·확산되

고 있는 우리의 교육기부 활동에 참고가 될 만한 몇 가지 사례들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일본의 경우, 「**도요타 자동차의 “놀라운 과학 상자 수업”**」(1996년~)이 대표적이다. 도요타는 청소년들이 이과를 멀리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6년부터 사내의 엔지니어를 중심으로 조직된 **도요타 기술회 회원을 강사로 파견하여 전국의 과학관·박물관 등에서 “놀라운 과학 상자 수업”이라는 과학 공작 교실을 운영하였다**. 아이들에게 물건 만들기의 중요함과 과학의 즐거움을 전하고 충돌 안전보디나 전력 회생 자동차, 2족 보행형 로봇 등 도요타 오리지널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아이들의 창의 연구를 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독일 「**작은 과학자의 집 프로그램**」(The Little Scientist's House program, 2006)」의 경우는 독일기업 **Siemens사가 재단을 설립해 3~6세 어린이, 초등학교 학생들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교사들이 워크숍을 진행하며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학생들은 함께 팀을 이뤄 문제를 해결하거나, 아이디어를 교환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이 프로그램은 2006년 베를린 지역의 50개의 유치원에 대해 시범적으로 실시한 것이 좋은 성과를 거두어 2007년에는 독일 전역으로 확대 실시하여 지역 네트워크 80개가 구축되었고, 3,000개 이상의 기관이 참여했다. 지금까지 약 6,000명의 교사들이 연수를 받았고, 참여한 어린이들의 수는 20만 명을 넘었다고 한다.

프랑스의 글로브 노트 프로젝트(Globe Note

project)는 초등학생과 장애학생의 음악적 감수성을 깨치는 활동으로 10명의 공대 학생들이 새로이 Brass band를 구성해 활동하는 프로젝트이다. 이들 중 펀딩 역할을 맡은 멤버(글로브 노트 협회)가 정부와 민간 기업 등으로부터 악기나 물품 제공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끌어내며 활동은 워크숍과 투어로 이루어져 있다. 초등학교 등을 순회하며 음악 워크숍(musical workshops)을 상당 기간 진행하였는데 10개월간 10개의 나라를 순회하며 어린 아이들이나 장애아동들을 대상으로 공연을 진행하였다.

이제는 학교가 될 때...

‘기부’란 것은 일반적으로 제공자의 측은지심(惻隱之心)과 시혜적 마인드에 기대어온 감이 없지 않다. 그러나 교육기부는 단순히 시혜적인 행위에 그치지 않고 주는 쪽이나 받는 쪽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지속 발전적인 행위이다. 이에 기부 제공자가 사회적 책임감과 미래인재육성에 대한 투자의 관점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기부의 넓은 대상이 되는 학교나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의 적극적인 자세가 절실히 필요하겠다.

급변하는 글로벌 지식기반 사회에서 교육기부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만은 아니다. 우리 아이들이 21세기에 필요한 문제해결력과 창의력을 기르기 위해서, 사회의 변화를 체험하고 흥미로워하는 영역에 대한 탐구를 하기 위해서도 사회의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는 교육기부는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나 언론이 주체가 아닌 우리 모두가 주

체가 되어 적극적으로 교육기부 대상을 찾아야 한다. 또한 학교는 교육기부자들과 파트너십을 이뤄 다양한 교육적 접근 방법을 제공하여 우리 아이들이 사회 각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전문가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체험할 수 있도록 눈높이를 맞춰 교육기부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교육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풀뿌리 기부활동이 필요하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자. 교육열 높은 적극적인 우리 학부모들은 녹색어머니회, 안전 등지회, 명예사서교사, 등하교길 교통안전지도 등등한 가지 정도의 학교 참여 활동 경험에 있다. 이러한 활동들이 보다 다양화 되면 자연스런 교육기부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시대가 발전하면서 학부모들의 사회생활의 양태나 역량도 다양해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학부모들이 교육기부 활성화에 앞장서면 그야말

로 풀뿌리 교육기부의 큰 산을 이루지 않을까 생각한다. 장사를 하는 학부모, IT전문가 학부모, 예술가 학부모, 학습지 교사를 하는 학부모, 공무원 학부모 등등 이런 분들이 진로지도 명예교사가 되거나 소속 기관차원의 교육기부를 이끌어내 그 기관에서의 체험 활동을 열어준다면 제 아무리 거물급 인사들이 뿔뿔하고 한들 그 실적에 견줄 수 있겠는가.

마지막으로 교사의 역할이 변해야 한다. 이제는 Teaching만이 전부는 아니다. guide나 facilitator, mentor 등의 역할도 중요해지고 있다. 따라서 교사도 교육기부의 수혜자라는 수동적 생각보다는 사회의 수많은 자원을 학교 안으로 끌고 오고 교실을 세상으로 넓히려는 개척자의 역할을 고민해본다면 21세기 우리 아이들의 공교육은 더욱 더 풍성해질 수 있을 것이다.



강력한 이유는 강력한 행동을 낳는다. - 윌리엄 셰익스피어



작은 씨앗 큰 희망 교육기부 활성화 방안



글 > 심 연 기
인천광역시교육청
창의인성교육과장

I. 들어가며

우리교육청에서는 2009개정교육과정 적용과 더불어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학교자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사회의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야 한다. 즉, 창의성과 인성을 겸비한 미래인재 양성교육은 학교나 교육당국만의 책무가 아니라 모든 사회 주체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것이다.

일선학교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시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수요에 비해 프로그램과 인적·물적 기부가 매우 부족한 편이다. 또한 교육기부가 일회성·산발적으로 운영되어 안정적인 교육자원 확보에 한계가 있다. 이에 우리교육청에서도 교육기부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사회 각계 각층의 교육기부를 이끌어 내기 위해 지역사회와의 연계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II. 교육기부란?

교육기부(Donation for Education)란 기업·대학·공공기관·개인 등 사회가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유·초·중등 교육활동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비영리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인적자원 기부와 물적자원 기부로 나눌 수 있다.

가. 인적자원 기부(재능, 봉사 등)

문화·예술·체육 교육, 진로 교육, 강연 등 개인의 경륜과 재능을 활용하여 학교교육을 지원해주는 것

- 1) 지식 기부 : 방과후학교 강사, 학습보조교사, 동아리활동 교사, 명예사서교사, 명예교사
- 2) 상담 기부 : 학생상담, 부적응학생 및 이탈학생 사례 관리 등
- 3) 봉사 기부 : 학교폭력 안전지킴이(학부모순찰대), 학생시험감독, 학부모봉사단, 학교급식 자원봉사, 체험활동 안전 보조교사
- 4) 모니터링 기부 : 학교급식 모니터링, 수학여행 모니터링, 학교축제 모니터링, 수련회 및 체험활동 모니터링, 학급신문·학교신문·교지 모니터링, 공개수업 모니터링, 방과후학교 모니터링, 수행평가 모니터링, 사이버가정학습 모니터링
- 5) 학교 위원회 활동 기부 : 학교 분쟁조정위원회, 학교 교육과정위원회, 학교예·결산위원회, 학교폭력자치위원회, 학교규칙재·개정위원회, 인사자문위원회, 학교평가위원회, 방과후학교 운영 위원회, 학교급식위원회 등

나. 물적자원 기부(프로그램, 시설 등)

기관 및 개인이 보유한 물적 자원(콘텐츠, 기자재,

작품, 시설, 장비, 공간, 기금 등)을 교육기관에 정기적 혹은 일시적으로 지원해주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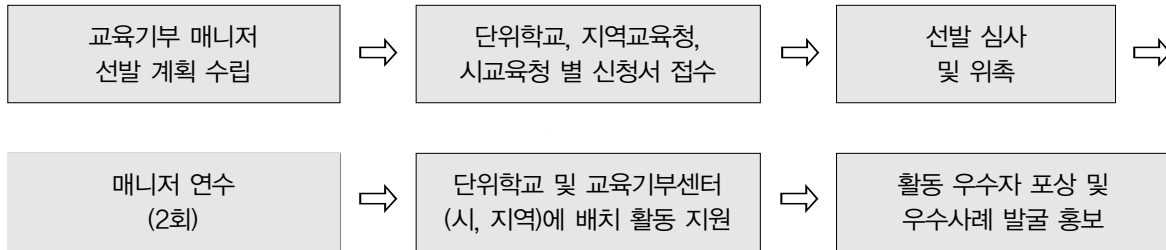
- 1) 프로그램 기부 : 기관 및 개인이 보유한 교육 프로그램 지원
- 2) 급식 기부 : 무상급식 지원
- 3) 물품 기부 : 기관 및 개인의 물품 지원
- 4) 시설 및 교통 기부 : 기관, 지역사회, 개인 소유의 시설 및 교통 지원
- 5) 장비 기부 : 기관, 기업 및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 지원
- 6) 포인트 기부 : 각종 카드에 적립된 포인트나 마일리지 기부
- 7) 교육활동비 기부 : 교직원, 기관, 기업, 단체, 지역사회, 개인 등의 교육활동비 지원
- 8) 장학금 기부 : 교직원, 기관, 기업, 단체, 지역사회, 개인 등의 장학금 지원

III. 교육기부 어떻게 할 것인가?

1. 교육기부 추진 체제 구축

우리교육청에서는 교육기부 추진 위원회(위원장 교육감), 교육기부추진단(위원장 부교육감)을 구성하여 기업·대학·연구소 등의 교육기부 자원 확보와 해당 부서별로 교육기부 자원을 관리하는 등 체계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있다. 또한 연수 및 컨설팅 강화에 초점을 두고 교육기부 실무 지원단(TF팀)을 조직하여 교육기부 홍보에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해 지역교육청과 학교에서도 교육기부 추진단을 자체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더불어 지

교육기부 매니저 선발·운영 절차



※ 학교 교육기부 매니저(SDM : School Donation Manager)

단위학교의 요구에 따라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교육활동에 연결해주는 역할 담당

역사회와 연계한 추진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교육기부 매니저(SDM : School Donation Manager)를 선발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2. 교육기부 대상 확보

우리교육청에서는 교육기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기업·대학·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캠페인 및 다양한 교육기부 관련 행사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민간주도의 교육기부 네트워크 구성, 교육기부 홍보대사 위촉, 1인1지식(재능) 교육기부 릴레이로 교육기부 인식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교육기부 선포식(2011. 10. 25)을 개최하여 교육기부자(단체, 기관, 개인) 대상으로 인증서를 수여하였고, 교육기부기관 인증제를 운영하여 인증서 및 인증

마크를 부여하였다. 또한 ‘교육기부의 날(인천 사랑의 날 - 매월 1일), 교육기부의 달(2011년 10월), 교육기부의 해(2012년)’를 지정·운영하여 교육기부 유공자를 발굴 포상하였다. 그리고 좀 더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교육기부 소식지를 발간하여 우수사례(미담) 사례를 알렸다.

학교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자 지난 9월 23일 교육기부센터를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국제올림픽위원회 문대성 위원을 홍보대사로 위촉하는 등 교육기부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더불어 인천시 관내의 협약기관을 선정하여 협약을 추진하였고, 기업·대학·공공기관·단체 등 23개 기관과 교육기부 협약을 체결하여 교육기부 자원을 확보하고 있다.

Ⅶ. 나가며

2012년부터 주5일 수업제가 전격 실시되며, 2009 개정교육과정의 도입과 더불어 집중이수제와 창의적 체험활동이 실시되면서 학교의 교육과정이 다양화되고 있다. 현재의 토요일 운영 수업시간이 평일로 옮겨지고, 수업일수를 195일 전후로 운영하는 교육과정이 운영될 것이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가족단위의 여유로운 생활을 즐기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최근 맞벌이 부부의 증가와 핵가족화로 인해 주5일 수업제의 확대는 많은 학생들을 홀로 있게 할 가능성이 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의 잉여로운 소중한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학교의 고민과 이를 활용하기 위한 사회의 노력이 필요하다.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인 인재 육성을 위해 학생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바람직한 가치관을 키워주는 교육이 요구된다. 이에 학교교육과정도 창의적 체험활동이 강화되고 글로벌사회가 요구하는 창의력

과 인성을 겸비한 훌륭한 전문인을 양성하는 교육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런 변화에 적응하는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학교 뿐만이 아닌 다양한 사회 주체와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학생들은 다양한 프로그램과 체험학습으로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미리 준비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동북아의 허브인 인천지역에는 매우 우수한 인적 자원이 있다. 이러한 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교육을 돕고, 기업·대학·공공기관·개인 등이 보유한 물적 자원을 학교 교육활동에 비영리로 제공한다면 교육수요자가 원하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우리교육청에서는 2012년부터 실시되는 주5일 수업제와 더불어 2012년을 교육기부의 해로 정하여 교육기부를 활성화하고자 한다. 인성을 겸비한 창의적인 인재 육성을 위해 교육청, 학교, 지역사회가 서로 협력하여 인적·물적 교육기부 자원 확보를 통한 다양한 학교교육활동을 기대해 본다.



젊을 때는 배우고, 늙어서는 이해한다. - 에스엠 바흐



학교별 교육기부 우수사례

교육기부가 우리 인천 교육에 뿌리 내려 활성화 되기를 바라면서 교육기부 우수사례학교를 소개하고자 한다. 학부모 교육기부를 실시한 인천개홍초등학교, 귀향대학생 활용 멘토링 기부를 받은 강화여자고등학교, 해병대 교육기부를 통해 학력향상을 한 교동중학교 이 세 학교의 사례가 인천 교육기부 활성화에 밑거름이 되어 확산되기를 바란다.



글 > 홍 호 석
인천광역시교육청
창의인성교육과 교감

[인천개홍초등학교]

「우리 부모가 달라졌어요」

인천개홍초등학교는 열악한 주변 환경으로 학부모들의 낮은 교육열과 자녀들에 대한 무관심으로 인성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영향으로 학생들이 산만한 학습 태도를 보이고 학업 성취도가 낮았다. 이에 “부모가 바뀌어야 아이가 바뀐다.”라는 모토 아래 학부모 교육을 계획하게 되었고 준비된 강사 김순진 학부모의 교육기부로 학부모 교육을 계획했다.

학부모 연수는 한국뇌교육센터 팀장 김순진 학부모(1학년 1반 박민서 학생의 학부모)의 기부에 의해 4차로 나누어 2011년 7월 14일부터 2011년 10월 10일까지 일회성이 아닌 체계적인 연수로 진행 하였다. ‘자기주도적 학습과 뇌교육’이라는 대주제 아래 1차는 학부모 연수의 내용과 방향, 2차는 소통과 배려, 3차는 사랑과 존중, 4차는 ‘나도 리더가 될 수 있어요’라는 소주제로 강의가 이루어졌다.



학부모 지식 기부

학부모 연수

또한 학부모 연수와 동시에 교직원과 학생을 ‘자기 주도적 학습’이라는 주제로 같이 진행하여 그 교육적 효과를 높였다. 교직원 연수는 2차로 구성하여 주입식 교육을 탈피하는 아이디어 배우기로 잠자는 뇌를 깨우기 위한 5분-아이들의 흥미를 배가시킬 수 있는 동기 유발 자료,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인생계획 세우기, 5분 학습 정리- 교과학습 복습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했다. 그리고 학생교육은 ‘자신의 발견과 자기주도적 학습’이라는 주제로 10월 31일, 11월 7일, 11월 14일로 계획되어 아침 자습 시간에 연수를 실시했다.

이러한 노력 끝에, 학부모님이 조금씩 변화하였고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교사와 아이들도 조금씩 변화했다. 학부모 연수 신청을 받을 때, 많은 학부모님

들은 2009 개정교육과정 변화나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에 대한 설명 연수가 아니어서 실망했지만, 「소통과 배려」라는 주제의 강의를 듣다보니 진정 잘 자란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생각해 보게 되었다며 좀 더 영악한 아이로 자라기를 희망했던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워졌다고 답했다. 그리고 자신만 아는 이기적인 모습의 아이들이 본인 같은 이기적인 부모로 인한 것 같아 가슴 아팠다고 했다.

아이가 어릴 땐 하루에도 몇 십번씩 하던 “사랑해”, “넌 엄마의 소중한 보물이야”라는 말은 아이가 커감에 따라 어느 틈에 사라지고 “공부해라.” “학원가라” “할 일은 다 했니?”들의 잔소리만 많아지며 아이들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것을 애써 모르는 척 해왔다고 하며, 이번 연수로 아이를 탓하기보다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주고 믿어주는 부모가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했다고 하셨다. 그리고 짧은 강의였지만 학부모로서 나와 세상 하나뿐인 내 아이를 다시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했다.

이 연수를 추진하면서 한 학부모의 작은 교육기부로 인하여 많은 학부모님들의 마음에 아이들과의 소통의 싹이 트고, 아이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을 보면서 작은 씨앗이 품고 있는 큰 희망을 보았다. 요즘 TV에서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보면 문제 있는 아이들 뒤에는 꼭 문제 있는 부모가 있다. 그것처럼 부모가 바로 서야 아이들도 바로 설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부모의 역할을 나 혼자 아닌 같은 부모의 입장에서 조언 받고 좋은 교육 방법을 함께 공유할 수 있다면 그 역시 뜻 깊은 일일 것이다.

이러한 멘토들의 노력의 결과 멘티들의 기초학력 실력은 향상되었고, 공부를 하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향을 잘 몰랐는데, 선배님들이 친절하게 같이 계획도 세우고 이끌어 주어서 방학동안 무엇을 이루었다는 뿌듯함이 남았다고 한다. 멘티들은 대부분 멘토링 기부교실 평가회에서 멘토 활동과 근무태도에 대하여 높은 점수를 주며, 다음에도 이러한 멘토링 교실이 있으면 꼭 참여하고 싶다고 했다. 또한 멘티들도 본인이 졸업한 학교에 와서 후배를 위해 공부를 지도하니깐, 본인들이 학교 다니던 옛 추억도

생각이 나고 아이들과의 대화 속에서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했다.

이러한 졸업생 대학생 멘토링 기부 활동이 많아진다면 학생들이 굳이 많은 사교육을 들이지 않더라도 맞춤형 개별 지도도 가능해 지며 학력도 많이 신장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이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를 회복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이러한 활동이 많아지고 활성화 되었으면 한다.



멘토링 수업 장면



귀향 대학생 멘토 현황



대학생 멘토 연수 장면

[교동고등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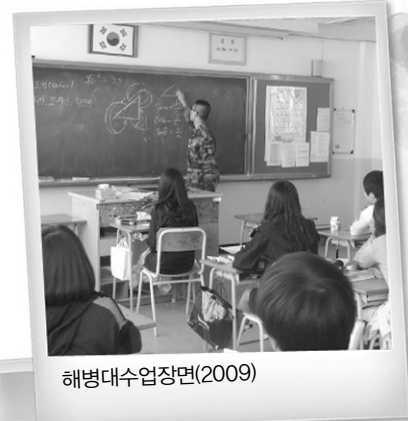
해병대 교육기부를 통한 학력 쑥쑥!

주민수 3천여 명의 작은 섬에 있는 교동고등학교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앞이 보이지 않는 학교였다. 교동고등학교 학생들은 섬마을이라는 지역 특성과 열악한 교육 환경으로 자신감과 의지마저 결여되어 있었다. 하지만 교동고는 2009년 24명 전원 합격, 2010년 20명 대학 합격, 2011년 12명 전원 합격이라는 쾌거를 이루었다. 과연 그 비결은 무엇일까?

이러한 뛰어난 성과 뒤에는 해병대 2사단 5연대의 교육기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물론 학교와 해병대, 뭔가 매치가 되지 않는 연결 조합이다. 그러나 해병대 장병들의 멘토링 교육기부는 사교육을 받을 수 없는 주변 환경 특성을 극복하며 학생들의 부족한 공부를 채워주는 역할을 하였다.

해병대 2사단 5연대의 교육기부는 특기적성 교육과 방과 후 교육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특기적성 태권도 수업과 교과프로그램(영어, 수학, 영어회화)로 운영 했다. 수업 시작 초기에는 처음으로 접해보는 해병대 특유의 카리스마에 아이들은 생소해했지만, 지금은 해병대 부원들의 확실한 멘토 역할로 인하여 진로를 찾는 데 많이 도움이 되었다고 해병대원들과 헤어지기 싫다고 한다. 또한 특기적성 태권도 수업으로 학생들의 군에 대한 신뢰가 증대되었고, 정신적으로 “하면 된다.”는 군인정신으로 무장할 수 있었다.

또한 ‘함께하는 해병대 병영체험’을 개최하여 특



해병대수업장면(2009)



해병대수업장면(2010)

수학급 학생들이 2인 1조가 되어 입혀주고 채워주기, 기본적인 제식훈련 등을 받았다. 이러한 생애 최초 병영 체험에 힘들어 주저앉기도 했지만 특수반 학생들은 서로를 도우며 재미있어 하였고, 건빵이 참 맛있었다고 했다. 학생들의 인지발달에 큰 도움을 준 이번 특수학급 해병대 체험은 일방 장병들도 장애아를 이해하고 봉사하는 정신을 고양하는 계기가 되어 봉사정신을 키우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교동고등학교는 인근 해병대 부대와 자매 결연을 맺어 학습코칭과 병영체험프로그램을 수년간 실시해 오면서, 그 교육적 성과를 인정받아 KBS 생방송 오늘, MBC 뉴스후, EBS 교육방송 사교육제로프로젝트 등 언론매체에 성공적인 공교육 사례로 많이 소개되었다. 그리고 언론에 방송 후 학교에 여러 가지 지원도 크게 늘고, 도시 학부모들로부터 입학과 전학 절차를 묻는 전화도 많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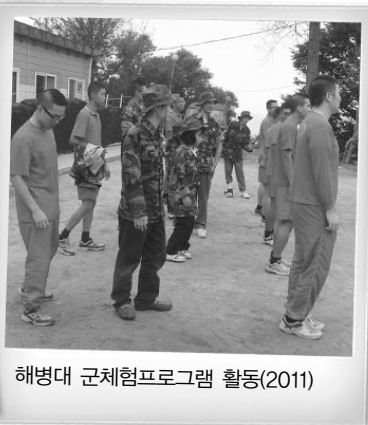
지역사회의 인적자원인 해병대 교육기부는 우선, 지역사회주민들의 군에 대한 신뢰감 강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 또한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학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 향상 방안으로써 제시될 수 있다. 앞으로도 민·군의 상호지원 교류를 상설화하여 MOU 체결을 통한 지원의 극대화를 꾀하는 등 체계화되어 일반화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태권도시범(2011)



해병대 군체험프로그램 활동(2011)



해병대 군체험프로그램 활동(2011)



글 > 이 준 석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
대표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은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은 2007년 서울과학고등학교 동문들이 모여 결성한 교육봉사단체이다. 처음 7명의 선생님과 15명 가량의 학생들로 시작했던 이 단체는 2011년 11월 현재 400여명의 선생님과 250명 가량의 학생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교육봉사단체로 발돋움 하였다. 그리고 이 400명이라는 수치는 여느 단체처럼 인터넷에 가입한 회원 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1주일에 4시간 이상 배나사의 8개교육장 중 한 곳에서 학생들에게 직접 교육을 행한 사람의 수를 말하는 것이다.

4년이라는 짧은 시간 사이에 배나사가 대한민국에서 으뜸가는 규모와 체계의 교육봉사단체로 발돋움 하게 된 원동력에는 배나사의 몇 가지 원칙을 충실히 지켰기에 가능했다. 그리고 그 원칙은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을 만큼 보편적이고 명쾌하다. 첫째로 학생이 해당 일자에 지정된 커리큘럼을 모두 마치고 집에 가야 한다. 둘째로 모든 학생은 배나사 내에서 자체 편성한 단일 커리큘럼으로 교육을 받으며 우열반 교육을 하지 않는다. 셋째로 모든 선생님들은 학생에 대한 교육과 단체의 운영 또는 연구 활동에 동시에 참여해야 한다.

약법삼장이라고 칭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이 간단한 룰은 지금까지 막연히 교육자들이 일반인들에게 쌓아 놓았던 벽을 허물겠다는 의지이기도 하다. 또한 위의 세 가지 원칙만 지킬 수 있다면 우리가 제공하는 교육의 품질은 기존의 것들과 비견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의 표명이다.

첫 번째 원칙-완전교육

배나사 교육장에 일단 온 학생은, 수업과 지정된 분량의 문제지를 모두 풀어내지 못하면 귀가를 하지 못한다. 교육을 업으로 삼지는 않는 사람들이지만, 배나사의 선생님들은 사회적인 평균보다는 월등히 공부를 잘해본 사람들이다. 따라서 교수법이라는 측면보다는 공부하는 방법이라는 측면에서 학생들에게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완전교육이라는 개념은 교육 봉사단체가 생존을 위해 선택한 교육지책이다. 교육 봉사단체의 가장 큰 적은 교육봉사단체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 학생들은 지금까지 무상교육 프로그램 등에서 ‘배려’를 가장한 방치를 무수히 겪어 왔다. 또한 어린 학생들은 자신에게 가르치려는 주체에게 적개심을 드러내거나 맹목적으로 반발하면 학습 기대치가 줄어든다는 것을 체험하고, 그러한 시도를 하게 된다. 하지만, 배나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엄격히 원칙을 지켰다.

이러한 원칙에 학생들은 처음에 강력하게 반발하기도 하여 새벽 4시까지 선생님과 함께 신경전을 벌일 때도 있다. 아이들이 자신들이 지금까지 학습을 피해오기 위해 써오던 맹목적인 반발, 사회적으로 방

배나사는 수 백명의 선생님이 활동하는 단체이고, 특이하게도 선생님들에게 활동 방식에 대한 집중 교육이나 안내를 제공하지 않는다. 대신 배나사가 꾸준히 지켜오고 있는 몇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그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그 원칙은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을 만큼 보편적이고 명쾌하다



치를 위해 용납되었던 사유들을 철저하게 철폐하여 엄격한 규율을 내세운 것 이것은 배나사가 끈끈히 뭉쳐올 수 있었던 원동력이다.

두 번째 원칙-평준화 교육

처음 배나사 교육을 받는 학생들은 불평하기도 한다. “선생님, 저는 학교에서도 C반인데 왜 여기서는 저에게 이렇게 어려운 것들을 가르치나요?” 이 말은 많은 것을 담고 있다. 배나사에서 평준화 교육을 지향하지만 하향 평준화 교육이 아닌 가장 위에 맞추는 상향 평준화 교육을 한다.

학생들은 대부분 현행교육에서 “배려를 가장한 차별”에 익숙해져 있다. A,B,C,D반으로 수학, 영어 수업 등에서 우열반 편성을 하여 C,D반 학생들에게는 정상교육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더러 있다. 학생들은 중학교 1학년부터 자신에게 부여된 그 작은 계급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원래 취지대로라면 각자의 능력에 맞게 가르치는 좋은 방향으로 가야하지만 그렇지 못하다.

한 사례로, 학교에서 간단한 지필고사로 ‘특수반’으로 판정하여 정상적인 수학 수업을 못 받은 학생이 배나사에 와서 수학을 배운 뒤 6개월 만에 20점대에서 89점으로 수학점수가 상승한 일이 있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이 학생이 부정행위를 해서 높게 점수를 받은 줄 오해하여 학생에게 상처를 입혔던 일이 있었다. 개별 사례를 놓고 현행 우열반 교육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적어도 내가 5년째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얻은 원칙은 평준화 교육이 중요하다라는 점을 알리고 싶다.

세 번째 원칙-운영과 교육에 모두 참여

배나사의 모든 선생님은 교육활동에 참여할 의무가 있다. 신입 선생님부터 단체의 대표자까지 봄과 가을에는 주1회, 여름과 겨울에는 주2회 교육에 참여한다. 그리고 이 외에도 운영이나 연구 중 택일하여 참여하여야 한다. 운영은 재무, 대외협력, 교사관리, 학생관리 등의 영역에서, 연구는 프로그래밍, 디자인, 교재개발 등의 영역에서 꼭 참여해야 한다.

이 원칙은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교육봉사자들에게 잘못된 사회적 대우를 해왔던 것을 바로잡기 위한 원칙이다. 지금까지 교육봉사자들은 학교나 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주체적으로 활동하기 보다는 수동적으로 교사나 복지사들의 지시 및 정해진 커리

클에 따라서 단순 봉사자의 역할만 수행하는 형태로 교육봉사에 참여했다. 교육봉사활동이 보편화 되기 위해서는 조금은 더 봉사자들이 자신들의 방향을 설정하고 주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해야한다. 배나사에서는 운영과 연구에 대한 의무 참여로 자신의 취향에 맞게 “프로젝트 활동”한다.

사회적 기업과 변절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의 모든 일은 자원봉사자에 의해 이루어진다. 실제로 이 거대한 단체의 대표자에게도 임의로 집행할 수 있는 활동비 또는 임금은 없다. 이 단체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사람의 자존심에 근거해서 운영되는 단체이기 때문이다. 현직 대학교 교수도, 일선 대기업의 과장도, 의사도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의 시간가치를 대가로 환산하려고 하지 않는다.

현재 대부분의 교육봉사단체는 설립자가 ‘취업’의 장벽에 부딪힌 후 사회적 기업으로 변신을 모색하며, 무상교육이나 자원봉사의 개념을 희석시켜 나가고



있다. 심지어는 교육봉사단체를 표방하는 단체가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1회 100만원정도 하는 학습 캠프를 개최한다고 최근에 광고하기도 했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에게 100만원씩 받아 좋은 일에 쓰겠다는 대외적인 포장을 아무리 한다고 해도 이는 참다운 봉사의 의미와 거리가 멀다.

배나사는 지금까지 이 변절에 대한 유혹을 많이 받아왔지만 단호하게 거절해 왔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유혹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자존심을 지켜나갈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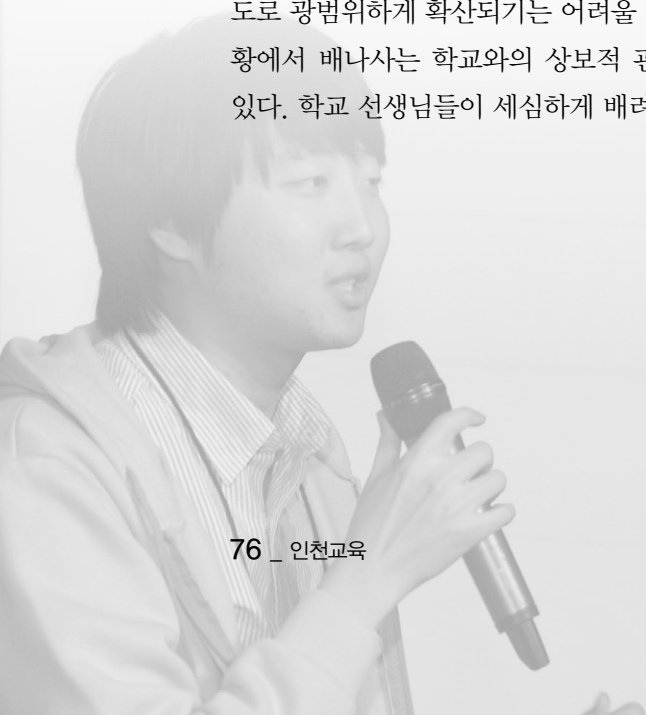
학교와의 상보적 관계

학생들은 종종 이야기 한다, “선생님, 배나사 학교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가장 싫어할 만한 수학, 과학만 가르치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편안함을 느끼게 하는 원동력은 학생 하나하나가 소외받지 않는 교육을 가능하게 해주는 다대다 교육의 힘일 것이다. 하지만 배나사가 공교육을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광범위하게 확산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배나사는 학교와의 상보적 관계를 희망하고 있다. 학교 선생님들이 세심하게 배려하기 어려운 수

학, 과학 분야의 교육기회가 부족했던 학생들을 끈질기게 가르쳐 내면서 학교 교육에서 아이들이 뒤쳐지지 않을 수 있도록 보탬이 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외로운 도전에서 희망의 중심으로

배나사가 2007년에 결성되었을 때, 교육봉사라는 모델 자체는 사회적으로 기피 받고 가능성이 없는 모델로 인식되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사회적 기업 육성’이라는 형태로 복지정책을 전환해 나가고 있었고, 교육기부도 그 범주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였다. 배나사도 솔한 사회적 기업 전환의 제안을 받았으나, 그 제안을 다 뿌리치고 비영리교육봉사단체로 남아있을 수 있었던 것은 자존심과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5년째에 접어든 현재, 배나사는 대한민국 교육봉사의 모델이 될만한 방식을 완성해 나가고 있다. 정·부 교사 제도나 전산화 도구, 운영/연구 참여 의무 등은 일반적인 대학생 위주로 구성된 단체들에게 차용되어 보편화 되어가는 추세이다. 앞으로도 참다운 교육봉사 단체들이 많이 활성화되었으면 하고, 이러한 역할에 배나사가 앞장서 나가야겠다고 다짐해 본다.



대학생 기부 멘토링 사례

‘공신’ 멘토링을 통해 얻은 소중한 경험



글 > 이 창 민
공신닷컴 회장

‘멘토링’이라는 단어가 대유행이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여러 사업들 뿐 아니라, 학원가, TV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멘토’, ‘멘토링’ 같은 단어들을 매일같이 접할 수 있다. 나는 비영리민간단체 ‘공신’에서 3년째 멘토링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처음 1년에는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습 멘토링에 참여하였고, 그 이후로는 프로그램 관리자로서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멘토링에 참여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봉사활동이나 기부에 대해서 여유 있는 사람이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눠주는 것으로 생각할 것이다. 나도 불과 몇 년 전까지는 봉사활동을 ‘주는 것’이라고 믿었고, 참다운 봉사나 기부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내가 성공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3년 전, 경희여자고등학교에서의 멘토링 경험은 나의 이러한 봉사와 기부에 대한 개념을 근본부터 바꾸어 놓았다.

경희여자고등학교에서 멘티들을 처음 만난 건 2009년 4월 말의 어느 날이었다. 대학교에 갓 들어와 선배의 권유로 교육봉사활동을 하기 위해 ‘공신’에 지원했고, 경희여자고등학교에서 처음으로 멘티를 맡게 되었다. 다른 멘토 한 명과 파트너가 되어 총 5명의 학생을 맡았다.



첫 만남 시간에는 아이들과 대화하는 것도 너무나 어려웠다. 수줍음 많은 여고생들은 오로지 묻는 말에만 예, 아니오로 대답하거나 우물쭈물하며 대화를 이어나가지 못했다.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한 나 역시 말주변이 없기는 마찬가지였고, 2시간동안 우리는 어색함과 긴장감에 어쩔 줄을 모르다가 헤어졌다. 그러나 짧은 대화 속에서도, 아이들이 공부의 ‘공’ 자도 모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밤 10시까지 야자를 하면서도 뭘 공부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아이들이 그려놓은 일주일 시간표에는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거의 들어있지 않았다. 시험기간에만 벼락치기로 공부해서 중위권 정도 성적을 겨우 유지하고 있는 아이들이었다.

아이들이 소극적이고 조용하다고 해서 나머지 언제까지고 소극적이고 얌전하게 멘토링을 진행할 수는 없었다. 우선 파트너와 같이 시간을 내서 서점에 가 아이들에게 추천할 교재를 골랐다. 각 과목별로

교재를 정하고, 적당한 분량을 정해 매주 숙제를 내 주었다. 일주일에 세 번씩 아이들끼리 만나서 서로 숙제와 영어 단어 외운 것 등을 점검하게 했다. 1주일에 2시간씩 정해진 시간에 찾아가 공부한 내용을 점검하고 잘 모르겠다고 하는 내용을 설명해 주었다. 그렇게 조금씩, 아이들은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

대학생의 시험기간이 끝난 후에는 자체적으로 대학 탐방 시간을 마련했다. 연세대학교를 둘러보고, 신촌에서 밥을 먹으며 어색함을 조

금이라도 날려보려 했다. 그리고 아이들의 시험기간에는 정해진 시간 외에도 따로 찾아가 시험공부를 도와줬다. 아이들 야자 끝나는 시간에 맞춰 경희여고에 찾아가 수학을 가르쳐 주다가 수위아저씨에게 나쁜놈(?)으로 오인받기도 했지만, 부지런히 찾아와 얼굴을 비치며 유난을 떠는 바람에 멘토링 프로그램을 담당하시던 선생님께서도 내 이름을 기억하시게 되었다.

멘토링을 시작한지 한두 달쯤 지났을까? 어느 날 갑자기, 아이들의 태도가 변했다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날씨가 화창하던 어느 날, 과학 시험범위에 해당하는 내용이 너무 어렵다는 말에 경희여고에 찾아가 아이들에게 과학을 가르쳐 주고 나오는 길이었다. 코앞에 닥친 기말 시험에 대한 걱정을 털어놓던 한 멘티가 “선생님이 고3 때까지 계속 와 주시면 안 돼요?”라고 물었다. ‘아, 이 애들한테 내가 필요하구나.’ 하는 깨달음은 하나의 충격이었다. 그와 더불어

나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멘토 교육 시간에는 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고기 낚는 법을 가르쳐야 좋은 멘토라고 배웠는데……. 그래도 차마 “안 돼”라고 대답할 수 없어, 이리 저리 말을 돌리며 대답을 피했다. 그리고 그 순간에, 그때까지 가지고 있던 책임감이나 사명감과와는 다른 아이들에 대한 애정이 솟아나는 것이 느껴졌다.

기말고사가 끝나고, 1학기 멘토링도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아이들이 가져온 시험 성적은 이전보다는 나아진 부분도 있었지만, 많은 과목이 그대로이거나 심지어 성적이 조금 떨어진 과목도 있었다. 아무래도 태도의 변화가 습관으로 나타나기에 한 학기는 너무 짧은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6개월 정도만 더 아이들을 만나면 뭔가 해낼 것 같은 기분도 들었다. 아이들은 당연히 멘토링을 계속하기를 원하고 있었고, 우리는 여름방학과 2학기에도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만나기로 약속했다.

생각과 달리 어영부영 여름방학이 지나가고 2학기가 시작되었다. 나의 파트너였던 멘토는 경희여고가 아닌 다른 곳에서 새로운 아이들과 멘토링을 하게 되었다. 나는 혼자서 5명의 아이들 중 3명을 계속 맡아 2학기 멘토링을 진행했다. 과목에 맞는 효과적인 공부 방법을 가르치기도 하고,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 하던 수학은 직접 교과 내용을 가르치기도 했다. 하지만 생각만큼 다 전달하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좀 더 꼼꼼하게 아이들의 생활을 점검하고 혼자 공부할 수 있도록 유도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남는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과 아쉬움 속에서도, 아이들이 확실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일상 속에 공부를 들

여놓기 시작했다는 점만은 너무나 다행스럽게 느껴졌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어느새 두 번의 시험이 지나고 12월이 되었다. 이제는 아이들도 혼자 계획을 세워 공부하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공신에서 새롭게 시작한 저소득층 학생 대상 멘토링에 참여하기 위해 2010년부터는 경희여고를 떠나기로 했다. 아이들에게 내년에는 계속 볼 수 없을 것 같다는 말을 전



하고 몇 주 뒤, 마지막 수업 시간이 다가왔다.

“드르륵”

교실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생각지도 못한 광경에 잠시 말을 잃었다. 온통 풍선으로 도배가 된 교실, 커다랗게 ‘선생님 사랑해요’라고 적어놓고, 온갖 낙서와 감사 인사로 가득 채워놓은 녹색 칠판, 책상 4개를 모아 만든 테이블 위에는 케이크가 놓여있고, 스피커에서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방송부였던 아이들이 교실에 음악을 틀어놓고 깜짝 이벤트를 준비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날 받은 편지에는 ‘선생님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나를 한없이 뿌듯하게 하면서도 끝없이 부끄럽게 만드는 말이 들어 있었다.

경희여고에서 1년간 봉사활동을 하면서, 나는 아이들에게 공부의 목표와 삶의 목표를 알게 하고 열심히 공부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려주었다. 아이들은 나 같은 사람이 되겠다는 말로 나를 평범한 대학

생에서 진짜 ‘선생님’으로 만들어 주었다. 그리고 대학에 막 들어와 상상했던 것과 너무 다른 전공 공부에 당황하던 내게 교육과 멘토링이라는 새로운 진로를 선물해 주었다. 남을 돕는다고 시작한 이 멘토링이 나를 되돌아보는 계기를 주었고 내가 몰랐던 나의 진로를 열어준 것이다.

지금도 많은 대학생들이 ‘공신’을 통해, 다른 교육 봉사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을 만나고 있다. 봉사활동, 특히 ‘멘토링’ 봉사활동에 담긴 보람과 주고 받은 가치의 오직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멘토와 멘티 자신들만이 깨닫고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맡았던 경희여고 1학년 학생들은 지금 고3학년이 되어 수능시험을 앞두고 있다. 시험에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쏟아내고 나올 수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시험 결과가 어떻든 간에, 아이들이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자신의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공신이란?

MBC 주말예능 ‘공부의 제왕’으로 유명한 공신 강성태가 설립한 소셜벤처. 2006년 대학생 동아리로 시작하였다. 현재 ‘(주)공부의신’에서는 공신닷컴(www.gongsin.com)을 통해 올바른 자기주도학습을 전파하고 있으며, 대학생 동아리이제 비영리민간단체인 ‘공신’에서는 저소득층 멘토링, 농촌 지역 학생 멘토링 자원봉사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인천의 교육기부 사례

찾아가는 행복문화포럼 기부 사례



글 > 안 귀 옥
행복문화포럼 대표 · 변호사

기부에 대한 패러다임이 변화하다

기부하면 자선 사업이나 공공사업을 돕는 것으로, 주로 돈이나 물건을 가진 사람이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서 대가 없이 내 놓는 것을 의미했다. 그래서 기부하면 구세군 냄비나 아프리카 어린이 돕기에 돈을 희사하는 방법 등이 떠오른다. 또한 봉사라고 하면 장애인시설에 가서 목욕시키는 봉사를 하거나, 경로당에 가서 빨래를 해드리는 것, 겨울철에 김장을 담가주거나 연탄을 나르는 것을 떠올린다. 이렇게 기존의 기부나 봉사는 기업가나 사회 지도자들의 사회적인 책임 내지는 윤리의 한 측면으로 강조 되었다.

하지만 사회에는 항상 더 가진 자와 덜 가진 자가 존재한다. 이는 꼭 돈이나 물건의 의미만을 포함하지는 않는다. 어떤 이는 시간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이는 건강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사람은 각자가 다른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다. 말을 잘 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고, 노래를 잘 하는 사람이 있는가하

면,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로 볼 때, 기부는 단순히 돈이나 물질을 준다는 의미를 넘어서 각자가 더 가진 것을 덜 가진 사람을 위해서 나누고 베푸는 것으로 확대될 수 있다.

미술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이 미술적 소질을 가지고 있으나 형편이 어려워 재능을 키워볼 기회를 갖지 못한 아이를 가르친다면 자신이 가진 재능을 펼치는 동시에 사회에 공헌하는 역할까지 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그가 길에서 담배꽂초를 줍는 봉사를 하는 것보다 같은 시간을 투자하더라도 인류와 사회를 위해서 더 큰 부가가치를 만들어 낸다는 점에서 더 큰 의의가 있다.

이렇듯 다양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그 가진 재능을, 소득생활이나 자아성취를 하는 것에서 나아가 그러한 재능을 덜 가진 이들에게 베푸는 나눔의 미학을 실천에 옮긴다면, 그 재능은 이 사회에서 한층 더 빛이 날 것이다.

각자가 가진 지식과 재능을 기부 받아서 창립된 행복문화포럼은 이렇게 기부 받은 지식과 재능들을 사회에 환원하는 일을 하고 있다.

교육기부를 통해 꿈을 키운다

행복문화포럼을 통해서 교육기부를 한 분들은 약 150명 정도가 되는데, 기부자의 면면을 보면 교육학 전공자인 전·현직 교수가 약 50여명, 전·현직 학교장과 교사가 약 50여명, 종교인, 법률가, 세무사, 의사, 약사, 아동문학가, 언론인, 사진작가, 이미지메

이킹강사, 스피치강사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 약 50여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교육기부자들은 각자가 할 수 있는 강의나 활동주제를 정하여 놓고, 초청하는 학교나 단체에 맞게 그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기부 받은 강연주제를 보면

행복의 조건, 성격을 알면 미래가 보인다, 행복학, 행복한 가정경영, 성공스피치, 우리는 변해야 산다. 부모가 함께 하는 체험학습과 입학사정관제도, 창의성이 성공을 부른다, 성공하는 부모, 무엇이 다른가, 행복한 사람은 1%가 다르다. 사랑의 가정 행복한 자녀, 부부가 행복해야 자녀가 행복하다, 내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영어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코치와 코치의 상담법, 가슴으로 다가가는 자녀와의 대화법, 내가 보는 나의 이미지, 타인이 보는 나의 이미지 등으로, 마인드 컨트롤에서 타인과의 커뮤니케이션 기법까지 다양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행복문화포럼은 당초에는 어느 포럼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장소에서 개최 하고 매월 한 번씩 회원이나 관심 있는 분들을 초청하는 형식으로 진행했다. 하지만 이러한 포럼 개최 방식은 기부 받은 지식을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는 취지에는 맞지 않아, 포럼 개최를 원하는 학교나 직장을 직접 방문해서 강연을 해주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이에 매월 일회가 아니라 강연기부자들과 시간만 맞출 수 있으면 한 달에 5회까지의 강연도 할 수 있게 되어 포럼 개최 횟수가 증가하였다. 또한 재능기부자 중에는 전문사진작가, 전문 진행인 등이 함께 하고 있어서 강연 자료들도 더 잘 보존되고 있다.

찾아가는 행복문화포럼 기부 사례



2011년 6월 22일에는
인천 고잔초등학교에서

“성공하는 부모, 무엇이 다른가?”라는 주제로 정갑순 신송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의 강연이 있었다. 강연내용은 아이를 양육할 때 부모 입장에서 아이를 판단하는 것이 아닌 아이의 입장을 이해하는 방법 및 아이의 무한한 잠재력을 개발하는 부모가 되기 위한 방법 및 습관 등에 대한 내용이었다. 약 200여명의 학부모들이 강연내용에 매료되고 자녀양육 기법에 감동받았다.



2011년 6월 30일에는
인천 신송초등학교에서

“창의성이 성공을 부른다.”는 주제로 재능대학의 문정화 교수의 강연이 있었다. 강연내용은 주입식 교육에 길들여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각기 다른 잠재력과 창의력을 꺼내어서 그 능력을 찾아줄 수 있는 부모 기법에 관한 실제 사례였다. 많은 학부모님들은 획일화된 내용만을 가르치는 주입식 교육을 안 하고 싶어도 그 방법을 몰랐는데, 부모가 먼저 창의성 기법을 배울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고 전하였다.



2011년 8월 19일에는
인천여자고등학교에서

“성격을 알면 미래가 보인다.”는 주제로, 안귀옥 변호사의 강연이 있었다. 그 주된 내용은 사회는 더불어 사는 곳이고,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는 자신의 주장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성격을 이해하고 대화를 해 나가야한다는 것이었다. 내 성격과 상대방의 성격이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해야만 융통성 있는 사회생활·가정생활을 할 수 있다는 강연에 참여한 학부모님들은 나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전하였다.



2011년 9월 20일에는
인천 송도고등학교에서

“행복의 조건”이라는 주제로 동화연구소 TODAY 오선숙소장님의 강연이 있었다. 그 내용은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구체적인 방법을 실습하는 것이었다. 이 강연에서는 강사의 강연내용을 보고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음악과 율동도 함께 하며 행복이라는 커다란 주제에 한 걸음씩 다가가게 하였다.



2011년 9월 24일에는
연수구 가정 어린이집에서

원장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인천스피치교육원 이도경원장의 “이미지 메이킹”에 대한 강연이 있었다.
내가 보는 나의 이미지와 타인이 보는 나의 이미지를 알아보면서 사회생활에서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2011년 9월 27일에는
인천성리중학교에서

인하대학교 사회교육학과 김영순 교수님의 “체험학습과 입학사정관제도”에 관한 특강이 있었다. 학부모님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입학사정관제와 그에 대비한 준비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줌으로써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올바른 진로교육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교육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제언

교육 기부는 기부 받은 강연을 통해서 행복 릴레이를 이어갈 수 있다. 이 행복감은 강의를 기부해 주는 분은 다른 사람에게 나누었다는 뿌듯함으로, 강연을 듣는 분은 무엇을 알았다는 삶의 기쁨으로 누릴 수 있다. 이러한 기쁨을 오래 누리기 위해서는 교육기부 및 재능기부를 한 사람들에게 동기유발을 가지게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한 가지 예로 기부한 시간을 금전으로 환산해서, 돈을 기부한 것과 마찬가지로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해 주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기

부금영수증을 받은 사람은 이를 통해 소득공제를 받게 하는 것이다. 재능기부자들에게 이와 같은 이익을 제공한다면, 재능기부를 통해서 보람을 느끼고, 간접적으로 소득을 늘리는 효과가 되므로 동기유발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이러한 사례는 태안 앞바다에서 유조선 침몰로 기름유출사고가 터졌을 때, 당시 기름제거에 동참하였던 자원봉사자들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주어서 소득공제를 받게 해주었던 일이 있다. 교육기부에도 이러한 사례가 시스템으로 도입된다면 더욱 활발한 교육기부문화가 꽃필 것이다.



교육은 사회라는 기계의 균형장치이자, 인간 조건의 가장 위대한 평등이다. - 호레이스만

현장중계

초·중·고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 집중 조명

최상의 인천교육 실현을 위한
『인천교육발전 4개 과제 토론회』

인천신흥중학교 교장 김 태 용

인천여자고등학교 교사 정 해 영

인천여자고등학교 교사 이 덕 한

인천여자공업고등학교 교사 김 홍 자

인천부일초등학교 교사 유 승 연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 교사 조 명 곤

초·중·고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 집중 조명

최상의 인천교육 실현을 위한 『인천교육발전 4개 과제 토론회』

현 / 장 / 중 / 계

초·중·고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



최상의 인천교육 실현을 위한 『인천교육발전 4개 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우리 교육청 학교정책과 정책기획팀이 주관하여 열린 이 토론회(2011.10.28. 인천하버파크호텔)에서는 교사, 학부모, 장학사, 장학관 등 총 160명이 참여하여 인천교육의 최대과제인 『교원행정업무경감 방안』, 『수업컨설팅장학 활성화 방안』, 『주5일제 성공적 정착을 위한 준비와 과제』, 『초·중·고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에서 제시된 의견은 향후 인천교육정책에 반영될 예정이다. 여기에 실린 내용은 4개 과제 중 『초·중·고 진로교육 활성화방안』에 관한 주제 발표자 및 지정토론자의 발표 내용 및 토의과정 일부를 소개한 것이다. (편집자주)

- 사회자 : 정해영 (인천여자고등학교 교사)
- 토론자 : 김태웅 (신흥중학교 교장)
유승연 (부일초등학교 교사)
이덕한 (인천여자고등학교 교사)
김홍자 (인천여자공업고등학교 교사)
조명곤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 교사)
- 분임토의자 : 손경희 (인천신흥중학교 교장) 외 21명
- 지도위원 : 남기중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정책과장)



정 해 영
(인천여자고등학교 교사)



이 덕 한
(인천여자고등학교 교사)

김 태 용
(인천신흥중학교 교장)

정해영 최상의 인천교육 실현을 위한 인천교육 발전 4개 과제 중 초·중·고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론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는 인천교육 발전에 대한 찬반을 논하는 자리가 아니라 진로교육을 활성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소중한 의견을 개진하는 자리입니다.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되고 좋은 의견들이 많이 창출되어 인천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부만을 강요하는 기성세대, 꿈이 없는 아이들

김태용 아이들에게 “너희들 고민이 뭐냐”라고 묻자 아이들의 대답은 충격적입니다. “꿈을 갖는 게 꿈이다.”라고 합니다. 2011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청소년 고민거리 중 39%가 공부이고 직업은 23%를 차지했습니다. 이것은 공부와 미래에 대한 염려들

이 우리 아이들을 짓누르고 있다는 의미죠. 우리 주변에는 대학을 다니면서도 현재 전공에 대한 회의로 재수나 편입을 고려하는 대학생이 많습니다. 이는 고교시절 자신의 특기나 적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대학을 진학한 결과지요.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이러한 소모적인 대학 진학 구조를 바꾸려고 노력하지만 현재의 진학교육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덕한 우리나라 현 진학 교육은 진로지도가 아닌 진학지도가 대부분입니다. 학생의 적성이나 흥미를 바탕으로 전공을 결정하기보다는 성적으로 합격할 수 있는 대학과 학과를 선택하는데 초점을 두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학생의 적성과 흥미를 고려한 진정한 의미의 진로지도는 형식적이거나 그 기능이 위축되고 마비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의 잘못된 진로지도의 방향을 대폭 수정하여 점수에 맞는 대학 안내를 배제하고 학생의 적성



김 홍 자
(인천여자공업고등학교 교사)

“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고 했는데
진로교육은 학생의 진로결정권을 쥐고 있는
학부모의 질을 넘지 못하는 건 아닐까요? ”

과 흥미에 따른 진로지도를 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특정 대학과 학과의 졸업이 사회에서의 성공을 보장한다는 인식이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팽배해 있으며, 실제로 우리 사회 구조에서는 어느 정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기존의 진학지도 틀을 유지하면서 진로 지도를 강화할 수 있는 진로진학지원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로교육 콘텐츠 가 필요하다

김홍자 지금까지의 진로교육이 학교중심으로 이루어 지다보니 학부모 진로교육에 대해서는 소홀히 해 온 것이 아닌가 합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고 했는데 진로교육은 학생의 진로결정권을 쥐고 있는 학부모의 질을 넘지 못하는 건 아닐까요? 실제로 학부모의 의지나 수준차에 의해 학생들의 진로교육 격차가 심해지는 현상을 보게 되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또한 진로교육에 관심을 가진 많은 교사들이 지적하고 있는 문제가 “콘텐츠가 없다”는 것입니다. 학교의 상담실마다 비치된 진로교육 CD나 책자가 있다 하나 과거의 과외활동인 비교육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대부분이며 진로교육 전문가에 의해 교육과정에 부합하게 제작된 교육자료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거죠. 즉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콘텐츠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리고 체험형의 진로교육이 활성화되고 있다 하나 학교 현장에서 그 부담이 만만치 않아요. 체험학습의 계획과 시행을 위한 행정적 처리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과 체험 장소의 동의를 구하는 문제, 체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생의 안전사고 문제 등 교사들을 어렵게 만드는 장애요소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죠. 사이버 상담을 활성화하고 전문가를 양성해야 하는 문제 또한 간과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익명성이 보장되면서 편안하게 상담할 수 있는 사이버 상담을 활성화하여 진



유 승 연
(인천부일초등학교 교사)

조 명 곤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 교사)

로지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들이 진로지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정해영 진로교육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참으로 많은 생각이 듭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진로교육을 연계하여 지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로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체계성과 위계성을 띠어야 한다는 생각이지요. 따라서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에서 진로교육이 어떻게 실시되고 있는지 간략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군요.

초등학교 진로교육의 실제

유승연 초등학교에서의 진로교육은 아이들에게 진로·직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창의적 체험활동은 초등학교에서 매우 의미가 있으며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진로교육은 다음과 같이 크게 두 방향

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째, 진로관련 학교 여건 및 학생 학부모의 요구, 지역사회 인적 물적 자원을 조사하여 특색사업을 설정하고 진로 교육과정을 작성하여 심의회를 거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과와 연계한 진로교육을 강화하고 있는데 교과시간에 진로교육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죠. 이것은 현재 학교 교육과정 상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교과(국어, 영어, 수학, 과학 등)와 진로교육 내용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과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교과 내용 속에 포함되어 있는 진로 교육적 요소를 보다 선명하게 부각하여 교과의 목표와 진로교육의 목표가 함께 달성될 수 있도록 하는 거지요.

또한 범교과, 자기주도적 학습과 진로교육을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어요. 2009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범교과 학습주제를 창의적 체험활동의 진로교육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학년군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자기주도적 학습을 학생들의 수준이나 교육적 요구, 학교의 실태 등을 반영하여 융통성 있게 진로활동과

연계하고 진로활동을 창의적 체험활동의 독립된 하위영역으로 설정하여 자기 이해를 바탕으로 직업 관련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요.

중등학교 진로교육의 실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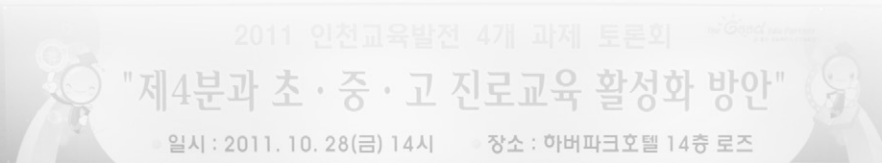
조명곤 중등학교의 진로교육은 교육청 주관과 학교주관 진로교육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선 교육청 주관 진로교육으로는 특성화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직업체험 학습실, 인천직업교육대제전, 특성화고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안내, 특성화고 직업교육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한 진로정보실 운영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학교주관으로는 진로시간 운영, 진로탐색프로그램 실시,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진로포트폴리오 활용에 대한 교육 등이 이루어지고 있지요.

고등학교에서는 학교마다 진로진학상담교사를

일반계고와 특성화고에 1명씩 배치하여 진로교육을 활성화하고 있으며 특성화고에서는 학교기업을 통한 진로교육을 강화하고 있어요. 특히 특성화고에서는 직업의식을 함양하고 취업진로지도를 위해 '취업캠프'를 운영하고 있고 청년층 직업지도 CAP 프로그램, JOB SCHOOL, 산학협력 코디네이터, 산업체 인턴반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덴마크 진로교육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정해영 진로교육이 학교중심에서 지역교육청과 지역사회 기관과 연계되면서 예전에 비해 많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로교육 활성화에 도움이 될 만한 외국의 사례를 찾아 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군요. 덴마크 진로교육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도 들려오던데요.



김태용 체계적인 진로교육을 위해서는 학생의 성장과 진로발달단계를 고려한 진로교육 목표체계와 교육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런 점에서 덴마크 진로교육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덴마크 진로교육의 목표 체계 중 ‘개인적 선택(personal choice)’ 영역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와 달리 진로교육이 체계적인 목표하에서 계통과 연계성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전환 시기(중학교 2~3학년)에 학교 밖에서의 기초 직업입문교육을 필수적으로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단위학교의 진로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정비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한데 이와 관련하여 덴마크는 의무교육 기관에서 후기 중등교육으로의 전환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전국 46개소에 청소년 진로지도센터를 두고 지역단위의 진로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덴마크의 사례에서 보듯이 우리나라도 지역단위의 진로교육 지원체제를 중장기적으로 확립해나가기 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덴마크와 같이 진로교육에 대한 주요 책무를 지역의 진로지도센터로 할 것인지 단위 학교의 책무성을 높이면서 이를 보조하고 지원하는 역할로 한정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 설정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과부의 현장 중심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

조명곤 우리나라도 진로교육의 체계화를 이루기 위한 단계별 진로교육 실시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교육

과학기술부가 제시한 현장중심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2011. 04)에 따르면 학생의 발달 단계 및 학교급별·계열별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진로교육을 활성화하여 직업세계와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본역량을 배양하고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 탐색, 상급학교 진학 및 직업 선택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진로교육을 강화하고 있지요.

또한 진로 관련 전문기관과의 유기적인 연계·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시·도 교육청과 일선학교를 지원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즉 학교에 진로진학상담교사를 배치하고 시·도교육청에 진로진학센터를 두어 교과부 및 전문기관과 연계하도록 추진하고 있는 거지요. 이러한 정책들이 교육현장에 맞게 잘 추진된다면 진로교육에도 많은 변화가 올 것입니다.

인천진로진학지원센터 마중물

정해영 교과부와 우리 교육청이 단위학교의 진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고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군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특히 진로진학지도를 지원하기 위해 「마중물」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마중물」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나요?

이덕한 인천진로진학지원센터 「마중물」은 거점학교를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주변의 학교들과 자료와 정보를 공유하며 학생들을 보다 효율적인 방법으로 지도하기 위한 진로진학지원시스템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첫째**, 대입상담자료 협력 학교를 중심으로 진로진학지도 협의체를 조직하여 지역별 거점학교를 지정하고 거점학교를 중심으로 진로진학지도 자료 및 정보 공유 등 진로진학지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어요.

둘째, 종합적 학력관리 및 상담지도를 위한 학년 연계형 진로진학상담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 학생 성적 및 개인 상담내용을 학년별로 연계하여 누계 기록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력 및 개인 이력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지요.

셋째, 복잡하고 다양한 대입제도에 따른 교육수요자의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제공 요구에 부응하고 일선학교 교사에게 대학입시 지도의 노하우를 제공 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대입지도가 이루어 질 수

있는 상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넷째, 대교협 『One-call 시스템』과 연계하여 맞춤형 상담을 실시하고 대교협 중앙 상담교사단과의 연계활동으로 정확하고 신속한 대입정보를 제공하며 EBSi를 활용한 온라인 상담과 FAQ, Q&A 작성을 통하여 맞춤형 대입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요. 특히 인천광역시교육청 신관 4층에 진로진학상담센터를 설치하여 학생, 학부모에게 1:1 맞춤형 진로진학상담을 실시하고 Triple-A(Anytime, Anywhere, Anything) 상담체제를 구축하고 있지요.

다섯째 학교 급별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소질과 적성 중심의 진로 선택을 위한 체험 위주의 진로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단위학교의 진로교육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사회와 연계한 진로 체험 및 견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찾아가는 진로진학 지도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진학지도 자료 제공을 위해 주요대학별 전형계획을 다각도로 분석 정리하여 일선학교 진학지도 교사들에게 고품질의 입시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입시지도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진로진학지도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방면에서 현장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로교육의 방향 및 활성화 방안

정해영 「마중물」이 인천진로진학교육의 교두보로 더욱 성장하길 바라며 앞으로 학생들의 진로진학지

도를 위해 학교 현장에서 「마중물」을 많이 활용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앞으로 우리 인천 진로교육이 나가야 할 방향이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제식 평가 체제 개선, 교육의 다양성 확대

김태용 우선 수업 및 평가 방식에 변화가 와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단위학교에서 진로교육의 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현행 상대평가 방식의 내신제도 개선과 일제식 학년별 평가 체제를 학급별(교사별) 평가로 점차 전환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는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으로의 변화를 통해 변화된 수업과 평가의 과정에서 이전의 일방적인 전달 방식의 강의식 수업에서는 발견하지 못했던 학생의 전공 의지와 열정, 흥미와 잠재력 등에 대한 관찰과 정성적 평가가 비로소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교육의 다양성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교육의 다양성 확대는 학생들이 학교교육을 통하여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발견하고 이에 따른 진로탐색과 준비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기반입니다. 특히 고등학교 시기는 공부하고 싶은 관심 분야와 대학 및 학과의 선택, 직업 선택 등에 대한 기본적인 탐색과 결정이 이루어지는,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다양한 교육 경험의 제공과 선택권 보장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평준화의 기초는 유지하되 교육내용, 교육과정의 다양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셋째, 요즘 많이 유행하는 입학사정관제도에 대한 개선입니다.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말을 많이 하지만 실제로 입학사정관으로 대학을 가려는 아이들은 소수이기 때문에 대입전형에 있어 지원조건을 다양화하고 사정관 전형에 많은 학생이 지원하고 선발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입학사정관제도가 다양한 스펙이 아닌 결과 중심에서 경험 중심으로 갈 수 있어야 합니다.

2009 개정 교육과정 운영 취지에 걸 맞는 실제적인 진로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진로와 직업』이라는 과목이 선택과목으로 채택될 수 있어야 하고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의 진로인식 변화를 위한 연수 확대와 다양하고 풍부한 진로정보가 제공되고 공유되어야 합니다.

발달 단계별로 차별화된 진로활동

유승연 학부모, 학생, 교사의 진로교육에 대한 인식 강화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부모와 학생에 대한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전 교사의 진로관련 연수를 강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학년별, 발달 단계별로 차별화된 진로활동이 필요합니다. 교사, 학생의 역할과 비중을 고려하여 담임교사 및 자원인사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한 단계, 교사와 학생이 협력하여 실천하는 단계, 학생들이 주도하는 단계로 나누어 교수·학습활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다양한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홍보가 필요한데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학교 안팎의 다양한 장소에서 주말, 방학 등 다양한 창의적 체험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창의체험자원지도(CRM)의 보급 및 적극적인 홍보,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유관기관과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진로활동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교육과정과의 연계를 강화한 창의적 체험활동 방법에 대한 매뉴얼이 보급되고 진로활동과 자율·동아리·봉사활동과의 연계 통합 운영을 유도하며 진로영역 평가에 대한 시스템도 구축되어야겠지요.

그 학생의 특성에 맞게 진로 선택

조명곤 단위학교에서 진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진로에 대한 이론 교육과 더불어 진로지도에 대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활동 중심의 진로 프로그램이 개발·보급되어야 합니다. 둘째, 학교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대하여 고민하고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진로 상담실과 진로자료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게시판을 설치하여 진로 정보를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셋째, 학생들에게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자신의 능력과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진학을 결정하도록 하며, 학교 및 다양한 형태의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지난 2011년 10월 24일 서울교육연수원에서 이명박 대통령께서 전국 692개교 특성화고, 마이스

터고 진로교육 부장교사와 간담회를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학력사회는 끝났다, 앞으로는 능력사회, 경력중심의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로교육이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고 봅니다. 이제는 성적이 아닌 그 학생의 흥미와 적성, 능력에 따라 그 학생의 특성에 맞게 진로를 선택해야 합니다.

진로진학상담교사의 자리매김이 중요

이덕한 대학입시의 자율화 정책에 따라 대학별 전형 방법이 다양화 되고, 새로운 유형의 전형 방법이 계속 만들어지면서 대입전형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입학사정관제 등 선진형 대입제도가 도입되고 다양한 학교와 직업이 등장함에 따라 적성과 소질을 바탕으로 한 진로진학 지도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여 일선학교 교사에게 대학입시 지도의 노하우를 제공하며 효과적인 대입제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시 정보를 제공하는 진로진학지원센터를 운영해야 합니다. 또한 학교 현장에 전문성을 갖춘 50명의 진로진학상담교사가 배치되고 앞으로 더 확대될 예정인데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그렇지만 처음 진로진학상담교사가 학교에서 어떻게 자리를 잡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떠한 여건 속에서 어떤 역할을 어떻게 수행하느냐에 따라 진로진학지도의 성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마중물」은 진로진학상담교사가 학교에서 역량

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단위학교 저변에 깔려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진로진학지원센터로서 구체적인 진로진학지도방안을 마련하여 단위학교에서 효율적으로 진로진학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관리자의 철학과 지식, 추진 의지가 절실

김홍자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을 미시적 방안과 거시적 방안으로 나누어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처럼 학력에 치중하는 상황에서는 초등학교 시기에 진로를 탐색해보는 활동을 강화해야 합니다. 교사가 교과 속에서 나름대로 지도하는 것은 피상적인 내용에 그칠 수도 있으므로 초등학교도 중등처럼 단독으로 진로담당자연수를 실시할 필요가 있어요. 진로전문가를 양성하여 학생, 교사, 학부모를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진로교육을 활성화시킨다면 평생교육의 의미인 진정한 진로교육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중학교의 진로교육은 방과후 수업으로 평일에는 체험중심의 진로교육을 실시하기가 어렵고 학력을 우선하는 여건 때문에 진로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토요일무일에 동아리 또는 학급별로 진로체험교육을 실시하고 동아리활동 시간에 창의체험활동의 일환으로 체험중심의 진로교육을 실시하며 교육청 단위의 ‘찾아가는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교육기부(또는 재

능기부)와 연계해야겠습니다.

고등학교의 경우 창의적 체험활동의 활성화와 각 학교별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로 인하여 제도적 준비는 되어 있다고 보이나 현장에서는 아직도 진학 위주로 모든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로활동이 실질적인 활동이 되도록 교육과정 내에 반영하고 적극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관리자의 진로교육에 대한 철학과 지식, 그리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가장 절실합니다. 이를 위해 교장평가나 학교평가에 진로교육 분야를 비중 있게 반영하는 방향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진로교육은 인생의 행복을 위한 것이어야

거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진로교육은 평생교육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결국 인생의 행복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대학 진학률을 보이는 이면에는 학력차로 인한 임금격차라는 사회구조적인 문제가 배후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진로교육을 미래 직업에 대한 준비에만 너무 초점을 두지 말았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한다는 것을 함축하며 학생들이 자신의 삶을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들도록 돕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중·고등학교는 대학 준비에 초점을 두고 대학은 직업 준비에만 초점을 둔다면 학생들이 현재의 삶 그리고 학교생활을 즐길 여유가 없게 됩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는 학문적 교육과 직업교육 간의 균형, 그리고 현재와 미래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일입니다. 물론 그 균형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각 학생의 요구에 맞게 어느 정도는 유연성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정해영 지금까지 인천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현장의 문제를 진단하고, 초·중·고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논의된 내용들이 우리 인천교육 정책에 반영되고 현장의 교육에 침투되어 인천교육 발전에 크게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토론을 주의 깊게 지켜보신 남기종 학교정책과장의 말씀을 끝으로 토론회를 마칠까 합니다.

남기종(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정책과장) 우리 교육이 해결해야 하는 많은 현안중에서 특히 학생들의 진로교육은 매우 중요합니다. 과학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사회 환경과 직업의 세계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입학사정관제를 비롯한 입학전형이 다양해진 가운데 좀 더 전문화되고 체계적인 진로진학지도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보다 현장에 밀착된 진로교육 활성화 정책을 펴고자 하는 의미에서 마련되었습니다. 분임토의·주제토론·종합토론에 걸쳐 펼쳐진 열띤 토론이 우리 진로교육에 대한 관심이고 열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는 급변하는 사회와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본역량을 키워주고 창의·인성교육을 통해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길러줘야 합니다. 또한 학생들이 미래에 대한 꿈을 갖고 학교에서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활기찬 곳이어야 합니다. 진로교육을 활성화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보인 열기가 학교 현장에 그대로 파급이 되어 우리 인천교육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천교육 정책

100

학교평가단 활동을 마치며

인천교육대학교 교수 최 선 영

105

특성화고의 선취업 후진학 정책

인천광역시교육청 정보직업교육과 장학관 이 종 윤



학교평가단 활동을 마치며

글 > 최 선 영
경인교육대학교 교수

우리나라 학교평가는 1995년 5.31교육개혁에서 학교평가 정책을 제안하는데서부터 시작되었다. 이후에 1996년부터 학교평가 모형을 연구하는 등의 평가기반을 조성하여 2000년 학교평가의 시범평가가 이루어졌다. 2001년부터 2003년은 중복성 문제와 국가수준 학교평가의 적절성 문제로 일시 중단되다가 2004년부터 시·도교육청의 교육시책 중심 평가로 이루어지고 있다. 2004년 이후부터 국가 수준에서 학교평가 결과를 통해 학교의 질적 수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학교평가 공통지표 개발을 위한 노력도 계속되어 왔다. 2010년에는 2006년에 개발된 공통지표를 분야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한 공통지표를 적용하여 평가가 이루어졌다.

현재 학교 교육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존중하고 교육성취도를 높여갈 수 있도록 교육본질에 입각하여 서면(자체)평가와 방문평가를 병행 시행하고 있다. 이때, 서류에 의한 확인이나 평가를 지양하고, 학교교육의 투입, 과정, 결과를 반영한 학교교육활동을 총체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학생이나 학부모의 만족도 조사를 병행하여 학교평가의 공정성과 다각적인 평가를 위한 개선에 힘쓰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우선 학교평가의 의미와 개선점에 대하여 살펴보고 학교평가단에 편성되어 활동하면서 느낀 점에 대하여 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

1. 학교 평가의 의미

평가란 모든 정책, 계획의 수행 과정과 결과의 산출에서 반드시 필요한 활동이다. 평가 없이는 계획이나 정책 수행의 성공 여부를 알 길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다음 계획을 바르게 수립하는 일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평가 활동은 모든 일에서 가장 중요한 활동 중의 하나라고 해야 할 것이다(배호순, 1994).

이러한 측면에서 학교 평가는 학교운영에 관련된 제반 구성요소와 기능의 교육적 가치와 목적 그리고 수행 과정과 효과를 단위 학교가 자율적으로 평가함으로써 학교 교육을 개선하는 데 필요 불가결한 요건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학교의 발전과 개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학교 교육에 대한 책무성의 요구 측면에서 볼 때도 학교 평가는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각급학교와 교육청에서는 학교 평가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평가 준비로 인한 부담 등으로 교육의 질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학교 평가란 본질적으로 교원에게 부담을 주는 일 이어서 실제로 학교와 교사는 거의 매년 실시되는 학교 평가 준비를 위해 자체 서면 평가 보고서와 부수적인 관련 자료를 작성하는 데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평가가 학교나 교사에게 유용하게 활용되지 못하면 학교 평가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팽배해질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계속되어오고 있다. 이러한 노력과 더불어 학교평가의 목적에 무게를 두고 생각한다면 학교평가의 필요성에 긍정적인 공감대가 형성될 것이다.

학교평가의 목적은 무엇보다도 **학교가 스스로 계획한 교육활동을 얼마나 잘 성취하였는가를 분석 평가하는 활동을 통하여 학교 교육활동의 효율성과 책무성을 제고하는데 있다.** 학교평가를 통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 단위학교의 장점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과정인 것이다.

둘째, 시도교육청의 교육방향의 구현 및 지원 체제 확립을 위해서이다. 시도교육청은 단위학교 개선 및 교육시책 수립 시 현장성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교육의 수요자인 학생 및 학부모의 요구 사항을 이해하고 교육시책의 개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셋째, 자율적, 창의적 교육활동 촉진을 통한 교육 현장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이다. 단위학교에서는 자체 문제를 스스로 진단하여 문제점 및 미흡한 분야를 수정·보완하여 학교 특성에 맞는 변화를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수 교육활동 사례의 발굴 및 일반화를 통한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이다. 평가과정에서 발굴된 특색사업이나 우수사례는 평가결과 보고서 발간, 홈페이지 탑재 등으로 확산 보급하여 학교교육의 질 관리와 교육개선의 피드백 자료로 적극 활용하고 미흡한 학교의 개선을 지원할 수 있다.

2. 학교평가의 개선 노력

학교평가 개선안은, 기존의 학교평가가 학교 간 과열 경쟁에 따른 과도한 업무 부담을 유발하고, 평가



결과가 학교교육 개선에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오던 문제를 개선함으로써, 평가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면서 학교평가의 본질에 충실한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평가의 주체가 되는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학교평가는 다음과 같이 진화 발전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첫째, 평가 목적 면에서 책무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다. 둘째, 평가의 주체면에서 중앙정부에서 지역 중심의 평가체제가 구축되고 있다. 셋째, 평가내용면에서 객관적인 교육성과를 강조하고 있다. 넷째, 평가 방법면에서 지표와 절차를 간소화하여 학교의 부담을 줄이고 행정의 효율성을 추구하고 있다. 다섯째, 평가 결과 활용면에서 책무성 제고라는 목적에 부응하는 형태로 활용되고 있다(홍창남 외, 2011).

이를 바탕으로 다음의 개선 사항에 대하여 좀 더 깊은 성찰이 이루어지고 학교평가가 학교의 교육활동을 자극하고 이끌어주는 ‘완성된 과정’이 되기를 희망한다.

첫째, 2010년도까지 적용된 공통지표 중심의 학교평가는 많은 장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정성지표 중심으로 평가했기 때문에 평가를 위한 학교의 부담이 과중하였다. 또한 우수한 평가 위원의 부족과 예산의 영세성 등 학교평가 여건의 미흡으로 평가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NEIS나 학교정보공시시스템 등 교육정보 시스템 탑재자료 및 기타 각종 정책자료를 활용하여 평가결과에 대한 공정성, 객관성,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학교평가는 교실수업의 개선활동이 가장 중시되는 학교 문화가 조성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을 두어야 하며, 학교평가 영역 및 내용에 대해서는 양이 너무 광범위하므로 교실수업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영역을 중심으로 단순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학교평가의 방법 및 절차를 더욱 간소히 하고, 학교평가의 결과는 학교교육 개선을 위한 효율적인 피드백과, 평가결과에 따른 행·재정 조치를 강화하고 우수사례를 벤치마킹 하는 등 실질적으로 학교교육 개선에 활용되어야 한다(지광식, 2010).

셋째, 학교는 학교평가 이외에 수행하는 학교교육활동에 대해 스스로 평가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받는다. 즉 학교평가를 위해 단위학교의 교육활동 평가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준들이 구조화되어 있어야하며, 교사 스스로 교육활동의 평가 수준을 파악하기 쉽게 작성되어야 한다. 즉 평가 영역과 내용

“ 평가란 모든 정책, 계획의 수행 과정과 결과의 산출에서 반드시 필요한 활동이다. 평가 없이는 계획이나 정책 수행의 성공 여부를 알 길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다음 계획을 바르게 수립하는 일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평가 활동은 모든 일에서 가장 중요한 활동 중의 하나라고 해야 할 것이다 ”



은 모호하고 추상적이기보다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어야 하며 평가의 내용은 전달하거나 상호 의사소통하기 쉽게 코드로 정리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평가 영역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 목표를 분명하게 제시해주어 학교평가에 대한 교사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

끝으로, 학교의 자체적인 개선 노력을 지원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되어야 되어야 한다. 학교 평가를 주관하고 담당하는 독립적인 기관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전문 인력도 상당수 배치되어 평가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수평적인 관계에서 전문적 자문과 개선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민간 전문가를 확보해서 평가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

3. 학교평가단 활동을 마치며

지난 10월 중순부터 약 일주일에 걸쳐 관내 초등학교 학교평가단으로 현장실사(정성평가)에 참여하였다. 2012년부터 시행될 학교평가 개선안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2011.3.18)의 취지에 따라 학교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정성평가 중심이었던 평가지표를 학교정보공시 자료 및 교육통계 자료를 활용하는 정량평가 위주로 전환하고, 현장방문평가의 비중도 간소화했다는 점에서 학교 현장에 긍정적이라 생각되었다.

그리고 모든 학교를 일괄적으로 평가하여 서열화하는 상대평가를 지양하고, 학교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평가가 되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평가대상 학교를 1/3씩 구분하여 3년 주기 1회 평가를 한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겠다. 이는 학교 현장에 업무 부담을 줄이면서 방문평가의 적합



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분량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다만, 몇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개선안에서 언급되었듯이 질적평가 보다는 양적평가의 비중을 높이다보니 평가자 입장에서 볼 때 질적평가의 우수한 점을 부각시켜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것 같다. 요즘 학계에서도 양적 연구보다는 질적 연구가 부각되고 있는 추세이고 실제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평가 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 학교 평가의 목적이 문제에 대한 진단과 지원을 통해 학교 교육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있다고 본다면, 어떻게 피드백을 체계화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도 해야 할 것 같다. 예를 들어 정성평가에는 학교마다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운영하는 항목이 있는데 평가 학교마다 방법들이 다양하기도 하였지만 잘못 이해하여 접근하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피드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평가로써 그치고 만 것 같아 평가의 피드백 방안에 대하여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요즘 교육계 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평가란 말이 가장 많이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가하는 측과 평가받는 측 모두 과중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금의 급변하는 시대 속에 학교교육도 병행하여 변화를 추구해야 하는 시점에서 진화·발전하는 학교평가란 논제는 매우 시기적절한 것 같다. 교육활동을 전개하는 모든 교육시스템이 얼마나 잘 적용되고 있는가를 알아볼 수 있는 효과적인 평가 방안 모색을 기대하는 바이다.

〈 참고문헌 〉

- 배호순(1994). 프로그램 평가론. 원미사
- 지광식(2010). 초등학교 학교평가 지표의 내용 분석 및 평가체제에 대한 교원의 인식 조사. 계명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홍창남, 이쌍철, 김혜진, 주철안 (2011). 주요국의 학교평가 체제 변화 연구. 교육행정학연구. 29(2), 363~389.
- 인천광역시 교육청 (2010). 2010학년도 학교평가 추진계획 보고서.
- 한국교육개발원 (2010). 학교평가위원 연수자료집.

특성화고 선취업 후진학 정책



글 > 이 종 윤
인천광역시교육청
정보직업교육과 장학관

특성화고 위상이 달라지고 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지식기반사회의 고도화, 직업의 빠른 분화와 직종의 다양화, 일자리의 미스매치, 청년 실업률의 증가와 고졸 인재 채용 확대 등 사회 경제적으로 다양한 변화를 겪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직업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특성화고의 인식과 교육목표에 큰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 특성화고 직업교육은 사회적으로 개인의 소질과 적성 보다는 성적이 낮은 학생이나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주로 진학하는 곳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으로 기피 현상이 있었다.

하지만, 최근 ‘학력철폐와 공정사회 구현’이라는 화두가 제기되면서 그 위상이 크게 달라졌다. 우수한 신입생들이 몰리는데다 졸업생들은 취업 전선에서 선전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에서 올해부터 고졸자를 뽑아 4년간 사내 양성교육을 실시한 뒤 대졸 직원들과 똑같이 대우하는 새로운 인사제도를 도입한 것도 이러한 변화를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우리가 잘한다는 평가를 받아야 후배 고졸 직원들을 더 많이 뽑을 것 아닌가요?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아야 하는 것이 가장 큰 부담’이라고 말하는 이들에게서 기성세대들이 쌓아 올린 학벌(學閥), 학력(學歷)의 후진국형 장벽이 허물어져 가고 있는 희망을 보게 된다.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선취업 후진학’ 정책은 특성화고 교육목표에 대한 분명한 정책 목표를 제시하며, 특성화고 졸업생의 진로가 대부분 진학 위주여서 취업률이 극히 저조한 현상과 중소기업의 구



인난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따라서 본 원고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선취업 후진학’ 정책의 개관 및 주요 내용을 살펴 고교 진학을 앞두고 있는 중3 학생, 학부모, 담임교사 등에게 소중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선취업 후진학 정책의 개관 및 주요 내용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선취업 후진학 정책의 개관과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영역	주요사업	담당부서
선취업 역량 제고	1.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 2. 산업체 우수 강사 채용 지원 3. 직업기초능력평가 도입 4. 과정형 공인민간자격 도입 5. 1교 1사 산학협력 지원 사업 6. 시·도 교육청과 특성화고에 취업지원센터 구축 7. 특성화고-산업체-전문대 연계 사업(기술사관) 8. 우수기능 전수 사업	중소기업청
선취업 지원 확대	1. 취업계약 입학제도 및 취업인턴제 세액 공제 2.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 3. 공공기관 채용 목표제 도입 4. 산업기능요원제도, 기술병 및 부사관 제도 5.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취업자 입영 연기 6.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7. 우수 기능인 처우 개선 8. 국민기초생활수급 제도 개선 9. 기능인재추천제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국방부 국방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후진학 지원 확대	1. 재직자 특별전형 제도 2. 저소득층 우수학생 장학사업 3. 사내대학 4. 계약학과 및 산업체 위탁교육 5. 기술대학 6. 학점은행제 7. 폴리텍 대학 8. 직업능력개발사업 9. 선행학습이수인정제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검토중

1. 취업 역량 제고

가.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

- 특성화고 졸업생의 '선취업 후진학' 체제 강화를 위해 '11학년도부터 특성화고 재학생 모두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12학년도부터는 특성화고의 직업교육 정책의 목표가 취업 촉진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이와 관련한 시·도교육청의 책무성을 강화할 것임
- 재원 분담은 중앙정부 50%, 시·도교육청 50%로 약 3,160억원 지원 예정

나. 산업체 우수강사 채용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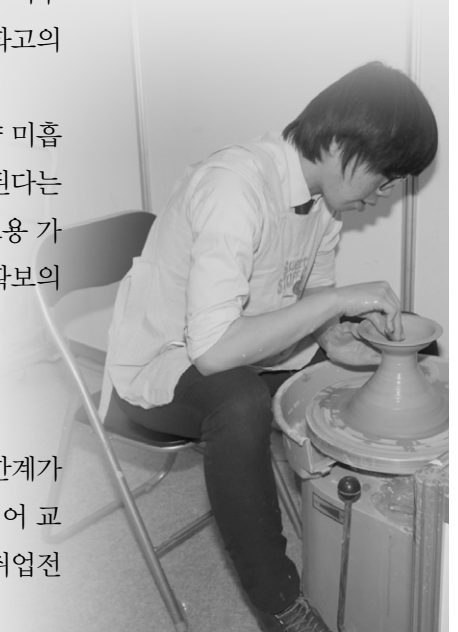
-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장수요 맞춤형 기술과 역량의 전수를 위해 산학협력 인턴교사, 취업지원관, 산학겸임교사 등을 채용하여, 현장 전문가로서 학생들이 직무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생들에게 취업에 대한 역할 모델로서 취업에 대한 동기 부여, 학교와 기업을 연결하는 등의 지원
- '11학년도 330명, '12학년도 1,000명으로 확대 지원 예정

다. 직업기초능력 평가 도입

- '12학년도부터 특성화고·마이스터고는 현행 시행되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대신 직업기초능력 평가로 대체하여 대부분의 직업에서 성공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공통적인 능력을 평가할 예정으로, 특성화고의 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 회복 및 교육 책무성을 강화할 것임
- 이는 기존의 교과중심 교육으로 예비 직장인으로서의 직업기초능력 함양 미흡 및 고교 졸업 후 취업 시 현장 적응력이 떨어지고 기업의 생산성이 약화된다는 우려에서 도입되었으며 학생에게는 직업세계로의 원활한 진입 및 평생고용 가능성을 높여주고, 기업에게는 채용 대상자의 직무역량 강화로 경쟁력 확보의 긍정적 효과가 있음

라. 시·도 교육청과 특성화고에 취업지원센터 구축

- 시·도 교육청과 특성화고 담당자의 업무 폭주로 취업관련 업무지원에 한계가 있어 시·도 교육청과 특성화고에 취업지원센터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교육청 차원에서 특성화고 취업지원 체제 구축을 지원하고, 특성화고 내 취업전





답조직을 구성해 체계적인 취업 업무를 추진하기 위함(인천교육청 '11.6월 설치)

- 교육청 차원에서는 자치단체와의 협력, 대한상의, 산업단체 등과 협력, 산업체 방문 등 일자리 확보, 취업률 제고를 위한 장학지도 등을 추진하고, 단위학교에서는 취업역량 프로그램 도입, 기업체 연계 활동 및 산학관 협력, 취업자문위원회 운영, 산업체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교원 직무연수 및 취업역량 강화 등의 취업관련 업무 추진

2. 취업 촉진 제도

가. 취업계약 입학제도 및 취업인턴제 세액 공제(기획재정부)

-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재학생 대상 취업계약 입학제도 및 취업인턴제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세액 공제하여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취업을 활성화하려는 정책으로, 현행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제도를 활용하여 추진
- 인력개발비로 인정하여 현행 중소기업 25%, 대기업 3~6%의 세액 공제 한도를 상향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



나.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기획재정부)

-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생 채용에 대하여 별도의 강화된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 기준을 마련하여 취업을 활성화하려는 정책으로, 현행 임투세액공제와 병행하여 추진 예정
- 청년 근로자(15세~29세) 1인 채용 시 현행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를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다. 특성화고·마이스터고 공공기관 채용목표제 도입(기획재정부)

- 「학업·취업 병행 교육체제 구축방안('11.1.19,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생의 취업 확대를 위한 선도적 역할을 당부, 이에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각각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기술(능)직·사무직 신입사원 채용의 일정 비율을 자율적 목표로 정해 채용
- 공공기관 경영 평가 시 평가 항목에 채용목표제 도입 및 이행 여부 반영 검토

라. 산업기능요원제도(국방부, 병무청)

- 병역 의무자가 산업현장에서 일정 기간 제조·생산 활동 등에 종사할 경우 군복무를 대체하는 제도로, 특성화고 졸업생의 안정적인 경력 개발과 기업체의 고용 유도를 위해 산업기능요원 업체 선정 및 인력 배정 시 산학연계 협약 업체 우대 방안 마련
- 취업활성화를 위해 산업기능요원제도를 폐지하려는 정책을 '15년까지 보류하고 현역 인원을 4,000명으로 확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생에게만 이 제도를 적용

마.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생 입영 연기(국방부, 병무청)

-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 취업자에 대해 대학생과 동일하게 최대 4년까지 입영을 연기하는 제도로 병무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에 취업하여 종사하고 있는 자에게 적용
- 특히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 취업생자에 대해 '12년부터 대기업과 비제조업 종사자에게도 입영연기제를 확대할 예정이고, 재직자특별전형으로 진학한 자에 대해 졸업 시까지 입영연기제 확대를 검토 중에 있음('11.6.14, 선취업 후진학 체제 구축을 위한 기회균형 선발제도 개선방안 관련 당정 협의 시 확정)

바. 기능인재 추천제(행정안전부)

- 학력차별완화방안에 의거 기능인재 추천제 도입(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 2010.7.7)
-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출신의 우수기능인재를 대상으로 학교장 추천과 1년 정도의 공직 내 견습기간을 거쳐 특별 채용하는 제도로, 우리교육청에서도「인천광역시 소재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 지방기능직공무원 임용 규정(안)」을 입법예고 중에 있고, 인천광역시에서도「지방공무원 인사규칙(2010.6.21)」을 제정 시행중

사.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고용노동부)

- 인턴십 과정을 통해 취업 애로를 겪고 있는 청년층의 경력 형성과 직업능력 배양을 통한 취업 촉진 및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만 15세~29세 청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협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인턴으로 고용하는 제도
- 인턴 기간 중 매월 임금의 50% 지원, 정규직 채용시 6개월간 월 65만원 지원하고, 제조업체 생산현장에 취업 시 인턴취업자에게 1인당 100만원 지급(대기업 취업자 제외)

아. 우수 기능인 처우 개선(고용노동부, '10.5.27)

- 기능 인력의 선취업 후진학(학업) 기반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간 공동 사내대학 운영, 학점은행제 교육과정 운영 확대, 사내교수제도 및 견습생 제도 등을 통해 우수 기능인의 기능 전수 지원
- 앞으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육성 등과 병행하여 대학에 가지 않더라도 기능인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범국가적으로 사회적 풍토 조성

3. 후진학 지원 확대

가. 재직자 특별전형 확대·활성화 방안

-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생만 입학할 수 있는 특별전형(동일계, 재직자 특별전형)을 선취업 후진학 체제에 맞게 개선하고자 현행 특별전형 중 동일계 5%, 재직자 2%를 '13학년도 동일계 3%, 재직자 4%, '15학년도 동일계 1.5%, 재직자 5.5%로 개정하기 위해 입법예고 중임
- 현 중3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갈 때부터 적용되는 방안으로 대학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모집단위 신설·운영에 대한 자율성 강화를 통해 재직자를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 개설을 촉진 중에 있음
- 특성화고를 졸업하고 산업체에 취업한 후 3년 경력이 있으면 재직자 특별전형으로 4년제 대학 진학이 가능하도록 하여 선취업 후진학 체제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임

나. 사내대학 제도

- 시간적·경제적 여유가 없어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근로자들을 위해 학교법인 설립 없이 사업장 내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 차원의 고등교육기관을 의미하며, 평생교육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음
- 현재 삼성전자공과대학교, 삼성중공업공과대학, SPC식품과학대학 등이 있고, 산업체가 사업장 내에 학교 설치, 직접 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경비 전액 부담하여 전문학사 또는 학사 학위 부여

다. 계약학과 제도

- 대학이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학과를 설치·운영하고, 산업체 등은 교육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신규인력의 채용, 소속 직원의 재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현행 석사과정에서 전문학사 및 학사과정까지 확대하여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생과 연계 함으로써 선취업 후진학 체제의 사회분위기 조성

라. 기술대학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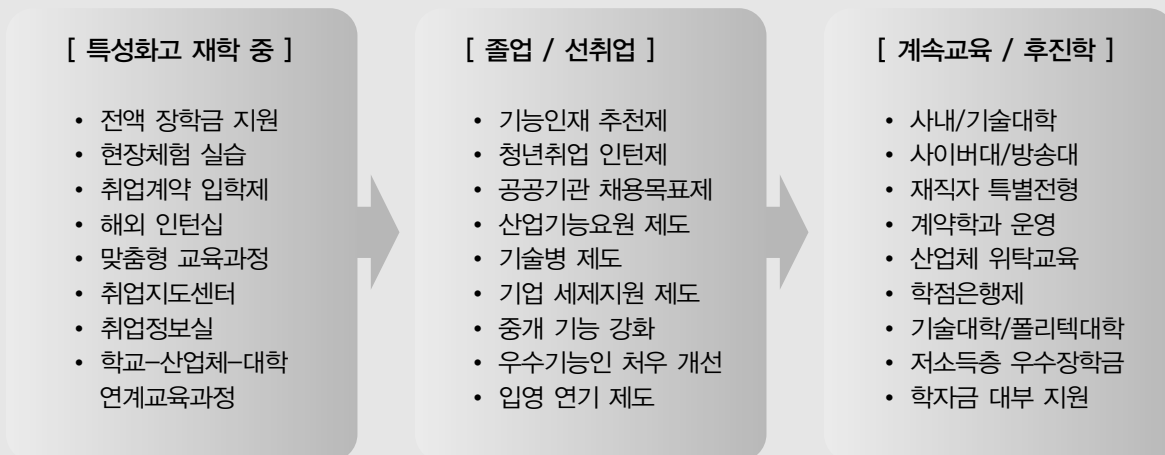
- 산업체 근로자가 산업 현장에서 전문적인 지식·기술의 연구·연마를 위한 교육을 계속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론과 실무 능력을 겸비한 전문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고등교육법에 근거하고 있음
- 1년 6개월 이상의 산업체 재직자로서 고졸 이상은 전문학사, 전문대졸 이상은 학사 과정에 입학 가능, 현재 정석대학에서 야간과정으로 운영 중으로, 기업이 직접 학위 과정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 국내 첫 사례로 사내대학 제도의 모델이 됨

마. 폴리텍 대학(고용노동부)

- 국가기간산업 및 신산업 분야 다기능 기술자, 기능장 등 중간 기술 인력 양성 및 구직자 기능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근거하고 있음
- 전국 7개 권역 31개 캠퍼스에 4개 특성화대학으로 구성, 인천은 한국폴리텍Ⅱ대학

남보다 빠른 진로 찾기

이상과 같이 특성화고 선취업 후진학 정책의 개관 및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이를 체계화하면 다음과 같다.





초·중등교육법 제45조(목적) ‘고등학교는 중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 위에 중등교육 및 기초적인 전문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로 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91조(특성화고등학교)에는 ‘① 교육감은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또는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로 명시되어 있다.

즉, 특성화고등학교는 각 전공에 따라 산업체 현장 중심의 실습교육을 강화하여 지식기반사회에 부응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특성화고에서 길러 내는 인재가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가는 편성·운영하는 교육과정이 얼마나 산업현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가에 따라 그 성패가 좌우된다. 이와 같은 필요에 의해 인천 특성화고의 교육과정은 취업역량 강화에 맞춰 있으며, 그 결과는 취업률이라는 정량지표로 나타날 것이다. 올해 목표를 45.2%로 설정하여 모든 학교에서 교육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작년 우리 인천의 특성화고 졸업생 중 기능경기대회 입상자의 진로 현황을 분석해 보면 취업자 25명(대기업 20명, 중소기업 5명)의 평균 연봉이 2,700만원으로 매우 높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우리 사회도 학벌과 학력이 아닌 실력으로 대우받고 인정받는 선진국형 사회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자신의 진로에 대해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는 중3 학생들은 이와 같은 사회적 변화와 시대적 요구에 발 맞춰 자신의 진로를 적극적으로 선택하여 개발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아무쪼록 본 원고가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는 중3 학생, 학부모, 또 그들을 지도하는 중학교 선생님들, 특성화고에 몸 담고 계시는 선생님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선진교육 현장체험

114

융합과학으로의 여행 MIT Media Lab 탐방기

한국교육개발연구원 연구원 강 병 직

119

가을에 띄워 보낸 재충전의 부메랑

백학초등학교 교사 양 경 희

융합과학으로의 여행 **미국**

MIT Media Lab 방문기



사진 1. Media Lab 건물



글 > 강 병 직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

지난 2011년 7월 13일, STEAM교육(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rt, Mathematics을 통틀어 일컫는 말)연구와 관련하여 미국 메사추세츠 주의 캠브리지시에 위치한 MIT 대학의 Media Lab을 방문하였다. MIT 미디어 랩은 ‘건축계획대학(School of Architecture and Planning)’ 소속으로 과학기술 · 디자인 · 멀티미디어의 융합으로 인류의 미래에 기여할 것을 취지로 지난 1985년에 설립되었다. 현재는 의학 분야와 연결된 로봇 개발, 인공 신체기관 개발에 관련된 연구들을 많이 수행하며 로봇 개발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미디어 랩 건물은 1985년 세계적인 건축가 페이(I.M.Pei)에 의해 설계된 건물과 2010년 새로 건축된 건물의 2개동으로 이루어져 있다(사진 1). 새로 지은 건물을 주현관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중앙 홀에 들어서면 홀을 중심으로 사방에 유리벽으로 된 각 연구실이 배치되어 있다. 또한 중앙 홀에는 미디어 랩 소속 학생들이 제작한

다양한 멀티미디어 영상 작품들이 설치되어 있어, 공대 건물이라기 보다는 마치 영상 미술전이 열리는 미술관에 들어온 느낌이 든다.

예를 들자면, 바닥에는 빔 프로젝트를 통해 다양한 형상이 연출되고 있는가 하면(사진 2), 탁구대를 수족관으로 생각하고 물고기 영상을 투사하며(사진 3), 벽에는 MIT Mood Meter라는 대형 모니터가 설치되어 방문객의 표정을 자동으로 인식하여 얼굴 표정에 따른 이모티콘이 표현되고 있다(사진 4). 연구소에 들어서자마자 마주치는 이러한 모습은 공학과 예술, 실용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MIT Media Lab의 분위기를 상징하는 듯하다.

미디어 랩의 공학과 예술, 실용의 융합적 모습은 단지 중앙 홀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각 층에는 다양한 전공의 연구실험실이 있으며, 각 층에는 미디어 랩 소속 대학원생들이 제작한 작품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설치되어 있었다. 가령 <사진 5>는 물감으로 그려진 꽃과 움직임을 감지하는 센서를 결합하여 꽃의 표현이 달라지도록 한 학생 작품인데, 이러한 작품들이 곳곳에 설치되어 감상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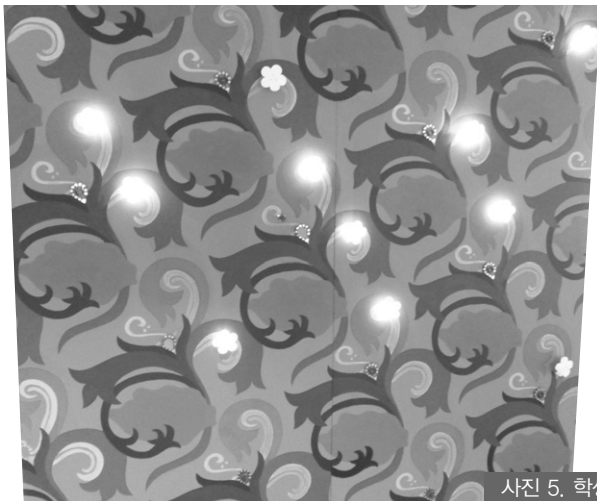


사진 5. 학생작품(회화+전자센서)



사진 2. Media Lab 건물



사진 3. 움직이는 물고기 탁구대



사진 4. 중앙 홀의 표정인식 작품



사진 6. High-Low Tech 실험실



사진 7. 한 연구실의 주제

MIT 미디어 랩의 과학과 예술에 대한 실험 정신은 비단 최첨단 기술(high-tech)만에 국한되지 않고, 구식 기술(low-tech)도 폭넓게 적용하고 있었다. 이는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개념을 위해 재료와 기술의 폭을 넓히고자 한 의도로서 미디어랩의 학생들은 그런 점에서 주위에서 흔히 보는 종이나 플라스틱, 실 등과 같은 과거의 아날로그식 사고와 컴퓨터와 첨단 기술과 같은 디지털식 사고를 총체적으로 융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사진 6)

이러한 미디어 랩의 여러 분야의 담장과 경계를 가로지르는 사고 방식은 연구 방식에도 그대로 드러나 있다. 미디어 랩의 연구방식은 연구실의 담당 교수가 명제를 제시하면, 그를 구현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방안을 탐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관련된 각종 전공의 학생과 전문가들이 상호 논의하며, 다른 연구실과도 긴밀한 협력을 이루게 된다. 가령 한 연구실에서 ‘Changing Place’를 주제로 삼았다면 사람들의 복잡한 생활방식에 맞춘 이동성과 네트워킹을 강화한 변화할 수 있는 건축적 공간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를 탐색한다(사진 7). 바로 이러한 주제 중심의 접근은 문제해결을 위한 창의적인 접근을 강조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연구분야, 연구자, 연구실, 기술, 정보 소통은 매우 중요한 관건이 되는 것이다.



사진 8. 루이 네벨스 작품

MIT Media Lab의 이러한 과학과 예술의 상호 융합적 특성은 MIT 공과대학 전체의 환경에서도 드러난다. 필자에게 놀라웠던 점 중의 하나는 대학 내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술가들의 원본 작품을 설치하는 등, 환경적 측면에서 예술적 특성을 가미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가령, 미디어 랩 건물 밖에는 루이 네벨슨(Louise Nevelson)의 작품(Transparent Horizon, 1975, 사진 8), 마크 디 슈베로(Mark Di Suvero)의 작품(Aesop's Fables II, 2005, 사진 9)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으로 유명한 프랑크 게리가 설계한 스테이타 센터(Stata Center, 2004)가 건축되어 있어 캠퍼스는 마치 조각 공원과 같았다.

이러한 예술적 환경이 예술대학이 아닌 공과대학에 이루어져 있다는 점은 필자에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으며, 더 놀라운 점은 공학으로만 유명할 것 같은 MIT 대학에 다름 아닌 세계적인 언어학자이자 인문학자인 노엄 촘스키(Noam Chomsky) 교수가 재직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이는 MIT 대학이 추구하는 정신 속에 과학기술과 인문과 예술의 융합이 커다란 위치를 점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MIT 미디어 랩의 정신은 결국 소통과 통합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다. 그래서 MIT 미디어 랩은 공간의 소통, 정보의 소통, 사람의 소통, 기술의 소통, 지식의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최적의 환경을 마련하고 자유로운 실험과 새로운 시도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미디어 랩의 기자재나 시설 등의 자원들은 연구자(이들은 대학원생이자 관련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유급 연구원)들의 소속 연구실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같이 공유되어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되는 점도 이러한 맥락에 일맥상통한다.

사진 9. 마크 디 슈베로 작품

그리고 이러한 소통의 과정에 MIT 미디어 랩은 예술을 도입하여 자유롭고 소통적인 정신을 이끌어 낸 것이다.

그런 점에서 최근 우리나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STEAM 교육에서 예술이 과학과 수학에 접목되는 것도 이와 같은 자유로운 소통 정신을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미시건 대학 생리학 교수인 루트번스타인(Root-Bernstin, 2003)이나 샤비지나(Shavinina, 2004)의 연구*들에서도 노벨상을 수상한 과학자들이 다른 과학자들에 비해 중요하게 차이나는 특성이 예술적 감성과 경험의 차이라는 결과를 볼 때 과학과 예술의 만남은 단지 과학적 흥미의 제고만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독창적인 과학적 성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MIT 미디어 랩을 탐방하면서 필자는 창의적인 과학적 성과는 과학과 예술의 소통, 자유로운 소통 분위기와 창의적 상상력의 협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새삼 느꼈다. MIT의 미디어 랩에서 적용되는 교육 방식이 교과 간 단절되어 운영되는 국내의 과학교육 방식에 보다 의미 있게 활용될 수 있기를 희망해 본다.

*** 관련 연구로서는 아래를 참고할 것.**

- Root-Bernstein, R. (2003). The art of innovation: polymath and university of the creative process. In L. V. Sharvina(Ed.), (pp. 267-278), The international handbook of innovation. Danvers, MA: Elsevier.
- Shavinina, L. V. (2004). Explaining high abilities of Nobel laureates. High Ability Studies, 15(2), 245-254.



사진 10. 프랑크 게리의 MIT 건물



유럽 국외체험 수기

가을에 띄워 보낸 재충전의 부메랑



글 > 양 경 희
인천백학초등학교
교사

1. 시작은 언제나 설레임으로...

설레임!

듣기만 하여도 읽기만 하여도 가슴을 설레게 하는 이 말.

처음 발령을 받고 교문을 들어섰을 때 두근두근 하던 심장 소리는 설레임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었다. 마주하기에도 벅차게 느껴졌던 아이들 앞에서 미친 듯이 뛰던 심장 소리는 설레임과 제대로 만났음을 알려주었다. 그리고 10년이 훌쩍 지나는 동안 많은 아이들을 만나는 것이 일상이 되면서 내 심장의 두근거림은 잦아들게 되었다. 그런데 또 다시 그 설레임과 마주했다. 학습연구년제 교사가 되면서, 내에게 일 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진 것이다. 새로운 기회이자 새로운 시작이었다.

새로운 동료들을 만났고, 새로운 연구도 시작했으며, 새로운 경험도 하게 되었다. 때로는 머리가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힘이 들기도 했지만 '새로움'이라는 색다른 경험은 늘 나를 상기시켰고 긍정의 에너지가 되었다. 연수를 받고, 강의를 들으며 내면에 뭔가가 채워진다는 생각에 뿌듯하기도 하

고, 꽃동네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나눔의 기쁨을 모처럼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그 긍정의 에너지는 국외 연수를 통해 극대화 되었다. 2011년 가을, 열흘의 시간을 유럽의 하늘 아래서 보내면서 또 다른 설레임의 시작을 느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에 대한 동경도 있었겠지만, 집을 떠나 ‘나’만의 여행을 간다는 사실만으로도 흥분의 도가니였다. 국외 연수의 시작은 그러했다. 나를 위한 시간, 나를 위한 선물, 나를 위한 여행. 그렇게 시작되었다.

2. 또 다른 나와 마주하다

‘여행이 아니라 연수다.’ 주위 사람들에게 꼭꼭 눌러 강조했지만, 내심 여행을 기대했을 것이다. 유럽의 로맨틱함에 푹 빠져 제대로 가을을 느끼고 싶었을 것이고, 찬란한 역사와 문화 앞에 지적인 낭만을 마음껏 느끼고 오리라 다짐도 했다. 그러나 만약 그렇게만 했다면 국외 연수는 그저 그런 기억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이젠 부정할 수 없는 ‘교사로서의 피’가 이미 내 몸 안에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색다른 즐거기를 시도하고 있었다. 직업병이라고 말할지도 모르지만 그 또한 어쩔 수 없다.

‘교육의 질이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는 말’은 교사의 능력을 강조하는 말이면서 교사에게 많은 책임과 부담을 부여하는 말이기도 하다. 그래서 슬쩍 부정하고 싶었던 적도 있었다. ‘청출어람(靑出於藍)’처럼 스승을 뛰어넘는 제자가 나오는 걸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말이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비행기를 타기 전과 비행기를 타고 난 후의 나는 확실히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건 비행기를 타기 전에 나를 만난 아이들과 그 후에 나를 만난 아이들이 나에게 받는 영향이 다를 것을 의미한다. 왜 그런 것일까? 왜냐하면 그곳에서 나는 또 다른 나를 마주했기 때문이다.



인정 NO 이해 YES!

낮선 땅과 낯선 문화는 기분 좋은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지만 때로는 불편함과 불쾌함을 느끼게도 하였다. 겪어 보지 않았으면 말을 말라고 했던 어느 코미디언의 유행어처럼, 이방인이 되어 느끼는 불편함이 나에 대해 생각해 보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다문화 교육을 지향하던 독일의 발도르프 학교에서는 내가 아닌 우리를 강조했고, 이때의 우리는 ‘하나의 우리’가 아니라 ‘서로 다름이 만난 우리’였다. 터키에서 온 친구의 어려움을 느껴보기 위해 반 전체가 터키어로 된 수업을 경험하게 했다는 말을 듣고 진정한 이해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다. 사람에 대한 이해는 나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 얇은 차원이 아니라 깨달음의 차원으로 다가왔다. 내가 우리 아이들의 다름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인정하고만 있었던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진정한 이해가 무엇인지 삶 속에서 이야기 해 주었는가를 곱씹어 보게 되었다. 낮선 나라의 학교는 아이들을 잘 이해한다고 자부했던 나를 되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이해의 의미와 그 깊이를 잘 알고 있는가를 스스로 점검해 보는 소중한 경험 속에서 또 다른 나를 마주한 것이다.

눈높이보다는 눈 맞추기를!

스위스는 참으로 조용한 나라였고, 제대로 된 상점을 구경하지 못했다. 오후 8시면 문을 닫을 뿐만 아니라 주말에도 문을 열지 않아 문이 닫힌 상점을 보며 스위스 길을 걸은 기억이 난다. 유명하다던 스위스 시계 하나쯤 사고 싶었는데 그게 좀 아쉬웠다. 하지만 그 아쉬움을 뒤로 할만한 ‘쿵’ 하고 가슴을 울리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 따뜻한 감동을 느낄 수 있었으니 스위스 시계보다 훨씬 더 값지지 않은가. 스위스에서 방문한 특수학교는 중증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였다. 그 학교에 견학을 갔을 때 학생보다 많은 교사들과 전문 치료사 수에 한 번 놀랐고, 그 곳에 있는 학생과 교사들의 표정에 또 한 번 놀랐다. 행복함이 얼굴 곳곳에서 드러났고, 그 기운 덕에 방문자인 나도 행복함을 느꼈다. 학생들 개개인에 맞게 조



절할 수 있는 책상과 의자는 진정한 의미의 배려가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었고, 식기까지 개인의 상황에 맞게 특수 제작했다는 말에 그들의 교육적 배려가 부럽기까지 하였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을 불러주면서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눈높이를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심으로 눈을 맞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다. 서로에게서 신뢰와 사랑을 느끼는 학생과 교사의 모습이 참으로 부럽고 또 부러웠다. 반목하고 불신하는 분위기가 팽배해진 우리 교육 현장에도 이러한 눈 맞춤이 있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도 가져보았다.

자부심을 찾습니다!

교육에 있어서 하드웨어는 우리나라가 최고이다. 교실마다 교사용 컴퓨터에 시청각 기자재도 훌륭하다. 반면에 유럽의 교실에는 교사용 컴퓨터도 있지 않았고, 시청각 기자재도 없었다. 또한 이탈리

아 로마에서 방문했던 사립학교(연 600만원 정도를 교육비로 내야한다)의 어두침침한 복도는 마치 우리나라의 80년대 교실같은 분위기였다. 하지만 이 학교는 명문 학교로서 자부심이 대단해 보였다. 낮은 교육 환경에 그들의 높은 자부심! 참 놀라웠다. 그러나 곧 그들의 자부심의 근원을 찾을 수 있었다. 살아 있는 교권, 그것이 자부심의 출발점이었다. 학부모들이 교사를 신뢰하고, 교사의 권한을 존중해주며, 교사의 권위를 인정해주는



모습은 교육의 자부심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는 비단 이탈리아 뿐 아니라 프랑스, 스위스, 독일도 마찬가지였다. 아이들에 주목하고 열정을 쏟는 그들의 교육은 학부모의 신뢰를 낳고 학부모의 신뢰는 교육의 발전을 지원해 주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 점이 우리 교육에 던져주는 시사점은 참 크다. 교사와 학부모, 학생이 대립각을 세울 관계가 아니라 같은 곳을 지향하며 서로를 보듬어야 할 관계라는 점을,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계기였다. 그렇다면 나는 교사로서 자부심을 갖고 있는가? 자부심을 갖고 싶은 마음은 가득한데, 정말 가지고 있는가는 생각해 볼 일이다. 유럽을 다녀 온 지금도 중요한 화두이다.

3. 새로운 에너지의 충전

학습연구년제는 그 자체가 재충전을 의미한다. 개인 연구, 전공 강의, 교양 강의, 각종 연수 등을 해 나가면서 소위 ‘폭~’ 쉬는 걸 해보지 못했다. 여유로운 휴식을 생각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강의를 들으며 숙제도 해야 했고, 개인 연구를 진행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습연구년제는 자꾸 의욕과 열정이 생기게 하는 이상한 마력이 있었다. 특히 이번 국외 연수는 색다른 에너지를 만들어 주었다.

로마에서 만난 미켈란젤로의 그림은 인간의 무한한 능력을 실감하게 했다. 시스틴 성당의 천장과 벽면을 가득 채운 그림은 감탄 그 자체였으며, 인간의 역량의 한계를 가늠하기 어렵게 했다. 처녀를 닮아 변덕이 심하다던 스위스의 융프라우에 올라가면서 거대하고 아름다운 자연의 품 안에서 한 없이 초라해진 나를 보았지만, 그 속에 나의 흔적을 남길 수 있음에 감사했다. 빙하가 녹아 만들어진 취리히의 호수 위를 커피 한 잔과 함께 떠다니면서 새삼 우리나라의 훌륭한 자연 경관도 생각해 보았다.



맥주 축제가 한창이던 독일에서는 흑맥주 한 잔으로 모두가 하나 되는 즐거움을 맛보았으며,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는 종교개혁을 발표했던 루터를 만나 지성의 힘을 느꼈다. 네카 강변의 산책로를 걸으며 대문호 괴테와 독일 철학자들을 만난 착각을 하기도 했고, 덕분에 나도 인생에 대한 사색을 해 보는 소중한 경험을 했다.

사색의 즐거움에 취해 있을 때쯤 파리는 역사와 문화의 중심으로 나를 인도했다. 루브르 박물관은 그 동안 책에서만 보던 예술 작품을 바로 눈앞에서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인간의 놀라운 상상력과 세상을 바라보는 세심한 안목에 존경의 마음을 갖게 했다. 베르사유 궁전을 돌아보며 프랑스 역사의 한 장면에 섰을 때에는 그 규모에 놀라기도 했지만, 파리 시민들의 분노가 느껴져 마음 한 구석이 아프기도 하였다. 곳곳에서 발견되는 유서 깊은 역사의 흔적과 예술혼은 파리의 정취를 한껏 느끼게 해 주었다. 특히 에펠탑의 야경은 정말 아름다웠다. 눈앞에 보이는 거대한 에펠탑은 감탄을 자

아내기에 충분했다. 세느강 유람선 위에서의 에펠탑은 그 자체로 낭만에 취하게 했으며 파리가 예술의 도시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새삼 느끼게 하였다. 이러한 경험은 그 자체가 신선함이었으며, 많은 이야기 거리를 만들어주었다. 유럽의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발견하고, 유럽의 역사 속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 줄 또 다른 삶을 생각하게 되었다.

4. 다시 돌아올 부메랑을 기다리며

국의 연수는 분명 재충전을 위한 하나의 소중한 기회였다. 그리고 이렇게 재충전 된 에너지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님도 분명하다. 내년에 현장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것은 부메랑이 되어 우리 아이들에게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 줄 것이다. 보고 경험한 만큼 넓어진 나의 인식의 폭이 나의 아이들에게 전해질 것이고, 나의 아이들은 나로 인해 또 다른 세상을 경험할 것이다. 그래서 학교로 돌아갈 내년이 기대된다. 이러한 기회가 많은 교사들에게 주어지고, 이렇게 띄워 보내는 부메랑이 다시 교육 현장으로 돌아와 우리 아이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 적어도 지금 보다는 훨씬 더 좋은 미래를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어 나에게 이번 연수는 행복 그 자체였다.



지역사회 문화와 사람

126

일곱 빛깔 인천 개항장 역사 도보 여행

인천문화재단 기획홍보팀장 김 병 훈

130

평범한 이들의 풍요로운 나눔 현장 도배 봉사단 이영기 대표와의 만남

인천만성중학교 교사 홍 미 정



일곱 빛깔 인천 개항장

역사 도보 여행



글 > 김 병 훈
인천문화재단
기획홍보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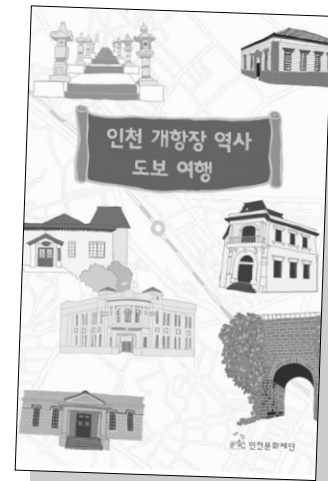
인천은 근대문화유산의 보고(寶庫)

1883년 인천항 개항은 인천에 여러 변화를 가져왔다. 개항으로 인하여 교육, 종교, 건축 등 각 방면에서 새로운 문화가 물 밀듯이 흘러들어 근대적인 도시로 발전하였다. 특히 청국·일본·각국조계지가 있었던 개항장 일대는 외국인들의 활동이 활발해 국제도시의 성격이 돋보였다. 그렇기에 현재에도 이 일대에서 서양식 근대 건축물들을 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물론 긴 세월에 이미 사라져버린 곳도 많지만 그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장소도 적지 않다. 또한 차이나타운, 자유공원 등 기타 볼거리들도 많다. 그야말로 근대문화유산의 보고(寶庫)이다. 그래서일까 주말이 되면 관광지도를 들고 개항장 일대를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여행지를 여행할 때 그곳의 역사와 문화를 알고 돌아다닌다면, 여행의 즐거움은 배가 될 것이다. 개항장 일대처럼 역사적 맥락이 중요한 곳을 돌아다닐 때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이에 여행 지도로서 그리고 역사 교육 자료로서 유용한 지도 책자를 하나 소개할까 한다. 바로 인천문화재단이 발간한 『인천 개항장 역사 도보 여행』이다.

일곱 가지 테마로 답사하는 인천 도보 여행

『인천 개항장 역사 도보 여행』은 근대 인천의 모습을 상상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조사 가능한 거의 모든 장소를 소개하고 있다. 또한 이 책자는 인천역을 출발점으로 ‘도보 여행 지도’라는 컨셉에 맞게 걸어서 인천의 근대문화유산을 돌아볼 수 있게 구성되었다. 이는 철도가 지닌 근대적 상징성을 고려한 것이다. 구성은 근대문화유산들을 행정·외교·교육·경제·주거·종교·공공시설·위락 등 7개 분야로 나누어 동선에 따라 체계화했다.



국제도시를 열다 | 행정·외교

인천역(출발점)→러시아영사관 터→영국영사관 터→인천해관 터→청국영사관 터→일본영사관 터→인천우체국→인천감리서 터→인천경찰서 터→인천전환국 터→화도진지



러시아영사관



영화학당

백 년 전으로 등교 | 교육

인천역(출발점)→인천화교소학교, 중산중학교→인천중학교 터, 제물포고등학교 강당→인천공립여학교 터→박문학교 터→인천공립심상소학교 터→인천공립심상고등소학교→인천공립상업학교 터→송림보통학교→인천공립보통학교→영화학당→동명학교



세창양행 숙소

근대상공업의 도입 | 경제

인천역(출발점)→제물포연초회사 터→일본우선회사 인천지점→군회조점→일본 제1은행 인천지점→일본 제18은행 인천지점→일본 제58은행 인천지점→가와 바타 창고→세창양행 사옥 터→후루다양품점 터→조선식산은행 인천지점 터(1차)→인천미두취인소 터→조선식산은행 인천지점 터(2차)→광창양행 터→일 선해운주식회사 인천지점→타운센드상회 터

도시인의 일상 | 주거

인천역(출발점)→존스톤 별장 터→세창양행 숙소 터→코노 다케노스케 별장 터→헨켈 주택 터→우리탕 주택 터→데실러 주택 터→모스 주택 터→맥코넬 주택 터→유항렬 주택→고유섭생가 터→리키다케 별장 터→인천부윤관사



리키다케 별장

대한서림

동인천길병원



답동성당

정신문화의 현장 | 종교

인천역(출발점)→한국기독교백주년기념탑→첫 선교 수녀 도착지→해안성당→의 선당→인천중화기독교교회→성공회 내동교회→내리교회→답동성당→성바오로수녀원→동본원사 터→인천신사 터→묘각사 터→화엄사→여선교사합숙소



홍예문

생활기반의 확장 | 공공시설

인천역(출발점)→청·일 조계지 경계 계단→각국공원→인천관측소→윗터골운동장 터→홍예문→인천거류민단병원 터→각국조계지 계단→성누가병원 터→동공원 터→긴담모퉁이길→용동큰우물→채미전거리→축현역



제물포구락부

모던보이·모던걸의 여가 | 위락

인천역(출발점)→공화춘→이태호텔 터→대불호텔 터→제물포구락부→인천공회당 터→금파 터→표관 터→협률사→용동권번계단

위에서 보는 것처럼 각 장소마다 정확한 주소가 표기되어 있고, 그것들의 현재 모습을 알 수 있도록 사진자료가 함께 나와 있다. 현재 터만 남은 곳이라 할지라도 옛 모습을 상상할 수 있도록 과거 사진이 실려 있다. 답사장소에 관한 간략한 해설뿐 아니라 장소별 관련 인물고사나 문헌자료상의 일화들을 발췌, 소개해 여행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그래서 여행자가 이 책자를 보고 길을 따라 걸으며 답사장소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다보면 근대 개항장의 풍경이 생생하게 그려질 것이다.

스마트폰 하나면 개항장 역사 OK!

『인천 개항장 역사 도보 여행』은 인쇄책자뿐 아니라 어플리케이션으로도 개발되었다. 이 어플리케이션은 현재 자신의 위치 정보를 승인하면 GPS 수신을 통해 여행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구글맵 서비스와 연동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현재의 내 위치를 표시해 클릭 시 목적지까지의 거리를 표시하고 있으며, 내 위치에서 스마트폰을 세우고 움직일 경우 나침반 기능으로 도보여행을 안내하도록 되어 있다.

『인천 개항장 역사 도보 여행』에서 소개하는 여행 장소는 80여 곳이 넘는다. 여행을 하기 위해 처음 이 자료를 본 사람이라면 그 방대한 양 때문에 놀랄지도 모르겠다. 이 책자는 인터넷, 스마트폰을 통해 미리 자료를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이후에도 소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개항장 일대를 여행하기 전인 사람이라면, 책자를 먼저 살펴보고 자기만의 여행 순서를 짤 수 있겠고, 여행을 다녀온 사람이라면 이후 이 일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거나 혹은 생각이 날 때 들춰보면 될 것이다.

나날이 개항장 일대를 찾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을 보면, 이 지역에 대한 관심이 날로 커지고 있는 것 같다. 이 책자가 이 일대를 찾는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또 인천에 대한 새로운 면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인천 개항장 역사 도보 여행』을 구하고 싶다면?

1. 인천문화재단 방문 시 수령 가능
2. 인천문화재단 홈페이지(www.ifac.or.kr)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3.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QR코드



평범한 이들의 풍요로운 나눔 현장

도배봉사단이영기대표와의 만남

겨울이다. 따뜻함이 너무나도 그리운 계절! 흰 눈발이 흩날리고, 매서운바람이 옷깃을 파고드는 겨울! 우리 인생에도 이러한 겨울이 있다. 인생의 겨울은 슬픈 이별로, 쓰라린 패배로, 배고픈 가난으로 뜻하지 않은 재앙으로 올 수도 있다. 겨울에 따스한 온기가 필요하듯 인생에도 따뜻한 위로와 사랑의 온기가 우리에게 절실하다. 이러한 따뜻한 위로와 사랑의 온기를 우리 이웃들에게 조용히 전하는 한 분을 만나고왔다.



글 > 홍 미 정
만성중학교
교사

우연한 말 한마디로 시작된 봉사 활동

“대학 동창이자 현재 도배봉사단 공동 대표를 맡고 있는 황광열이라는 친구와 술자리를 하면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돌봐 주는 사람 없이 어렵게 살고 계신 어르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혼자 어렵게 살고 계신 어르신들이 너무 많은데, 그 분들이 살아 계시는 동안만이라도 깨끗한 집에서 살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 도리인 것 같다는 말이 나왔고, 친구도 그 말에 동의하면서 도배 봉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연히 술자리에서 나온 그 말이 저를 지금까지 이끌어 온 것입니다. (허허)”

도배 쪽 일을 한 경험이 있는 이영기 대표는 그 경험으로 도배봉사 아이디어를 내게 되고, 경험이 없었던 황 대표는 회사에 휴가를 내고 도배 일을 배워 도배봉사단을 발족시켰다. 맨 처음에는 월 1회 홀로 사는 노인 가정이나 저소득층 가정에 대한 도배 봉사를 실시하였으나, 차츰 자원봉사 분들이 늘어나면서 월 2회로 늘려 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

도배라는 특수성과 함께 인력과 돈이 많이 드는 봉사이지만 꾸준히 진행하면서 현재까지 약 84회 정도 도배 활동을 하였고, 도배 봉사단 인원도 20여분 정도로 많아졌다.



평범한 이들의 나눔이 더욱 풍요롭다

“맨 처음 시작했을 때는 도배 일을 전문적으로 아는 사람이 저 혼자였기 때문에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속성으로 배웠기에, 여기 저기 참 손도 많이 가고 도배 일도 너무 늦게 끝났습니다. 그래도 차츰 차츰 회원이 늘어나면서 전문적으로 도배 일을 하시는 분들이 들어오셨고, 그러면서 도배 시간도 많이 줄고 실력도 전문인 못지않게 일취월장했습니다. 그리고 도배봉사를 한 번 하는데 한 20만원 정도 드는데, 다행히 벽지회사에 다니시는 분이 후원을 해주셔서 비용도 많이 절감되었습니다.”

도배봉사단의 철칙은 돈만 내는 사람은 후원 회원, 돈과 봉사를 함께 하는 사람은 정 회원으로 인정하고 있다. 회원들은 많은 돈은 아니지만 자신이 가진 일부를 나누고 몸으로 실천한다는 것에 작은 행복감을 느끼고 즐겁게 봉사를 하고 있다. 이영기 대표는 공공재원이나 기업의 돈을 후원받기보다는 작지만 정성이 가득 들어간 후원금으로만 자원활동을 운영하는 것이 나눔의 의미를 실천하는 것이라 생각하여 회원들의 후원금만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제가 도배봉사활동으로 여러 집을 방문했지만, 남매 둘이 사는 집이 가장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그 집에는 아이 둘만 살고 있고, 어머니는 일주일에 한 번씩만 오셔서 아이들을 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큰 아이는 중학생, 작은 아이는 초등학교 정도 되었는데, 집에 얼마나 쓰레기가 많은지 집 안이 온통 쓰레기 천지였습니다. 집 안 곳곳에는 도시락 먹은 통이 널브러져 있고 냉장고를 열어 보니 음식에 구더기가 꿈틀되고



있었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저는 그 때 냉장고에도 구더기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옷이 얼마나 더러운지, 도배를 해주기 전에 집을 청소해주는 것이 먼저라는 생각이 들어, 오전 내내 집안 청소와 아이들 옷 빨래를 해주었습니다. 청소를 하고 나서 도배를 한 후 나오려고 하는데 작은 아이가 저를 붙잡고 오늘이 자기 형 생일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때 가슴에서 찡한 것이 올라왔습니다. 생일인데 미역국도 못 먹는 아이가 너무 안 되었고, 이러한 환경에 방치 된 그 아이들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케이크를 사와서 작은 생일 파티를 해주고 온 기억이 남습니다. 나오면서 아이들이 그래도 조금은 깨끗한 곳에서 생일을 보낼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이 많다. 홀몸노인·장애인 가정·편부모 등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참 많다. 이영기 대표는 이러한 분들은 나와 동떨어진 분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우리 이웃이고 내 형제라고 강조한다. 그리고 나눔은 시간적, 물질적 여유가 많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작은 것을 나누어 주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말한다. 이영기 대표는 지인이나 동사무소에서 연락을 받아 도배가 필요하신 분들을 돕고 있다고 한다. 그는 이 일을 언제까지 할 거냐는 질문에 본인의 몸이 움직이지 못할 때까지 할 것이며 평범한 이들의 나눔이 더 풍요롭다고 대답한다.

스펙으로 변질 된 나눔 활동

“요즘 중학생은 20시간을 의무적으로 봉사활동 해야 하고, 그 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학생들은 점수가 감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봉사활동을 통해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배우고 도와주라는 목적으로 시간을 의무화한 것인데, 그 취지는 좋으나 시간을 성적에 반영하는 것은 봉사활동의 진정한 의미에 어긋나는 행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봉사활동은 말 그대로 스스로 원해서 받들고 섬긴다는 뜻인데, 이런 봉사를 확인서를 받을 목적으로 학생들이 참여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사람연대에 보면 도배봉사단 말고도 다양한 봉사 활동 단체들이 9개나 더 있습니다. 다른 단체들의 경우를 보면, 자원 교사로 학생들의 봉사활동 신청이 참 많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대부분 학부모님들이 신청을 하신 것이고, 학생들은 왔다가 어려운 일에 금세 일을 그만두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또한 장애인들과 함께 인연을 맺는다는 것은 인내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한데 마음의 준비가 안 된 학생들 때문에 함께 했던 많은 분들이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저는 강요된 봉사활동은 봉사활동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본인의 스펙을 쌓는 봉사 활동 역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에게 봉사 시간보다 나와 다른 사람이 함께 공존하라는 의미를 알려주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영기 대표는 봉사활동이 스펙이 되어 버린 요즘! 나눔이 하나의 형식처럼 된 것이 안타깝다고 말하며, 내가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것을 나눌 수 있는 것이 봉사의 시작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봉사활동은 나와 다른 사람의 인연 맺기이며, 그 인연 속에서 진정한 나를 바라볼 수 있을 때, 몸이 아닌 마음을 따뜻하게 해 줄 수 있는 진정한 봉사 활동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답한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삶의 주체로 나와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얼마나 주고 있는 것일까? 너무 꼭두각시로 입시라는 틀에서 공부만을 위해 움직이게 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기에 봉사풍년 속에 참다운 봉사의 열매를 얼마나 얻고 있을까? 참으로 중요한 것은 아이들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만나게 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 이러한 활동은 단순히 시간을 얻는 봉사활동이 아닌 다양한 사회활동 경험이나 다른 사람을 돕는 봉사활동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작지만 세상을 바꾸는 나눔

“도배 봉사를 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 집에 도배를 하러 갔는데 너무나도 좁고 더러웠습니다. 그 곳을 깨끗하게 도배를 해 드리고 온 후, 김장 나눠드리는 행사로 그 곳을 다시 찾아갔을 때 그 어르신께서 돌아가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 때 아! 그래도 그 어르신께서 좀 깨끗한 곳에서 돌아가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정도가 보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일을 하면서 좋은 것보다는 우리 이웃들의 애처로운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서글퍼지기도 합니다.”

이영기 대표는 ‘봉사’라는 용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봉사라는 단어는 잘못 생각하면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서이다. 하지만 봉사는 ‘奉事’ 즉 ‘받들고 섬기다’는 뜻으로 상대를 받쳐주는 역할의 의미이다. 이에는 거창한 의미도 없고, 상하의 의미도 없고, 동등한 관계 속에서 자발적인 마음에서 주위의 힘든 사람들을 돕는 의미가 강한 것이다. 그래서 이영기 대표는 ‘봉사활동’이라는 말 대신 ‘자원활동’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또한 그는 봉사 활동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남을 도왔다’라는 자기 만족감으로 봉사를 하는 사람도 많다고 하면서, 그러한 자기만족 봉사 활동이나 단순히 더러운 집을 도배를 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아픔을 치유해 가는 활동을 하고 싶다고 한다.



“물론, 도배활동을 한다고 세상이 따뜻해지거나 소외된 이웃들의 삶에 큰 변화를 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봉사 활동을 하는 주체가 어떤 생각을 하고 활동에 임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단순히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닌 그들의 아픔과 고민을 함께 나눈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나눔이 작지만 조금씩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영기 대표는 봉사활동에 대해서 인간애를 기본으로 한 무조건적으로 주는 태도 또는 베푸는 행동으로서의 의미보다는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누면서 작지만 조금씩 사회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의미에 더 초점을 둔다고 하였다. 그는 현대사회에서는 산업화·도시화가 됨에 따라 인간관계가 단절되어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서, 이러한 사회 문제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며, 이에 대한 해결을 정부기관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나눔에 참여하면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한다.

“해마다 12월부터 2월에는 도배봉사를 다니지 않고 도배학교를 열어 도배를 무료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해인가 12월에 도배봉사활동으로 한 어르신 집에 갔었습니다. 평소 때와 마찬가지로 도배를 하기 위해서는 방에 짐도 치우고 어르신 분도 잠시 나가 계시라고 하고 열심히 도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배를 하다가 잠깐 밖을 보니 어르신이 갈 곳이 없으셔서 밖에서 떨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아! 추운 겨울에 어르신을 밖에서 떨게 하는 것도 참 못할 짓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2월부터 2월에는 도배 봉사를 잠시 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에는 도배를 여러 사람에게 알리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도배학교를 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본인의 집은 본인 스스로 도배를 하는 것도 참 의미 있는 일이

라고 생각합니다. 도배를 배워서 스스로 집을 도배를 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허허)

도배학교는 3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 3일째에는 나가서 실전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3일을 다 나오신 분에게는 수료증도 배부하고 있습니다. 3일이라고 해도 도배학교에 나오신 분들은 3일이면 도배에 관련된 웬만한 기술을 배울 수 있습니다.

내년에 꼭 이루고 싶은 소망을 묻는 질문에 이영기 대표는 조그만 ‘공방카페’를 열고 싶다고 한다. 화려하지 않으면서 소박한 카페를 열어, 한 쪽에는 공방 도구들을 진열해 놓고, 다른 한 쪽에는 주민들이 와서 커피 한 잔 먹을 수 있는 여유로운 공간! 이러한 공간을 만드는 것이 내년의 소망이라고 한다. 작은 공간이나마 우리 이웃들과 나눌 수 있는 있는 공간을 만들어 힘든 세상에서 서로 보듬으며 소통하고 싶다는 이영기 대표를 보니 유난히 춥다고 하는 올 겨울이 아직은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다.

혼자타오르다가 그냥 스러져 버리는 삶은 의미가 없다. 우리는 다른 누군가에게 온기를 전해 주어야 한다. 따뜻한 입김이 되어, 누구가의 등을 두드리는 두툼하고 정다운 손길이 되어, 우리의 삶을 데워 주어야겠다. ^^

참여와 어울림

158
시

인천연성초등학교 교사 한 연 순
신송중학교 교장 원 유 자

162
그림

인천시학생종합수련원 교학과장 곽 형 진

164
사진

조산초등학교 교장 이 응 복
인주중학교 교사 강 혁

138

붕어빵 현상을 통해 바라본 독서교육
경기도 하늘초등학교 교감 안 경 수

144

독서토론, '그들의' 에서 '함께' 로
인천상정고등학교 교사 김 배 홍

152

'인천사람' 과 살고싶다
부광고등학교 교사 신 현 수

155

학부모가 아닌 부모의 마음으로
인천신송초등학교 학부모 김 문 숙

166

미시와 거시의 세계

168

내 인생의 평생스승
다산 정약용

인천해송고등학교 교감 장 인 선

붕어빵 현상을 통해 바라본 독서교육



글 > 안 경 수
경기도 하늘초등학교
교감

들어가면서

하늘초등학교에서 붕어빵 냄새가 난 지 2년이 다 되어간다. 아이들에게 책을 읽는 기쁨을 마련해주고자 했던 작은 소망에 빵틀을 들여오고, 밀가루에 팔도 준비하면서 붕어빵을 굽기 시작한 것이 었그제 같은데, 이제는 빵을 굽는 솜씨도 예사롭지 않은 것 같다. 매주 월요일 오후에 빵틀 주변으로 모여드는 아이들은 일주일간 열심히 책을 읽었다는 뿌듯함과 붕어빵을 맛있게 먹는 즐거움을 동시에 가진 행복한 친구들이다. 문득 이들에게 붕어빵과 책은 어떤 의미일까 궁금해진다. 붕어빵 주변의 아이들과 도움을 주고 계신 사서선생님의 이야기들을 모아서 붕어빵 현상을 말해볼까 한다.

붕어빵 주변의 이야기 : 붕어빵과 책읽기 습관의 정착

아이들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 두 가지 질문을 준비해보았다. 책을 열심히 읽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붕어빵은 책을 열심히 읽는데 어떤 도움을 주었나? 첫 번째 질문은 붕어빵을 알기 전에 책을 읽는 습관이 어떻게 정착되었는지에 관한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붕어빵이 책을

읽고자하는 마음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는가하는 질문이다. 이 두 가지 질문을 통해 봉어빵 현상에 연계된 독서의 의미를 알아보고자 한다.

봉어빵을 받는 아이들의 대부분은 규칙적으로 도서관을 찾아 책을 읽거나 대출하는 습관이 잘 정착되어 있었다. 이 아이들은 거의 어려서부터 책을 읽기 시작하였으며, 봉어빵은 이들이 책읽기 습관을 지속화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촉매의 역할을 하였다. 다음은 봉어빵을 받아서 기뻐하고 있는 학생(2학년)과의 대화 내용이다.

교감 : 책을 읽는 것이 재미있니?

학생 1 : 예

교감 : 언제부터 책 읽는 것이 재미있었니?

학생 1 : 아마— 작년부터…….

교감 : 그래? 그럼 책은 언제부터 읽기 시작했는데?

학생 1 : 유치원 때부터요.

교감 : 봉어빵을 받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

학생 1 : 책을 계속 열심히 읽어야지라고 생각해요.

교감 : 그래, 계속 책을 열심히 읽어라.

학생 1 : 네

학생 1의 경우를 보면, 책읽기는 유치원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고, 현재 책을 열심히 읽고 있기 때문에, 봉어빵은 학생의 책을 향한 내재적 동기를 계속 유지시켜주는 도구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봉어빵을 주변에 있으면서, 봉어빵을 받지 못한 아이(3학년)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교감 : 넌 봉어빵 안 받았니?

학생 2 : 네.

교감 : 왜?

학생 2 : 책을 많이 못 읽었어요.

교감 : 그래도 하나 먹어보아라.

학생 2 : 감사합니다.

교감 : 책 읽기가 재미있지 않니?

학생 2 : 가끔 읽지만 재미는 없어요.



교감 : 친구들이 봉어빵을 받는 것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니?

학생 2 : 저도 책을 열심히 읽어보고 싶어요.

학생 2의 경우를 보면, 책을 읽는 일에 흥미가 많지는 않지만 친구들이 먹는 봉어빵을 보면서 책을 읽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봉어빵이 외재적 동기 유발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학생은 봉어빵에 자극을 받아 책을 열심히 읽게 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교감 선생님 옆에서 밀가루 반죽을 만들고 봉어빵을 정리하는 일을 돕고 있는 사서 선생님도 이 아이들의 이야기와 동일한 맥락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

사서 : 봉어빵을 지속적으로 받아가는 아이들은 책읽기 습관이 정착되어 있는 아이들이에요. 봉어빵은 이 아이들에게 보상과 같은 의미이지요. 한 주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책을 읽었지만 봉어빵을 가끔 받는 아이들은 아직 책읽기 습관이 정착되지 않았음을 의미해요. 그래도 이 아이들은 봉어빵을 통해 책읽기를 열심히 하게 된 경우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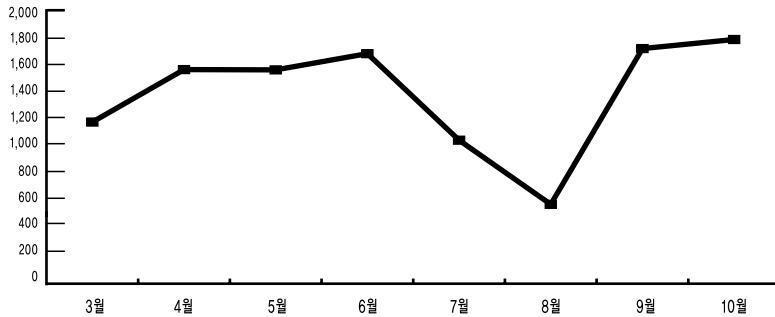
사서가 전달하는 봉어빵의 의미는 아이들이 바라보는 봉어빵의 의미와 거의 같음을 알 수 있다. 사서는 봉어빵을 지속적으로 받는 아이들과 그렇지 못한 아이들의 차이를 책읽기 습관의 정착으로 연계하여 이야기하고 있다. 다시 말해, 책읽기 습관이 정착된 경우는 봉어빵이 내재적 동기의 지속을 돕는 것이고, 아직 정착이 되지 못한 아이는 외재적 동기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봉어빵과 도서 대출 : 주제별 꾸준한 증가

아이들이 봉어빵에 부여한 의미는 바로 책읽기 습관의 정착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현상이 과연 도서관의 책 대출 현상으로 연결될 수 있을까하는 의문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번에는 사서의 도움을 받아 도서관에서 책이 얼마나 대출이 되고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3월부터 10월까지의 도서 대출 실적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1〉 월별 도서 대출

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평균대출	1,186	1,568	1,566	1,684	1,054	587	1,721	1,787



<그림> 월별 도서 대출

위 <표-1>과 <그림>을 보면 도서 대출이 방학기간인 7월과 8월을 제외하면 꾸준히 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월에 붕어빵 구울 준비(빵틀 씻기, 밀가루 구입 등)를 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4월의 도서 대출 실적이 괄목할 정도로 증가한 것은 붕어빵의 영향력이 아닌가 생각해본다. 도서 대출 증가는 아이들이 도서를 주제별로 고르게 대출한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 다음의 <표-2>를 보자.

<표-2> 주제별 도서 대출

월	총류	철학	종교	사회과학	자연과학	기술과학	예술	언어	문학	역사	합 계
3월	41	8	16	59	72	25	12	1	863	89	1,186
4월	88	25	15	63	89	31	21	6	1,130	100	1,568
5월	35	76	6	147	68	35	25	4	1,100	70	1,566
6월	52	100	9	208	79	48	18	3	1,092	75	1,684
7월	20	103	4	92	56	23	19	1	700	36	1,054
8월	23	93	1	52	38	11	9	1	319	40	587
9월	39	137	9	116	143	45	46	3	1,056	127	1,721
10월	42	124	2	123	115	42	60	6	1,137	136	1,787

위 <표-2>에 의하면 하늘초등학교 아이들이 사회과학, 자연과학, 예술, 문학, 역사 등에서 고른 대출 증가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는 책에 대한 관심이 문학 중심에서 다른 영역으로 점차 확대되어 나갔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붕어빵 현상의 확대 : 주제별 글쓰기와 학력 향상

하늘초등학교는 주제별 글쓰기를 연중 추진과제로 삼아 실천하고 있다. 이 주제별 글쓰기 실적은 붕어빵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 주제별 글쓰기를 맡아서 진행하고 있는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사서 : 주제 글쓰기를 학급에서 실시하면, 글쓰기 한 것들을 제게 가져와요. 그러면 제가 거기에 코멘트도 달고, 틀린 글씨도 고쳐주고 합니다. 중요한 건 학급에서 가져오는 글쓰기 양이 점점 늘고 있다는 거예요. 읽고 코멘트 달고 교정해 주는 게 너무 힘들어요(웃음)

붕어빵 효과는 주제 글쓰기 제출 양에서도 나타나고 있었다. 책을 많이 읽은 아이들은 글쓰기 주제를 다양하게 가지게 되고 이것이 주제 글쓰기 양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이는 붕어빵을 받아서 먹고 있었던 한 아동(4학년)의 이야기에서도 드러난다.

교감 : 오늘도 붕어빵을 받았네?

학생 3 : 네. 맛있어요.

교감 : 이번에도 책을 많이 읽었나 보구나.

학생 3 : 네. 이번 주에는 5권 읽었어요.

교감 : 잘했구나. 그런데, 책을 많이 읽으면 뭐가 좋지?

학생 3 : 머리가 좋아져요. 오늘 글쓰기를 했는데요….

이 학생은 글쓰기를 잘 할 수 있게 된 것을 머리가 좋아진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책읽기를 머리가 좋아지는 것으로 연결하는 학생들은 이 학생 외에도 많이 있었다. 지적 능력이 성장하는 모습을 머리가 좋아진다고 표현하는 것은 어린이다운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 아이들의 이야기 속에 나오는 ‘머리가 좋아진다’고 한 표현이 학력 향상으로도 연결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검증하려면 보다 오랜 기간의 관찰과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늘초등학교는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에서 기초학력 미달로 나타난 학생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이다. 책을 사랑하고 주제 글쓰기에 관심을 가지는 현상은 분명 대단한 것이다. 붕어빵 현상을 통해 바라본 하늘초등학교의 모습은 책을 사랑하고, 주제 글쓰기를 잘하고, 더불어 학력 향상도 이루어가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나오면서

하늘초등학교 학생들의 책읽기 습관 정착은 붕어빵 현상으로 설명된다. 매주 붕어빵을 받아가는 아이들은 자신이 책을 열심히 읽은 것에 대한 보상(내재적 동기의 유지)으로서의 성향을 보이고, 가끔 붕어빵을 받아가는 아이들은 책을 열심히 읽으면 붕어빵을 먹을 수 있다는 생각, 즉 붕어빵이 외재적 동기를 강화하는 도구가 됨을 알 수 있다. 이는 붕어빵 현상의 양면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책을 열심히 읽고 있는 아이들과 그렇지 못한 아이들 모두에게 붕어빵은 좋은 촉매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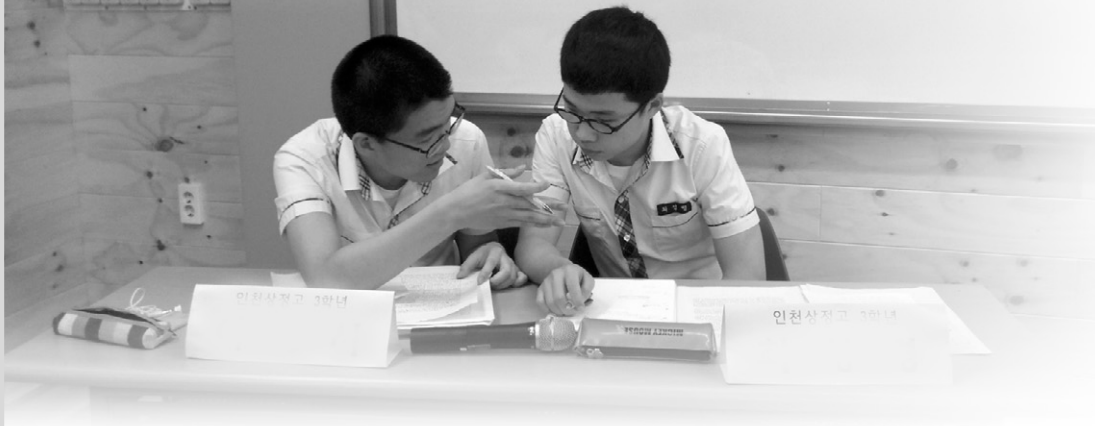
붕어빵을 통해 바라본 또 다른 모습은 도서관 책 대출의 양이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이다. 3월에 붕어빵을 준비하는 기간에 비해 4월이 도서 대출 양이 급증한 것은 붕어빵의 효과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7월과 8월에는 방학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도서 대출 양이 일정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음은 아이들의 내재적 동기가 잘 유지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아직 외재적 동기를 구성 중인 아이들은 도서 대출에 소홀할 것으로 본다). 이 아이들은 좋아하는 책을 빌려가기 위해 자발적으로 시간을 내어서 학교 도서관을 찾아온 것이다.

붕어빵 현상은 주제 글쓰기 양의 증가로도 나타나고 있다. 학년 초에 비해 늘어나는 주제 글쓰기의 양에 사서 교사가 즐거운 비명을 보여준 모습은 학생들의 책읽기가 주제 글쓰기로 연계되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학생들이 책을 읽으면 머리가 좋아진다고 말한 부분도 주제 글쓰기 양의 증가와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어린 아이들이라 머리가 좋아진다는 것을 지적 성장의 의미로 사용했는지의 여부는 아직 검증할 수는 없지만 이는 분명히 학력 향상과도 관련이 있음을 느낄 수 있다.

붕어빵 현상은 이제 시작되었다. 이 말은 이 현상과 관련하여 검증해 볼 사항들이 많이 있다는 의미이다. 우선 생각해 볼 것이 학력향상이다. 독서와 관련된 과목으로 국어, 사회 등을 들 수 있는데, 책읽기 습관 정착이 이들 과목들의 학업성취와 상관관계가 높은지는 꾸준히 검증을 해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아이들이 하나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머리가 좋아진다’는 언급과 학업성취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기도 하다. 붕어빵을 사랑하는 아이들과 이들을 위해 헌신하는 선생님들이 있는 한 붕어빵 현상(독서 습관 정착 및 주제 글쓰기 참여)은 계속될 것이므로, 붕어빵 현상과 학력향상과의 상관관계는 곧 밝혀질 것으로 확신한다.



독서 토론, 2011. 7. 18. (월) 장소 ‘그들의’ 에서 ‘함께’ 로



글 > 김 배 홍
인천상정고등학교
교사

고 3이, 더구나 이과생이 독서 토론을 하겠다고?

내가 올해 새 학교로 전근 갔다. 그리고 1학기 말에 교육청에서 지원금 120만원을 받게 되자 ‘독서 토론 활동’ 을 하기로 하였다. 학생들이 직접 독서하고 토론하도록 하는 것이다. 결코 강의가 아니다. 누가 독서의 목적을 모르는가, 방법을 모르는가. 토론도 마찬가지다. 누가 토론의 의의를 모르는가, 토론의 방법을 모르는가. 물론 토론 모형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교차조사식토론’ 을 한다고 하면 누구나 바로 그 토론을 할 수야 없겠으나, 한 페이지짜리 방법만 학생들에게 제시하면 다 할 수 있다.

독서 토론 희망자를 받았는데 고 3 이과생 8명이 신청을 해 왔다. 수능 녀 달 전인데. 나는 먼저 토론자 학생들이 읽어야 할 바탕 도서를 선정하였다. 이과생들이기 때문에 자연과학 관련 책으로 정했다.

■ 바탕 도서 : 「정답을 넘어서는 토론학교 과학 : 토론으로 들여다 본 과학의 두 얼굴」,
가치를꿈꾸는과학교사모임 편저, 우리학교.

그 책의 목차 중 일부를 보자.

2. 원자력에너지

그래, 원자력은 미래에 걸맞은 꿈의 에너지야
아니야, 원자력이 가져올 미래는 악몽일 뿐이야

그런데 바로 위와 같은 유형의 논제로 KAIST 입시가 이루어진다.

KAIST 입시에 집단 토론을 하는 이유

KAIST 홈페이지에 다음과 같이 안내되어 있다.

2012학년도 입시전형안내

2차(일반) 750명 정원의 경우

2단계 : 면접

심층면접 : 개인면접 및 집단면접 등을 통해 자기주도 생활 및 학습능력을 포함한 지원자의 탐구역량, 대인역량, 내적역량, 특정분야 영재성을 종합평가함.

KAIST 집단 면접은 한 주제를 두고 6~7명이 토론하는 형태이다. 여기에는 시사, 과학 이슈, 철학 등 다양한 주제가 주어질 수 있다. 예를 들면, 2009년에는 교내 CCTV 설치 문제, 2010년에는 '동물의 권리는 보호되어야 하는가?'가 출제되었다. 특기할 점은 KAIST가 자연계라고 하여 자연과학에 대한 논제 위주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학교 고 3 이과생들이 독서 토론 활동을 신청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다. 실제로 그 8명 중 한 명인 이○○학생은 KAIST에 최종 합격하였으며, 또 다른 한 명인 최○○ 학생은 연세대 공과대학 대기 합격 3번을 받아 놓고 있다. 물론 그들이 단 한 번의 독서 토론으로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 그들은 그 전에 과학 토론 등 여러 번의 토론 경험을 갖고 있었다. 즉 토론의 필요성을 늘 인식하고 실천해 갔으며 그 종합적인 결과로 성공을 한 것이다. 이○○ 학생은 합격 후 후배를 위하여 말한다면서, KAIST 입시 때의 집단 토론에 대하여 자기 경험담을 1시간 동안 나에게 말해 주었다.

그럼 왜 KAIST에서 자연과학보다는 인문사회과학적인 논제를 입시에서 출제할까? 이것은 대단히 중요하며 의의 있는 일이다. 마리-모니크 로뱅이 지은「몬산토 : 죽음을 생산하는 기



업」(이선희 역, 이레, 2009.)을 보면, 과학자들이 얼마나 비리를 저지르는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예를 들어 영국의 리처드 돌은 흡연과 폐암 발생의 관계를 규명하였고 오랫동안 가장 훌륭한 암 연구자로 명성을 떨쳤으며 영국 여왕으로부터 작위까지 수여받았다. 그는 몬산토에서 생산한 제초제 2, 4-D가 암을 유발시킨다는 다른 과학자들의 주장에 반론을 폈었는데, 그의 사후에 그가 비밀리에 몬산토를 위해 20여년 동안이나 일해 왔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그의 명성은 물거품이 되었다. 나는 예전에 생각했었다, 과학자들은 비리와 무관하다고. 그러나 인문사회학자들이 부패해지면 사회 문제에 그칠 수 있으나, 과학자들이 부패해지면 인류를 멸망의 길로 빠뜨릴 수 있다. 그렇다면 KAIST에서 왜 인문사회과학적 논제로 집단 토론을 하면서 입시를 치르는 지 이해할 수 있다. KAIST는 단순한 과학도를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와 인류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대학이다.

공부에 바빠서 독서 토론은...

학부모나 교사들, 그리고 학생들에게 독서 토론을 하자고 하면, 이렇게 잘 말한다.

“공부하느라고 시간이 없어서…….”

독서와 토론은 공부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논술에 대해서는 대입 논술이 있기 때문에 논술 공부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다. 그런데 논술과 토론은 맥이 같으며, 두 가지 다 논하는 것인데, 글로 쓰면 논술이고, 말로 하면 토론이다. 어느 쪽이 더 교육적이나 하면 당연히 토론이다. 왜냐하면 논술은 일방적인 진술이지만, 토론은 쌍방향적으로 내가 주장을 잘못하거나 논거를 잘못 대면 바로 상대방의 반론이 들어온다. 그러므로 토론에서는 훨씬 더 분석적이고 종합적인 사고력이 요구된다. 그래서 논술 공부에서 최선의 방법은 토론이라고 하는 것이다.

독서 토론은 면접 구술과 직결된다. 고입의 경우를 살펴보자. ○○외고 입시에서는 중학교 재학 중 독서활동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게 되어 있다.

다. 면접 영역별 평가 내용

자기주도 학습과정 및 진로계획 - 20점

봉사 및 체험 활동 - 10점

독서 활동 10점

· 학습계획서에 기재한 중학교 동안의 교과 진로 교양 관련 2권의 독서 및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독서 결과

※ 독서활동은 학생이 읽은 책 중 중요하게 생각하는 2권을 선정하여 작성

· 독서를 통해 배우고 느낀 점

고등학교입시에서 ‘발표 및 토론 평가’도 본다. 다음은 2009 ○○과학고등학교 신입생 선발 4단계 전형 문제지이다. 과학고 입시이지만 인문사회 관련 논제를 출제하고 있다.

※ 다음 제시문 (가), (나)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다음은 논어에 나오는 공자와 석공 간의 대화이다.

석공: 우리 마을에 직공이란 자가 있는데, 마음이 착하고 곧아 그 아버지가 이웃집 양을 훔치자 아들이 고발하였나이다.

공자: 우리 마을의 곧은 자는 그 같지 아니하니, 아버지는 자식을 숨기고 자식은 아버지를 위하여 숨깁니다. 진실로 곧음이란 그 가운데 있사옵니다.

(나) A 나라의 형법 중 ‘범인 은닉죄’란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는 범죄를 말한다. 여기서 은닉이란 장소를 제공해 범인을 감추어 주는 행위를 말하며, 도피하게 한다는 것은 범인의 체포·발견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이는 국가의 수사권 또는 재판권, 재판권 또는 형의 집행권 행사를 방해하는 범죄이다. 그러나 A나라에서는 범인은닉죄에 대한 예외 조항과 관련하여 가족이 범인은닉죄를 범한 때에 이를 처벌해야 한다는 국회의원들과 처벌해서는 안된다는 국회의원들 간에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문제: 가족 중에 누군가가 범법 행위를 했을 경우, 고발하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고발하지 않는 것이 옳은가? 두 견해 중 하나를 택하되 위의 제시문을 참고하여 자신의 생각을 정당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른 견해를 비판하시오. [30점]

그런 애 없어요.

“학비 감면을 받으면서 상위 3% 이내인 학생들을 추천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런 애 없어요.”

내가 독서논술토론 동아리를 이끌면서, 장학생을 모집하기 위하여 나누었던 대화 내용이다. 하나는 ○중학교, 또 다른 하나는 ㄴ중학교로, 두 학교 선생님 모두 독서 교육을 하는 분들이었다. 위의 말은 어려운 계층의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기 어렵고, 사실이 또한 그렇다는 것을 의미한다. 독서 논술 토론 활동을 하고 싶어도 가정환경 때문에 할 수 없는 학생들에게 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나는 올해 중학생 독서 논술 토론 장학생 팀을 운영하기로 했는데, 위 대화는 그 학생들을 뽑기 위한 과정이었다.

우리나라의 절대적 빈곤아동(만18세 미만) 비율은 10%쯤으로 10명에 한 명 꼴이다¹⁾. ㄴ중학교는 내 생각으로는 아주 부유층도 아니고 빈곤층도 아닌 중간 정도의 계층이 사는 곳에 있는 학교이다. 그 학교의 경우 1, 2학년 총550명 중 상위 3%라면 16명이고, 여기에 절대적 빈곤아동(만18세 미만) 비율 10%를 곱하면 1.6명이 된다. 그러나 그 학교에 상위 3% 이상이며 학비감면대상 학생을 단 1명도 찾기 어렵다는 것은 빈곤층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내기가 어렵다는 것을 사실로 확인해 준 결과이다. 더구나 절대적 빈곤층 학생도 아닌, 단지 학비감면 대상 학생들 중에서 찾기도 어렵다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ㄱ고등학교는 일반계 학교로 중간층 이하 계층이 사는 곳으로 추정되는데, 학비감면 대상자 학생이 1학년 240명 중 41명, 2학년 250명 중 55명으로 20%쯤이다. 즉, 학비감면대상자는 절대빈곤층 3%의 2배 이상이다. 그러므로 부유층과 빈곤층의 환경적 차이 없이 학생들이 똑 같이 성적을 낼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중학교에서 상위 3% 이상이며 학비감면대상 학생들은 전교에서 3명 이상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나는 ㄴ고등학교에 재직했을 때 논술 교육을 하면서 학비감면대상 학생들에게는 수강료도 감면받을 수 있게 하였었다. 이런 계산은 담당 교사가 해야 하는데 계산이 복잡해진다. 그런

1) 시장소득(정부지원 제외)이 최저생계비보다 적은 가정에서 살아가는 절대적 빈곤아동(만18세 미만) 비율은 2009년 9.6%(약 100만명 추산)로 2000년대 초 이후 줄어들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6세 이상 18세 미만 중 매일 혼자 있거나 형제자매와 함께 있어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아동은 110만7,330명(2008년 12월 기준)으로 추산되며, 민간에서는 이런 아동이 약 180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한민국, 복지의 길을 묻다] <2부> (2) 빈곤의 대물림, 취약 아동들 [한국일보] 2011-08-02 105면 | 41판

데 고등학생이 논술 교육을 받을 수준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성적을 거두어야 한다. 그러므로 빈곤층 대상 장학생 제도는 되도록 초중학교로 내려가서 보다 더 일찍 이루어져야 한다.

어떻게 그들과 경쟁할 수 있단 말인가?

한겨레교육센터에서 중학생 대상 토론 교육을 하는데 살펴보자.

[중학] 아해한겨레 시사 디베이트 교실[입문반]

- 강사명 : 한겨레 디베이트 전문코치
- 강의소재지 : 신촌센터
- 교육기간 : 2011/12/22 ~ 2012/01/26
- 수강시간 : 목 15:00~17:00 (6회/총12시간)
- 수강정원 : 12명
- 수강료 : 250,000 원
- 주 1회, 6주 동안 6회, 매 회 2시간씩, 1인당 25만원.

허균은 '유재론'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 왕조에 들어와서는 인재 등용의 길이 더욱 좁아졌다. 대대로 명망 있는 집 자식이 아니면 높은 벼슬자리에는 통할 수 없었고, 바위 구멍이나 초가집에 사는 선비는 비록 뛰어난 재주가 있다 하더라도 억울하게 등용되지 못했다.

허균이 살았던 조선 시대의 신분제 양반 상류층은 오늘날 없어졌는가? 아니면 오늘날 자본주의 시대 부유층들이 그들을 대신하고 있는가?

중산층 아이들이 과외며 학원 등 사교육이 벅차다며 불평하는 동안, 100만명이 넘는 빈곤층 아이들은 방치된 채 하루하루 떠돌며 보낸다.²⁾

2) [대한민국, 복지의 길을 묻다] 〈2부〉 (2) 빈곤의 대물림, 취약 아동들 [한국일보] 2011-08-02 | 05면 | 41판



나는 10년 동안 재직한 학교에서 독서 논술 토론 교육을 해 왔으며, 학교 밖에서는 여러 학교 학생들을 모아 연합 독서 논술 토론 동아리를 이끌어 왔다. 그 활동 장소는 주안도서관,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 미추홀도서관, 인천광역시청소년수련관 등이다. 처음엔 고등학생들만 했으나, 생각하기를 독서 교육은 이룰수록 좋다는 생각에서 초등학생 독서 논술 토론 활동을 2008년에 시작하였다. 그 학생들이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계속 지도를 원했다. 그래서 내가 그 학부모님들에게 의견을 제시하였다.

“제가 여러분의 자녀들을 2년 동안 무료로 지도해 주었는데, 이제 중학생 때도 지도를 바란다면, 가정환경 때문에 독서 논술 토론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없는 학생들을 위하여 장학생 팀을 만듭시다. 그리고 그 학생들까지 내가 지도할 여력이 없으므로 그 강사는 외부 초빙으로 하고, 학부모회에서 모든 운영을 주체적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모든 프로그램은 제가 제공하겠습니다.”

학부모들은 기꺼이 동의하였다. 참으로 고마운 일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나의 보람이기도 했다. 토론이 무엇인가? 입시를 위한 것인가? 그 본연의 목적이 그렇다면 나는 독서 토론 활동에 그토록 끌려들지 않았을 것이다. 토론이란 사회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길이다. ‘나’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연구 검토하고 의견을 나누며, 때로는 격론을 벌인다. 그러므로 토론을 오랫동안 했으면서 사회의식이 없다면 그는 토론을 잘못된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하여 올해 초 중학생 독서논술토론 장학생 동아리활동을 시작하였다. 이 자리를 빌려 그 학부모들이 자기 자녀에 대한 사랑과 더불어 다른 자녀들도 사랑하는 공동체 의식을 보여주었다는 데 높은 존경을 표한다.

나는 기억한다. 지지난해 한국외국어대학교 주최 전국 고등학생 영어토론대회에 출전하였던 공주 같은 여학생을. 그 학생은 8외국어고등학생으로, 영어 발연도 당차게 잘했으며, 외모도 수려하고, 옷차림이 품위까지 있었다. 특히 내 눈길을 끌었던 것은 그녀의 신발이었다.

구두였는데, 뒤통치에 형짚이 두 갈래 달려 있어서 그것이 발목을 감싸고 앞으로 돌려 마치 발목에 리본처럼 매어 있었다. 옷도 아니고, 머리도 아닌, 저 발목까지 치장을 할 수 있는 애라면, 오늘날의 귀족이다. 우리 빈곤층 학생들이 어떻게 그들과 경쟁할 수 있단 말인가?

너는 소수 엘리트주의자야

나는 엘리트 교육주의자다. 실제로 나의 연합 고등학생 독서 논술 토론 동아리에 가입하려면, 성적이 1% 이내여야 한다. 그리고 학부모가 반드시 청중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토론을 하는데 청중 없이 하는 것과 청중이 있는 경우와는 무척 다르다. 토론은 청중을 의식하면서 청중과 시선을 교환하면서 해야 한다. 입시 면접 구술 때 누가 교수와 시선을 교환해야 하는지를 모르겠는가? 그것은 누구나 다 안다. 다만 실행을 못 할 뿐이다. 왜? 안 해 봤으니까. 그러므로 토론 교육에서 청중은 단순히 구경꾼이 아니라 필수 요소이다. 나는 이런 점을 강조 설득하기 때문에 나의 토론 동아리 학부모들은 빠짐없이 토론에 '의무적으로' 참석한다. 그리고 그들은 토론장을 설치하고, 토론 중 발언자를 지명하고, 발언 시간을 계측하고, 차임벨을 울리며, 사진을 촬영하고 동영상상을 녹화하여 홈페이지에 올린다.

또한 나는 지금도 그렇게 믿는다, 독서 논술 토론의 심도 있는 과정은 모든 학생들이 다 받을 필요는 없다고. 그러므로 나는 소수 정예주의를 택해 오고 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대체로 상위 계층 학생들이 구성원으로 되었다. 이를 보고 나의 친구들이 이따금 나를 비판하였다. 너는 소수 엘리트교육주의자야. 그러한 나에 대한 비판은 맞다. 그러나 본디 나는 자유보다 평등을 지향한다. 그래서 나는 독서 논술 토론 교육을 '그들의' 활동에서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으로 하고 싶었다.

독서 논술 토론 장학생 모집 안내

1. 지원 자격

중학교 1, 2학년생으로, 학비 감면을 받고 있으며, 학교 정기고사 성적이 3% 이내인 자

2. 활 동 : 연 9회의 독서 논술 토론 (정기고사 직후와 방학 중 실시)

- 독서 :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나오는 작품들을 읽고 펄 홈페이지를 통하여 독서 평가를 받음.
- 논술 : 독서 논술문을 펄 홈페이지를 통하여 학생들이 작성하여 올리고, 지도 교사가 첨삭 지도
- 토론 : 방법은 원탁토론, 의회식토론, 교차조사식(CEDA)식 토론/ 장소는 인천광역시청소년수련관 또는 미추홀도서관/ 토론 동영상을 촬영하여 홈페이지에 올림.

* '중학부 펄'과 똑같은 프로그램이며, 나중에 '고등부'로 이어져 대입까지 지도받을 수 있음.

3. 신 청 : • 홈페이지 <http://www.openacademy.net/> • 회원 가입/ 문의 010-7331-7195

‘인천사람’과 살고싶다



글 > 신 현 수
부광고등학교
교사

왜 인천은 무시당할까. 정치의 계절만 되면 왜 인천에 살지도 않고, 살아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살 생각 없는 사람들이 집적거릴까. 만일 대구나 부산, 광주나 전주였다면 그렇게 했을까. 인천이 무시당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인천에 ‘사람’은 많지만 ‘인천사람’은 많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 누가 인천 사람일까. 먼저 당연히 인천에서 태어난 사람이 인천사람이다. 그러면 인천에서 태어난 사람은 모두 인천사람인가. 아니다. 인천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인천사람이다. 그러면 인천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모두 인천사람인가. 아니다. 인천을 사랑해야 인천사람이다. 그러면 누가 인천사람이 아닐까. 인천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인천사람이 아닐까. 아니다. 인천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도 인천에 살고 있으면 인천사람이다. 그러면 태어나지 않았지만 인천에 살고 있으면 인천사람인가. 아니다. 인천을 사랑해야 인천사람이다. 인천에 살고 있지 않은 사람은 인천사람이 아닐까. 아니다. 직장 등 여러 가지 사정상 인천에 살고 있지는 못하지만 인천을 사랑하면서 늘 돌아올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인천사람이다.

인천에 살면서도 모든 경제행위는 서울에서 하는 사람, 인천에서 돈을 벌면서도 살기는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은 인천사람이 아니다. 인천사람은 인천에서 태어났든 태어나지 않았든, 인천에서 살든 살지 않든, 인천을 사랑하고, 인천을 중심으로 사고하고, 인천을 내 자식들이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데 동참하고, 가능하면 모든 경제행위를 인천에서 하고, 적어도 내 자식들을 인천에 있는 학교로 보내는 사람이다.

나는 인천에 산지 50년이 훨씬 넘는다. 어머니 등에 업혀 백일 때 충북 청원군 가덕에서 인천 부평으로 올라온 후, 인천에서만, 그것도 부평에서만 그것도 백운역 근처에서만 50여년을 넘게 살았다. 물론 공부와 직장 때문에 잠시 부평을 떠난 적은 있었지만 어머니는 계속 살고 계셨으므로 떠나지 않은 거나 마찬가지다. 대학 2학년 1학기 마치고 현재 군대 가 있는 작은 아이는 태어나서 줄곧 한 아파트에서만 살았고, 현재 군대 때문에 처음으로 부평을 떠나 있다. 생각해 보면 농경사회도 아닌데 그것도 도시에서, 한 곳에서만 50년을 넘게 살았다는 건 어쨌든 대단한 일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50년 이상을 인천에서, 부평에서 살았지만 실은 그냥 별 관심 없이 살았다. 아니 잠만 잤다. 마음먹고 인천을 돌아다녀 본 적도 없다. 마음먹고 인천을 공부해 본 적도 없다. 인천의 주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다. 그래서 정치의 계절만 되면 무주공산인 듯 인천, 부평과 아무런 연고도 없는 이들이 집적거리는 것도 다 나 같은 사람 때문이라는 생각이 든다.

얼마 전에 지역 모 방송에 출연할 일이 있어 갔다가 방송사 사장과 나눈 이야기 한 토막. 인천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방송에 좀처럼 나오지 않는다. 혹시 어쩌다가 나오면 나쁜 일만 나온다. 누가 누구를 죽인 일, 불난 일, 물이 넘친 일, 공직자들이 부정을 저지른 일만 나온다. 반대로 서울은 햇볕 좋은 봄날, 가족들이 공원에 나와 휴일 한낮을 즐기는 화면이 나온다. 그러니 인천시민들 사이에 인천은 서울에 비해 사람 살 곳이 못 된다는 인식이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그래서 능력과 기회만 되면 인천을 떠나고 싶어 하고, 인천에서 경제행위를 해도 집은 서울에 두려고 한다는 것이다. 결론은 인천에도 방송국, 특히 텔레비전 방송국이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일리 있는 얘기였다.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인천의 공직자들이 이따금 부정을 저지르기가 하겠지만 나는 그것이 결코 인천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또한 공직자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 특히 부정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건 아니라고 본다. 공직자들의 비리와 비위가 방송과 신문에 자주 보도되고 있는 것에 대한 매우 독특한 해석이 있는데, 그건 '인천' 이라서 그렇다는 것이다. '인천' 이라서 그렇다는 것은 대체 무슨 뜻인가. 다 아는 것처럼, 인천은 인구구성비가 매우 다양한 도시이다. 일단 조상 대대로 인천에서 태어나고 살아온 토착세력, 한국전쟁 시기에 월남한 이북출신 세력, 산업화시기에 상경한 호남세력, 물길이 가까워 심지어는 학교도 인천으로 다녔던 충청세력이 있다.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온 노동자들, 심지어 소위 새터민들도 인천이 많다. 그래서 각 세력이 각축하다 보면 그런 비위와 비리가 쉽게 겹으로 드러난다는 것이다.

인천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인천사람이 아닐까. 아니다. 인천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도 인천에 살고 있으면 인천사람이다. 그러면 태어나지 않았지만 인천에 살고 있으면 인천사람인가. 아니다. 인천을 사랑해야 인천사람이다. 인천에 살고 있지 않은 사람은 인천사람이 아닐까. 아니다. 직장 등 여러 가지 사정상 인천에 살고 있지는 못하지만 인천을 사랑하면서 늘 돌아올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인천사람이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기에 인구구성비가 단일한 도시는 일사불란할지 몰라도, 일의 처리가 빠를지는 몰라도, 그건 도시건강에 매우 좋지 않다. 생물학적으로도 동종교배는 필망이다. 잡종교배가 건강하고 오래 간다. 제때 제때 좋지 않은 상황이 겹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결국 몸은 굼아 터지면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지고 만다. 아플 때 아파야 스스로 치유능력을 갖게 된다. 인구구성비가 다양한 인천은 마치 당쟁의 순기능처럼 각 세력이 각축하는 사이 건강하고 활기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다.

인천에 희망이 있을까? 희망이 있다. 인천의 다양한 인구구성비는 이제 더 이상 부끄러움이 아니라 자랑이고 기회다. 지역의 원로 한분은 인천을 ‘해불양수’의 도시라 했다. 바다는 이 강물 저 강물 가리지 않고 모두 품는다. 바다의 도시 인천은 출신지역을 가리지 않고 모두 품는다. 바다의 도시 인천은 신분을 가리지 않고 모두 품는다. 그리고 모두 함께 커다란 희망을 만든다. 그리하여 우리가 인천에서 만든 희망을 전국으로 아니 한반도 전체로 전염시켜 나갔으면 좋겠다.



교육이란 더 높은 차원의 편견을 습득하게 하는 것이다. - 피러

학부모가 아닌 부모의 마음으로



글 > 김 문 숙
인천신송초등학교
임희서, 임희원 엄마

“당신은 부모입니까? 학부모입니까”

지난 4월초 학교에서 가정통신문이 한 장 보내졌다. 시큰둥하게 가정통신문을 들여다보는데 눈에 확 띄는 낱말이 있었다. ‘학’, ‘력’, ‘향’, ‘상’. 자세히 들여다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정통신문의 내용은 이러했다. 인천광역시 교육과학연구원에서 개발한 청소년의 학력향상을 위한 심리 정서적 지원 프로그램을 학교 누리집 ‘학부모연수’ 방에 올려놨으니 내용을 살펴보고 실천해 보라는 것이었다. 무엇인가 싶어 바로 학교 누리집에 들어갔다. 학생들이 흔히 겪는 20가지의 일반적인 상황들 속에서 부모가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이 제시되어 있었다.

영상에 나온 20가지 엄마의 모습이 마치 나를 보는 것 같아서 뜨끔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엄마는 강해야 해. 강할 수밖에 없어.’, ‘직접 키워봐, 뜻대로 되나.’ 하며 스스로를 위로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구석은 아이들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내 자신이 부끄러웠다. 우리 아이들은 시험을 잘 보든 못 보든 걱정을 하지 않는 것 같아서 그동안 많은 잔소리를 했었다.

“넌, 생각이 있니? 없니?”

하면서 다른 친구와 대 놓고 비교는 하지 않았지만 사실 빙빙 돌려서 비교하기도 하고,

“이번 시험 잘 보면 내가 원하던 거 들어줄게.”

하며 어이없는 거래를 제안하기도 했었다.

때로는 시험공부 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격려는커녕

“잘 볼 수 있지? 엄마 실망 시키지 마라.”

하면서 부담을 짊어 주었다. 지금 생각하니 우리 아이들을 자극하는 말만 골라서 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 창피하기만 하다.

하루는 외출했다 들어와 보니 아들이 책상에 앉아 있었다. 현관 문소리를 듣고 후다닥 책상에 앉았다는 것을 엄마의 예리한 직감으로 알 수 있었지만, 학부모 연수 자료 중 ‘자녀가 공부를 하고 있을 때’라는 영상에서 엄마가 비난으로 대화를 시작하면 대화가 단절된다고 했고, 긍정으로 시작한 대화는 긍정의 대답이 있다고 했으니 꾸~욱 참고, 아주 낭랑하고 상냥한 목소리로

“와~ 우리 아들 공부하고 있었네. 엄마가 없어도 스스로 공부도 하고 다 컸다. 훌륭하다.”

하고 침이 마를 정도로 칭찬을 열심히 해주고 있는 찰나 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아들은 고개를 들었다 내렸다 하기 시작했다. 이걸 공부해서 목이 아프다는 신호. 좌우로 흔드는 건, 휴~힘들다, 조금 설까하는~ 신호이다. 아니나 다를까.

“엄마, 저 나가서 축구 좀 하고 와도 되죠?”

하는 거다. 문제집 고작 몇 장 풀고 나가겠다는 소리. 마치 몇 과목 진득하니 앉아서 푼 것처럼. 엄마 기분도 좋은 것 같으니 틈새를 노리는 이 노련한 녀석.

엄마가 이정도 했으면 ‘아하 우리 엄마는 이렇게 스스로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구나.’ 하고 감으로 알아야 하는 것 아닌가? 그래도 내가 영상도 봤고, 꺾꺾 참았는데 결국……. ‘영상이고 뭐고 내 머리와 가슴엔 지우개가 있는 것 같다.’

“컴퓨터 없애야겠다. 공부하기 싫으면 하지마라. 학원은 공짜로 다니는 게 아니다!!”

하며 헐박 아닌 헐박을 했다. 칭찬은 잠깐, 헐박은 아주 길~게! 이런 일은 다반사다.

“최고보다는 최선을 다하며 인생을 즐길 줄 아는 멋진 아이들로 성장할 때까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지켜보고 격려해주는, 학부모가 아닌 부모가 되면 어떨까…”

내 아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키거나 부모 속을 썩이는 아이는 분명 아니다. 단지 엄마 기대에

미치지 못할 뿐이다. 때론 감동도 주고 가끔은 엄마의 마음도 이해해주는 아들이지만 난 매일 훌륭한 아들이기를 바라고, 올백 맞고, 이름만 말해도 다 알아주는 그런 괜찮은 녀석, 소위 말하는 엄친아로 자라 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당신은 부모입니까? 학부모입니까’ 라는 공익광고가 생각난다.

부모는 멀리 보라하고 학부모는 앞만 보라고 합니다.

부모는 함께 가라하고 학부모는 앞서가라 합니다.

부모는 꿈을 꾸라고 하고 학부모는 꿈을 꿀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나는 부모이기 전에 학부모로서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 같다. 학부모이기에 너그럽지 못하고 학부모이기에 조바심내고 학부모이기에 무조건 잘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아이들을 혼내기도 하고 무섭게 할 때도 있지만 속으로는 ‘난 괜찮은 엄마야. 이해도 잘 해주고 말도 잘 들어주고, 쿨 하잖아, 이정도면 요즘 흔히 말하는 신세대 엄마 축에 끼지 않겠어?’ 생각했지만 나 혼자만의 착각이었을지도 모르겠다.

노자 도덕경에는 사랑이란 이름으로 간섭하지 말라고 하면서 ‘천지불인(天地不仁)’을 제시한다.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하늘과 땅은 어질지 않다’는 말로 저 하늘과 땅은 그 안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에 대하여 사랑이란 이름으로 간섭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하늘이 비를 내리고, 계절을 바꾸는 것이 어떤 사랑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가 아니다. 그저 때가 되면 비가 내리고, 계절이 바뀌는 것이 자연의 당연한 이치일 뿐, 어떤 목적, 특히 사랑이라는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그동안 사랑한다는 이유만으로 아이들을 간섭하고 나의 의도를 강요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내가 먼저 바뀌면 나의 아이들도 조금씩 달라질 것이라 생각한다. 진심은 통한다고 스스로를 반성하고, 또 자녀와 자주 대화를 나누고 엄마의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면 분명히 우리 아이들도 어느새 몸도 마음도 반듯하게 성장할 것이라 믿는다.

끝으로 학부모연수가 알찬 내용으로 계속 활성화되기를 바라며 더불어 최고보다는 최선을 다하며 인생을 즐길 줄 아는 멋진 아이들로 성장할 때까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지켜보고 격려해주는, 학부모가 아닌 부모가 되면 어떨까 생각해 보게 된다. 감시 감독자가 아닌 동반자가 되어야겠다.



글 > 한 연 순
인천연성초등학교
교사 · 시인

엽서 한 장

누군가에 조금 예쁜 꽃으로
다가선다는 것
누군가에게
홀로 깊어가는 가을 길처럼
따사로운 의미가 된다는 것
누군가에게
호수에 잠긴 흰 구름처럼
눈이 부신 거울이 된다는 것
누군가에게
노을 타는 빨간 우체통처럼
오래 기다린 안부를 함께 물어준다는 것
누군가에게
가을 고요가 되어
휘돌아 온 길들의
아름다운 풍경이 된다는 것
그래서 누군가에게
앞새마저 모두 내어 준 겨울나무가 되어
그리움으로 남는
엽서 한 장 남기고
떠나갈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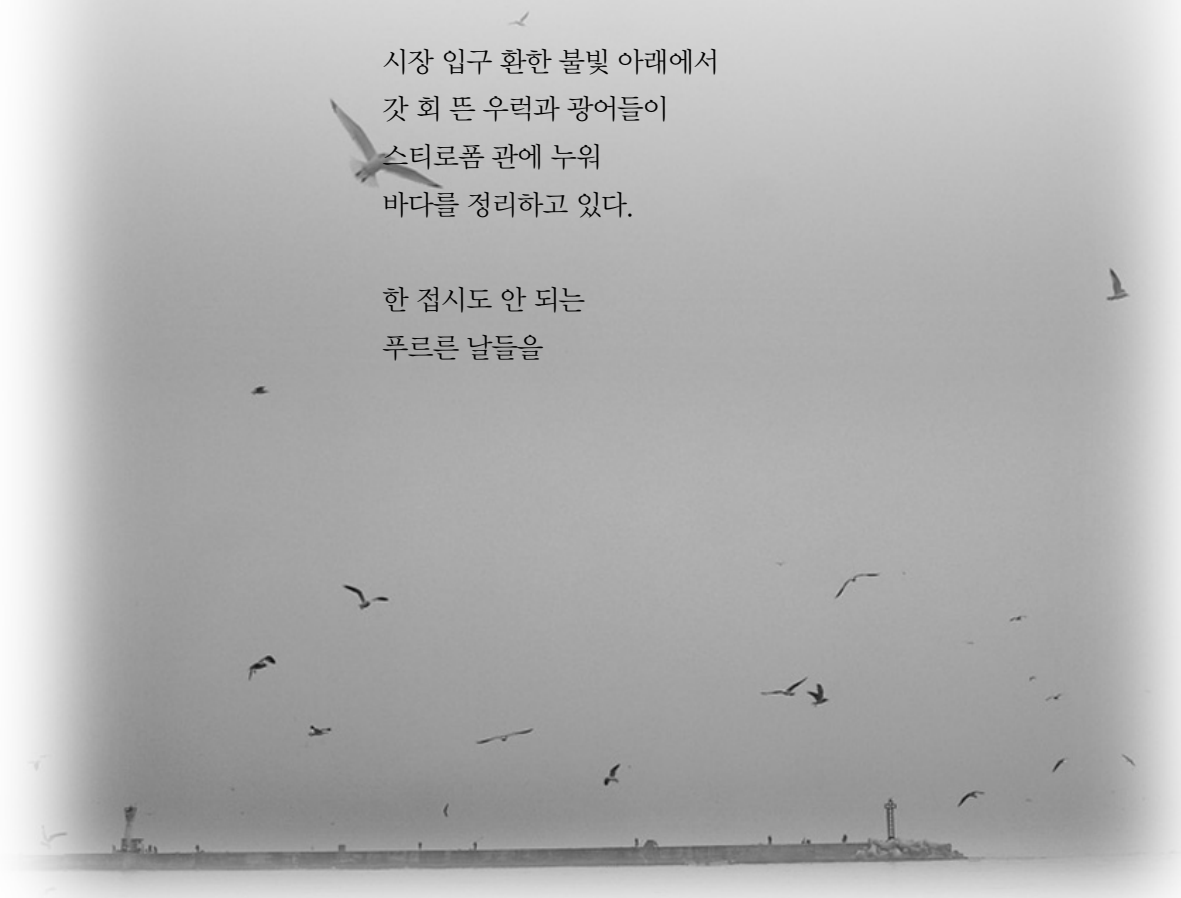


연안부두

일요일 새벽같이
싱싱한 갈치조림 병어조림 해먹자고
바다 서 너 근
사러간 날

시장 입구 환한 불빛 아래에서
갓 회 뜬 우럭과 광어들이
스티로폼 관에 누워
바다를 정리하고 있다.

한 접시도 안 되는
푸르른 날들을





글 > 원 유 자
신송중학교
교장

빈 공간

아! 공간이 비었구나.
어제까지도 표주박에 쌀이 넘쳤건만
오늘 치과 드릴로 벌레 먹은 자옥을 갈고 아말감을 씌우고
헛헛하여 쌀을 푸니 조롱박만 텅그마니 비어있네.

산다는 것은 생 배추잎처럼 비릿하고
헛꿈을 꾸게 하는 것.

미쳐야만 김치가 된다.
콩이 무쇠솥에서 자신의 단물을 녹이고 가슴속에 박테리아를 품고
햇볕 앞에 뭉쳐서 발가벗겨져 간장으로 향아리에 고이듯이
順命한다는 것은
구하지 않는 것,
두드리지 않는 것,
이미 열려진 문을 찾는 것,
그래도 걸어가야 하는 것.

그 길이 다하면 허기 끝에 맞닿아 있는 커다란 동굴 옆에 돌아나는
냉이, 원추리, 쑥부쟁이. 스스로 굶은 길에 이른다.
왜 철은 산통이 다 깨진 다음에 오는 것인지.
산통 없이 아이는 태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물이 아래로 흐르듯,
밤과 낮이 바뀌지 않는 것처럼 변함이 없다.
강릉 허난설헌의 27살 요절 뒤에 그의 상처가 아직도

술한 사람의 가슴에 뜨고 눈물로 머금은 것은 그의 영혼이 너무도 아파
파장이 지금까지 전해오는 깊은 슬픔.
오늘 아픈 엄지 발가락 고름을 짜내며
천국과 지옥을 왔다갔다 하면서 둘은 같은 길로
이어졌음에 안도한다.
모든 것이 다 있고 없다.

나는 뒤통뒤통
아이들에게 미치지 않는 내 향기
등잔불이 타오르지 않는 내 언어의 심지.
내 공간이 비어있음 깨닫는다.
영혼의 샘물이 고갈된 이 겨울
내가 세상에 위로가 될까 친절을 핸드백에서 뒤척거린다.
내 공간은 가득 너무 채워져 있었다. 그래서 담을 수 없었다.

■ 참여와 어울림



그림 > 곽 형 진
인천광역시학생종합수련원
교학과장



정선기행1



정선기행2

■ 참여와 어울림



사진 > 이 응 복
조산초등학교
교장



강화도의 만추



사진 > 강 혁
인주중학교
교사



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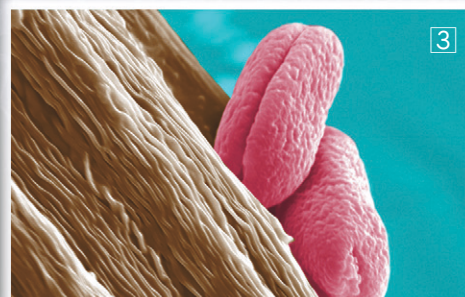
미시와 거시의 세계

미시세계 - 인천광역시 교육과학연구원
고급광학기기(전자현미경) 촬영 우수작품

거시세계 - NASA 제공 사진

❶ 최우수상
강아지풀 단면 (옥련중학교 배원호 교사)

❷ 고래밥 (신송고등학교 백홍선 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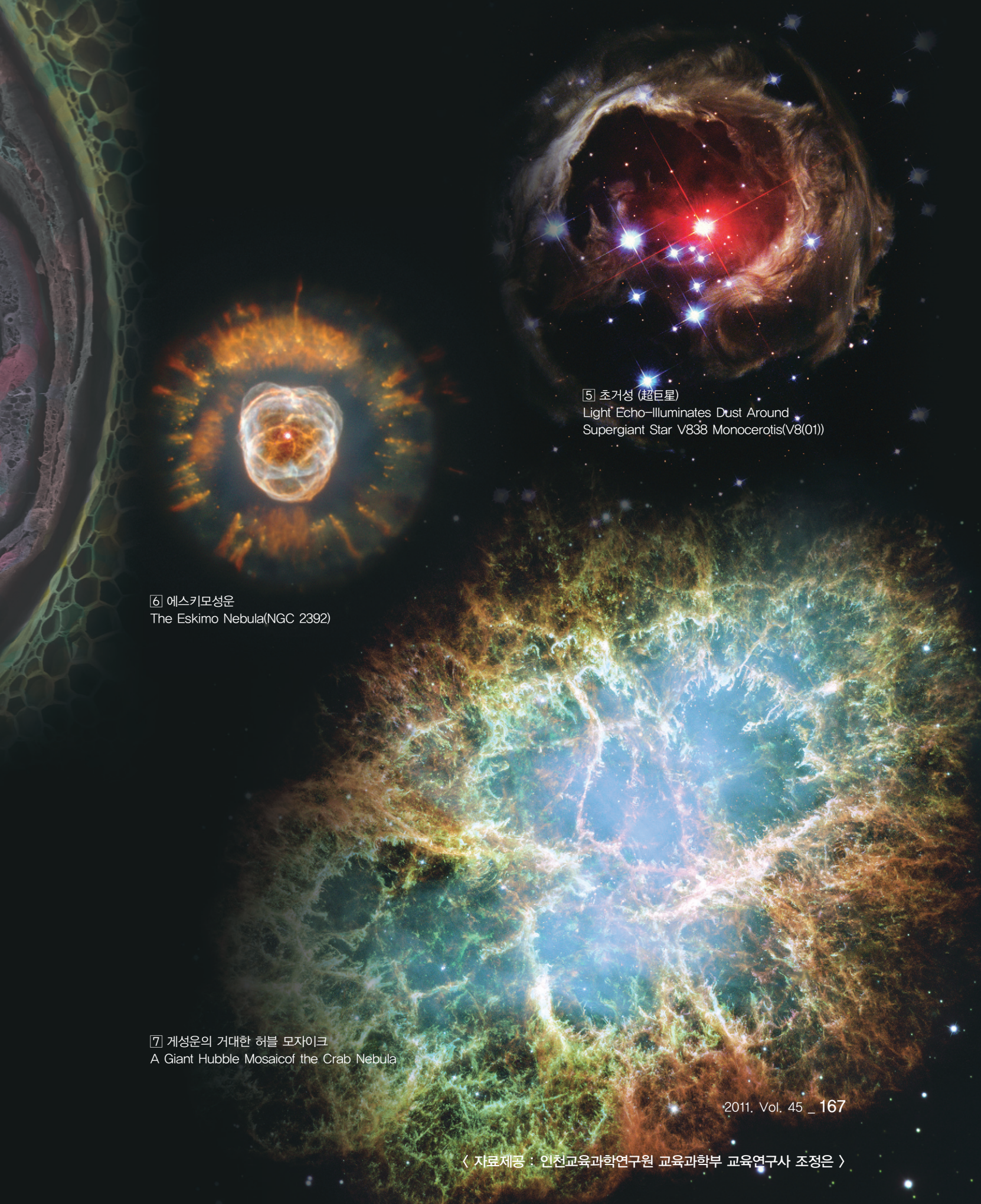
3



4

❸ 맥문동꽃가루 (구월여중 한경숙 교사)

❹ 해바라기꽃가루 (인천진산고등학교 이은숙교사)



[5] 초거성 (超巨星)
Light Echo-Illuminates Dust Around
Supergiant Star V838 Monocerotis(V8(01))

[6] 에스키모성운
The Eskimo Nebula(NGC 2392)

[7] 게성운의 거대한 허블 모자이크
A Giant Hubble Mosaic of the Crab Nebula

내 인생의 평생 스승 **다산 정약용**



글 > 장 인 선
인천해송고등학교
교감

잡스는 ‘혁신’을, 다산은 ‘신아구방(新我舊邦)’을

세계적인 IT 천재 잡스가 세상을 떠났다. 애도의 물결이 전 세계로 번지면서 인간의 천재성이 발휘하는 창조행위가 인류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가를 똑똑히 보여주었다. 에디슨이나 포드의 전기와 자동차 혁명에 견주면서 인간의 능력이 극대화될 때 미치는 영향력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가 우리 인류에게 던진 짙은 경구(警句)들이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과정에서 더욱 큰 의미로 부각되어, 많은 울림을 선사해주기도 했다. “Stay hungry, Stay foolish”라고 그가 외쳤던 어떤 대학에서의 연설 내용이 두고두고 세상 사람들의 심금을 울려주고 있다. ‘끊임없이 갈망하고 끊임없이 우직스러움을 유지해야만 어떤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그의 인생관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와 닿는 이야기로 회자되고 있다.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의 사랑보다는 양부모 밑에서 자라야 했고, 정규교육을 받지 못하고 학교를 자퇴한 뒤 온갖 고초를 겪으며 젊은 시절을 보내야 했으며, 사업에 대성하여 큰 기업의 CEO가 되었으나 자신이 만든 회사에서 밀려나는 뼈저린 아픔을 겪어야 했다. 그럼에도 그가 결코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며 끝내는 세계적인 창조자의 한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힘은 바로 ‘stay’라는 지속성·항구성·끊임없는 투혼에 있었다는 것을 그의 삶이 온전히 보여주고 있다.

잡스보다 200년 전에 태어난 다산 정약용의 인생관이나 철학에도 그에 못지않은 지속성과 항구성, 끊임없는 투혼을 발견할 수 있다. 천재성을 타고난 점에서 그렇거니와 18년의 유배생활, 18년의 미 복권 상태로 생을 마칠 수밖에 없었던 불우한 삶에서도 그는 밤낮을 쉬지 않고 학문 연구와 세상을 구하는 저술

에만 몰두했던 실학자였다. 역적죄로 처벌받아 세상의 버림을 받았고, 집안은 폐족이 되어 희망을 지닐 수 없는 불행한 처지에서도 그는 줄곧 새로운 세상을 만들 대안 마련에 일생을 바쳤다. 다산은 동양 유학의 핵심과제의 하나인 「중용(中庸)」이라는 경전에 나오는 ‘중용’의 해석에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해석을 내렸다. 주자학에서는 ‘용(庸)’을 ‘평상(平常)’으로 여겨 치우치거나 기울지 않은 보편성으로 해석했는데, 다산은 평상일 수 없음을 밝혀, ‘오래 버틸 수 있어야 귀하게 여긴다(能久爲貴)’라고 설명한다. 『주역』의 ‘항구불이(恒久不已)’와 ‘자강불식(自強不息)’을 인용하여 ‘유상(有常)’의 개념으로 해석했다. 항구토록 그만두지 않고, 쉼 없이 계속 노력하는 일로 해석하여 의욕을 끝까지 밀고감을 뜻한다고 설명하였다. 잡스는 ‘혁신’을 외쳤고, 다산은 ‘신아구방(新我舊邦)’이라 외치며 국가를 통째로 개혁하자고 주장했다. 개혁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고 경고했다. 잡스의 위대함을 찬양해야겠지만, 다산의 탁월한 선견지명에도 존경심을 표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학생들의 의식을 띄워줄 수 있는 이야기거리를 찾던 중 만났던 ‘애절양’이란 그의 시는 처음 보던 순간부터 충격이었다.

“...시아버지 상에는 이미 상복 입었고, 갓난아인 배냇물도 채 마르지 않았는데, 삼대의 이름 군적에 실리다니... 말 돼지 거세함도 가슴 아프다 하는데 후손 이을 사람이야 말해 무엇하리요. 부자들은 1년 내내 풍류나 즐기면서, 쌀 한 톨 비단 한 치 바치는 일 없으니, 다 같은 백성인데 왜 그리 공평하지 못할까. 객장에서 거듭거듭 시 구편을 읊조리네.”

관료들의 부패와 횡포가 극심하던 조선 말 당시, 죽은 아버지, 갓 태어난 아이마저 군적에 올라 작위를 당하다보니, 아예 아이를 낳을 수 없도록 스스로 성기를 잘라버린 남편을 서러워하며 통곡하는 아낙을 보고 지었다는 시다. 내용의 충격도 컸지만, 그런 적나라한 내용과 ‘다 같은 백성’임을 공공연하게 드러낼 수 있는 다산이란 인물이 준 충격은 훨씬 더 강하고 끈질긴 것이었다.

다산은 알면 알수록 거대한 산이요, 사방팔방이 탁 트인 넓은 평야였다.

저서를 500여권이나 남길 만큼 쉴 틈도 없이 글을 읽고 쓴 학자요, 저술가였지만 조금도 삶과 유리되지 않았고, 천주학과 과학, 의학 등 서학에 심취했을 때도 전통적인 성리학을 결코 무시하지 않았다. 그는 사방을 자유롭게 거닐며 ‘실학’이란 거대한 산을 완성시켰으며, 근대의 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그 가운데 가장 먼저 손에 집어든 것이 살림에서 펴낸 <다산 정약

용>이다. 다산에 관한 책은 꽤 많다. 그러나 대체로 너무 어렵거나 한 영역에 치중되어 있다.

그의 사상이나 한 영역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보다는 그를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그만의 독특한 아우라를 맛볼 수 있게 하는 편이 좋다고 생각했기에, 1부에는 다산의 삶을, 2부에는 다산의 대표작 서문 등을 실은 ‘이(e)시대의 절대사상’ (다산 정약용)을 선택하여 추천하게 되었다.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는 위대한 사상가는 이전 시대에서 넘겨받은 세계관의 한계를 깨뜨리고 다음 시대를 위해 새로운 세계관을 제시한다. 정약용은 천주교 교리의 영향을 받았으면서도, 천주교 교리를 내세우지 않은 유학자이다. 오랜 연구업적을 쌓은 학자들의 통찰력으로 고전을 쉽고 흥미진진하게 풀어쓴 『e시대의 절대사상』 제5권에서 유학과 서학의 창조적인 종합자였던 다산 정약용의 삶과 사상, 저작들을 만날 수 있다. 이 책은 다산의 성격이나 인품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그의 학문과 사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1부에서는 다산이 살았던 시대와 그의 삶, 사상의 핵심적인 부분들을 다루었고 2부에는 시, 책, 의, 소, 론 등 다산이 쓴 다양한 글들을 수록하였다. 3부에서는 다산에 관한 저술들과 그의 연보를 수록하고 있다. 이 책만큼 그의 가치와 향기를 오롯이 맛볼 만한 책이 없기에, 교사들에게 이 책을 권하고 싶다. 이런 점에서 교사로 수업할 때나 교감이 된 지금도 우리학교 학생 기자들이 “선생님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누구인가요?” 라는 질문에 나는 서슴지 않고 다산 정약용이라고 답한다. 스티브잡스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전 세계에 널리 알려져야 할 인물이 다산 정약용이다. 다산의 생애를 간략하게 소개해보고자 한다.

다산은 22세 때(1783) 진사시험에 합격하여 성균관에 들어갔다. 이때 당시의 임금인 정조의 눈에 띄어 인정받게 되는데 그것은 그의 뛰어난 재능과 학문 때문이었다. 다산은 성균관 생활이 끝날 때까지 여러 차례 시험을 통해 정조의 총애를 받았다. 28세 때 1789년 문과에 급제하여 본격적인 벼슬살이를 시작하였다. 그는 첫 벼슬인 희릉직장을 비롯하여 사간원정언, 사헌부지평을 거쳤다. 이즈음 그는 ‘성설’과 ‘기중도설’을 지어 수원성을 쌓는데 유형거와 거중기를 만들어서 사용할 것을 건의하였으며 이로써 많은 경비를 절약할 수 있었다. 경기도 암행어사로 나가서는 가난하고 핍박받는 백성들의 고통을 생생하게 목격할 수 있었다. 암행어사로써 그는 전 연천 현감 김향직과 전 상양 군수 강명길의 폭정을 고발하여 처벌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통해 책임과 관리의 의무를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다. 천주교와 만남도 그의 삶에 큰 비난을 가져다주었다. 그는 23세때 천주교를 처음으로 접했다. 이후 그는 한때 천주교 서적을 읽고 심취하기도 하였으나 성균관에서 학업에 정진하느라고 곧 손을 떼었다.

그리고 다산 정약용(1762~1836)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실학을 집대성한 조선조 후기의 학

자다. 그는 실학을 집대성한 학자답게 정치·경제·역리·지리·문학·철학·의학·교육학·군사학·자연과학 등 거의 모든 학문 분야에 걸쳐 방대한 양의 저술을 남겼다. 5백여권에 달하는 이 저술들은 깊고도 넓은 학문세계로 인하여 오늘날까지 살아 있는 우리의 고전이 되고 있다.

본질보다 허상 속에서 허덕이는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하와이대학의 미래학자 짐 데이토 교수는 21세기를 꿈의 사회(Dream Society)로 규정했다.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를 거쳐 지식사회로 우리 인류는 발전해왔고 이제는 꿈의 사회가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꿈의 사회라는 것은 미래가 희망적이고 낙관적인 꿈을 갖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 아닌 가상의 세계에 살게 된다는 것이다. 사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가상의 현실에 더욱 빠져 들고 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과 무관한 많은 일들에 열광하면서 우리의 시간과 자원을 투자하고 있다. 아직 실현되지 않은 거래인 선물투자나 주식이 치가 떨어지면 돈을 벌 수 있는 게임 같은 금융상품들이 곳곳에 등장하고 있고 사람들은 생산에 직접 관계하지 않으면서도 주식투자에 열을 올린다. 프리미어리그를 시청하느라고 밤을 새우고, 박지성 선수가 맨유와 재계약했다는 뉴스에 마치 가족이 취직된 것처럼 기뻐한다.

선진화된 사회는 즉흥적인 분위기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각 분야의 전문성이 축적된 가운데 이성적 판단에 기초한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가면 갈수록 즉흥적이고 천박해지는 것 같다. 국회 청문회도 장관의 전문성보다는 윤리적 이미지를 부각시키려 노력하고, 언론도 심도 있는 현실분석보다는 자극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즉흥적인 허상에 근거해서 판단한다.

이 처럼 꿈의 사회가 되다 보니까 본질보다는 허상이 더욱 두드러지고, 지속적인 가치보다 순간적인 이미지가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된다. 전문가의 견해보다는 문제를 단순화하여 명쾌하게 판단을 내리는 아마추어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쾌도난마(快刀亂麻)에 열광한다. 더 나아가 언론과 인터넷은 사실을 과장하고 급속한 전파력으로 여론을 주도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쉽게 흥분시키고 즉흥적인 판단에 빠지게 만든다. TV의 조명을 받으면 하루아침에 국민요정이 되기도 하고 국민여동생이 되기도 하며, 국민MC로 떠오르기도 한다. 하지만 아주 작은 사건 하나에 영웅은 순식간에 파렴치범이 되고 평범한 사람은 영웅이 되기도 한다. 정신의 쫓대인 열에 맛이 간 열간이판 세상살이, '일등 되기=돈=성공'을 추종하는 길과 자신의 내면과 접촉해 자신만의 길을 가는 방식 중 어느 쪽이 진짜 열간이인가?

조선 정조 시대 실학자 정약용 선생께서 1804년 유배지 강경에서 쓰셨다는 시조 ‘독소(獨笑)’라는 시가 있다. 250여 년 전의 사회 풍자 내용이지만 공감이가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역시 다산은 위대한 나의 스승임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고 있다. 이 시대에 새로 조명해 볼 다산 정약용의 명언 한 가지 소개하며 이 글을 마친다.

有粟無人食(유속무인식) / 양식 많은 집은 자식이 귀하고
 多男必患飢(다남필환기) / 아들 많은 집엔 굶주림이 있으며,
 達官必蠢愚(달관필준우) / 높은 벼슬아치는 꼭 멍청하고
 才者無所施(재자무소시) / 재주 있는 인제는 재주 펼 길 없다.
 家室少完福(가실소완복) / 완전한 복을 갖춘 집 드물고,
 至道常陵遲(지도상릉지) / 지극한 도는 늘 상 쇠퇴하기 마련이며,
 翁齋子每蕩(옹색자매탕) / 아버지가 절약하면 아들은 방탕하고,
 婦慧郎必癡(부혜랑필치) / 아내가 지혜로우면 남편은 바보이다.
 月滿頻值雲(월만빈치운) / 보름달 뜨면 구름 자주 끼고
 花開風誤之(화개풍오지) / 꽃이 활짝 피면 바람이 불어대지.
 物物盡如此(물물진여차) / 세상 일이란 모두 이런 거야.
 獨笑無人知(독소무인지) / 홀로 웃는 까닭 아는 이 없을 걸.

현 장 메 아 리

인천교육 44호를 읽고

교육현장에서 외면하기는 결코 쉽고 끌어안기에는 부담스러운 과제중의 하나가 창의인성교육이다. 기획! <창의·인성교육의 활성화>는 슬로건으로서의 창의적 인재육성이 아닌 교육의 구체적 목표로서의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 구성, 운영의 방법, 평가와 진로까지 일관성 있게 안내해 주고 있어 이해하기 쉽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

또한 교육현장의 뜨거운 감자인 생활지도, 교실 안에서의 특수 장애아 교육, 교원업무경감방안 등의 기획물 역시 교육현장이 안고 있는 본질적·일차적 문제들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도움이 되는 알토란 같은 정보이다.

〈일신초등학교 교사 지권섭〉

눈이 번쩍~

귀가 솔깃~한 내용들로 꼭꼭 눌러담았네요.

두고 두고 먹을 김장처럼 힘들고 궁금증이 생길 때 맛깔나는 글을 한 포기 한 포기씩 꺼내 읽으며 힘차게 근무할게요.

좋은 글 감사히 읽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연성중학교 교사 정은순〉

인천교육 44호를 읽으면서 처음 드는 생각은 소통의 필요성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일 년 동안 쉴 새 없이 밀려드는 업무와 개성 있고 자기 주장이 강해지는 아이들 속에서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일까 하는 반문에 어떤 답을 이끌어 내지 못한 채 스스로의 한계에 지쳐가고 있을 무렵이기 때문에 더욱 절실한 필요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인천교육을 통해 저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다양한 아이들을 끌어안고 실천적인 교육을 구현하려는 인천교육계의 다양한 목소리와 노력을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늘 멈추어 있는 것 같으나 남보다 용기 있고 소신 있게 교육하고 계신 분들의 글을 통해 현재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독서토론동아리의 2011년 주제가 세상과의 소통이었는데 인천교육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분들과 소통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변화하는 시대에 대한 생활지도' 나 '창의인성교육'에 대한 특별기획이 개인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배우지 않고 들으려 하지 않는다면 내 틀을 넘어서는 어떤 교육도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인천교육을 통해 그 틀을 넘어서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생활과학고등학교 교사 최금희〉



현 장 메 아 리

인천교육 44호를 읽고

인천교육 44호, 책이 참 예뻐졌다.

제호 글자체가 시원하다. 덧잎 같은 세로획과 무시히 빠져 올린 가로획, 장난기 섞어 길게 내려 그은 기억자가 자유로워 보인다. 농담(濃淡)을 조절하며 슬쩍슬쩍 이어지는 푸른 빛이 안정감과 세련미를 더한다.

책을 넘기니 인사말에 글씨의 목소리가 정겹게 배어 나온다. 특별기획 I,II 에서는 창의·인성 교육과 생활지도-학교 교육에서 중요한 두 축을 6개의 시각으로 접근하여 다각적 이해를 돕는다. 좋다.

기회가 된다면, 학생 휘어감는(?)법, 접근하기 힘든 학생들과의 의사소통법, 학습코칭 등 현장의 고민들을 사례 중심으로 다뤄주면 좋겠다. 이 책이, 힘겨워하는 선생님들에게 교육에 대한 열정과 희망의 불씨를 되살릴 수 있으면 좋겠다.

〈간재울중학교 교감 심영란〉

“와~! 예쁘다!”

새로운 외모로 거듭난 인천교육 44호의 모습에 탄성이 나온다. 2011년 인천교육연구위원보를 만들어서 인지 인천교육의 달라진 모습에 눈길이 저절로 간다. 내용이 궁금하여 단번에 읽어보았다. 요즘 교육계의 화두가 되고 있는 창의인성교육, 창의적 체험활동 등을 다루고 있어 한번 펼쳐자마자 내용속으로 빠져들게 되는 묘한 매력을 발산하고 있다.

〈인천교육연구원 연구사 서은희〉

무엇보다 이번 인천교육 44호는 특별 기획 의도를 분명히 이해할 수 있었다. 요즘 교육계의 화두인 창의·인성교육 관련 저명한 전문가의 견해와 에듀팟 활용 및 학교 현장에서의 수업 실천사례 등의 활용 가치를 높이는 내용이라서 더욱 좋았다. 또한 생활지도 관련 심층 내용과 분석은 교사와 학부모 모두가 고민하는 학생지도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바쁜 업무 중간 중간에 읽으면서 좋은 정보를 제공 받아 한층 up된 나를 발견할 수 있었다. 주마가편(走馬加鞭)이랄까 작은 아쉬움이라면 창의인성 함양 수업 실천사례를 교과별로 좀 더 확장해서 소개했다라면 창의·인성교육을 고민하는 선생님들에게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욕심은 인천교육紙에 대한 나의 지나친 사치일까?

〈북부교육지원청 창의인성교육지원과 장학사 윤진수〉

